

# 영덕의 보물선 축산항 이야기

## 1부 | 축산항 에세이

축산항! 개항 100년 보물선 프로젝트  
축산(丑山)이라 했나요  
축산항 탐사대와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며  
축산항과 함께한 1년의 추억들  
영덕의 숨겨진 보물단지 축산항

## 2부 | 축산항 여행기

내가 만난 축산

## 3부 | 축산항 인터뷰

바다와 함께한 사람들  
마음을 파는 사람들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

## 4부 | 부록

축산면 개관  
축산항 주민탐사대 활동보고



영주의 보물섬  
죽산항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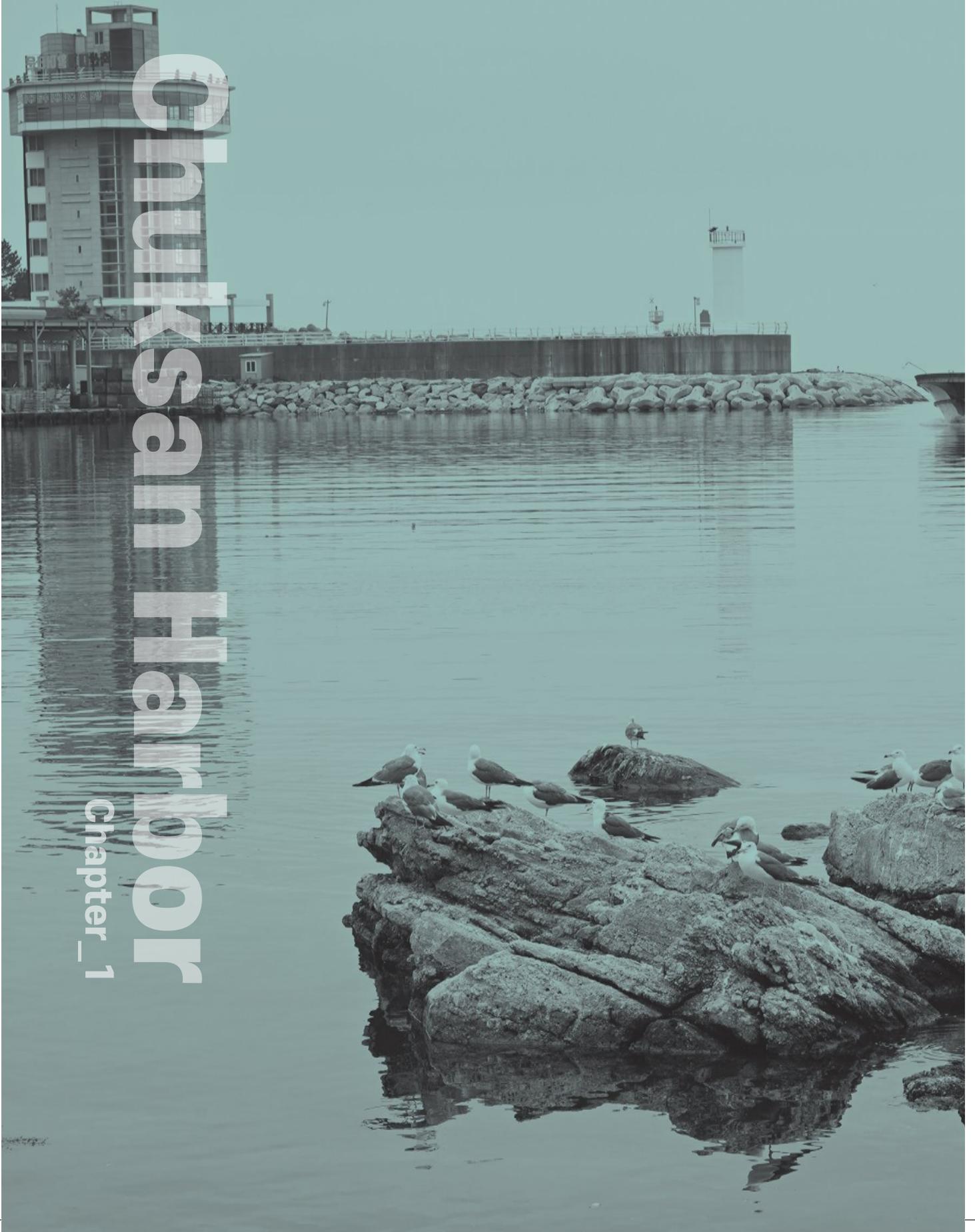
# CONTENTS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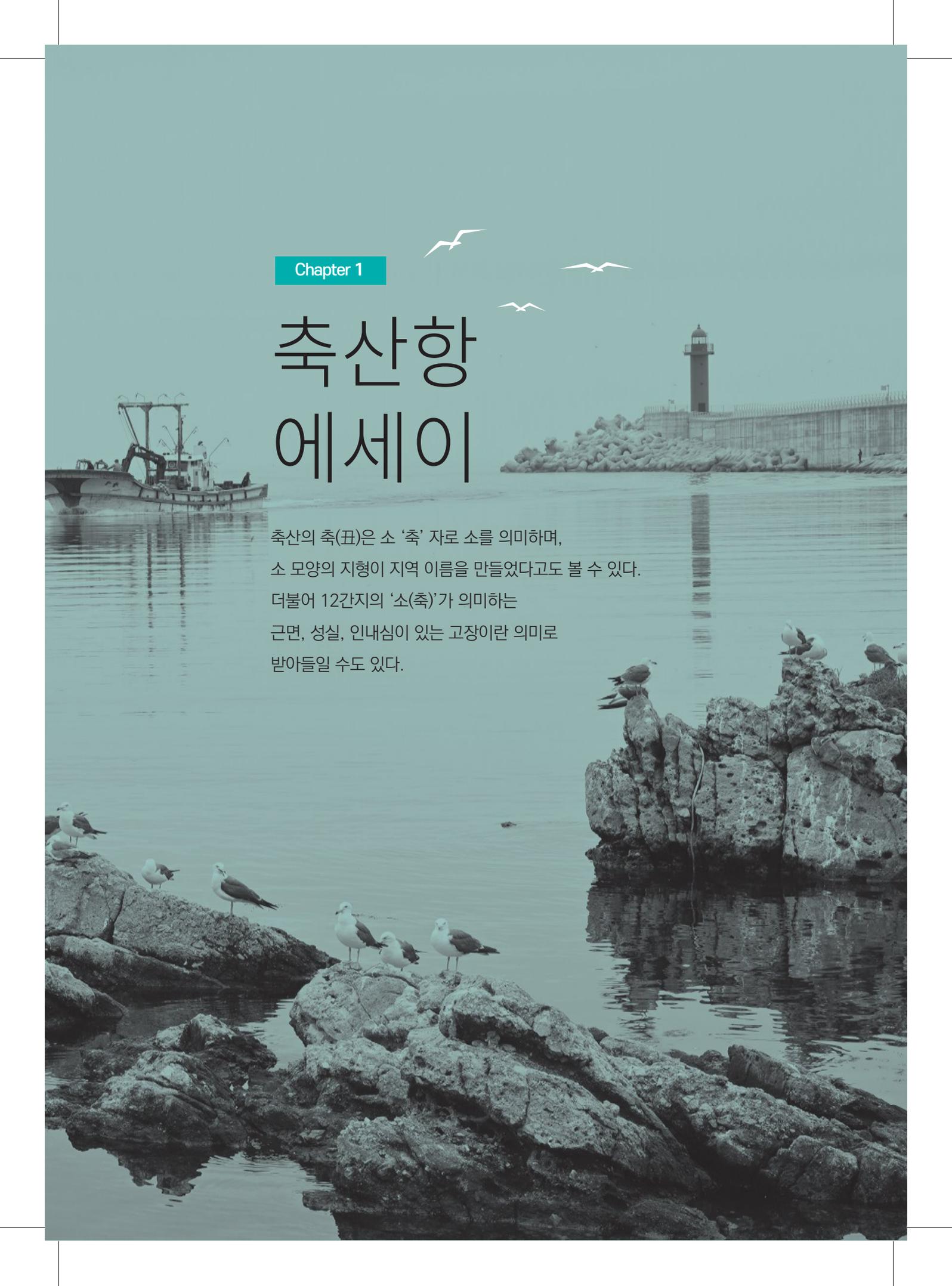
<b>Chapter 1 축산항 에세이</b>	6	축산항! 개항 100년 보물선 프로젝트_설태영
	10	축산(丑山)이라 했나요_김희진
	16	축산항 탐사대와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며_김효산
	20	축산항과 함께한 1년의 추억들_황정현
	24	영덕의 숨겨진 보물단지 축산항_성현무
<b>Chapter 2 축산항 여행기</b>	30	내가 만난 축산_배길남
<b>Chapter 3 축산항 인터뷰</b>	42	〈1편 : 바다와 함께한 사람들〉
	44	박천봉
	52	박금한
	60	김세현
	68	김순남
	78	김영복
	86	〈2편 : 마음을 파는 사람들〉
	88	남금숙
	96	오해조
	102	최종명
	110	손광웅
	118	〈3편 :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
	120	안종한 / 최말선
	128	김동환
	136	권 호
	144	오장울
	152	박달봉
<b>Chapter 4 부록</b>	162	〈축산면 개관〉
	163	1. 위치와 면적
	164	2. 자연환경
	166	3. 인구현황
	170	4. 축산항
	172	〈축산항 주민탐사대 활동보고〉
	172	1. 프로젝트 개요
	176	2. 활동결과보고_사진
	179	3. 활동결과보고_영상
	180	4. 활동결과보고_어반드로잉



# Onyxsan Harbor

Chapter\_1





Chapter 1

# 축산항 에세이

축산의 축(丑)은 소 '축' 자로 소를 의미하며,  
소 모양의 지형이 지역 이름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더불어 12간지의 '소(축)'가 의미하는  
근면, 성실, 인내심이 있는 고장이란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 축산항! 개항 100년 보물선 프로젝트

글 설태영 | 영덕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사업본부장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경상북도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구성은 도시의 미래 비전을 담은 담론 형성, 주민들로 구성된 문화활동가의 역량 그리고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비전체계와 다양한 형태의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참여하는 주민들의 시민력 그리고 그 도시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특성화 사업으로 구분합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대동소이 하지만 특성화 사업에서는 확연한 차별성이 생깁니다. 지속가능성을 현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특성화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을 기점으로 문화도시 2.0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포항, 칠곡이 법정 문화도시가 되었고 올해 경주, 안동, 구미가 경북을 대표해 전국 지자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도시 특성화 사업의 과제를 풀기 위해 재단은 2022년부터 축산항에 주목하게 되었고 영덕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곳이 축산항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축산항은 세종시에서 같은 위도에 위치한 정동진입니다. 세종을 중심으로 대전·대구·경북 아래로는 부산·울산 위로는 청주를 아우르는 충청도까지 고속도로 개통 및 고속철도 개통으로 여행하기 좋은 2시간 거리에 천만 명이 살고 있는 초광역권 동쪽 바다 끝이 영덕입니다. 한반도 지도를 90도 회전시켜 중부권의 해운대라 이름 붙이는 발칙한 상상력을 축산항을 통해 펼쳐봅니다.



축산항과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막내 동생이 11살에 가출하여 축산항에서 살았고 축산항에서 결혼하여 아들 삼형제를 낳고 20수년이 지나서야 통영의 누이를 찾아왔던 나의 어릴적 기억이 뚜렷한 곳입니다. 외삼촌과 어머니는 3일 밤낮을 부둥켜 안고 울었던 슬픈 기억이었지만 나 또한 어떤 인연의 굴레처럼 축산항을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의 정점인 특성화 사업은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관광과 닿아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개항 100년의 축산항을 통해 인구소멸과 시대 변화에 따른 쇠퇴와 맞서고자 합니다. 기록유산이 전무한 축산항 그 자산의 가치를 손꼽아 보자면 축산항을 통해 유통된 수산물만 과거 영덕을 먹여 살렸던 일등 경제 지표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하관, 지금의 시모노세키에서 부산항을 거쳐 호미곶, 영일만, 축산항, 울릉도를 일주일씩 운항하던 여객항의 기능으로 영덕의 젊은이들이 세계로 나가는 관문의 역할과 100년 동안 축적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접점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자기 도시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부산 영도가 개항을 기록해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는 기회를 잡아 조선업의 쇠퇴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해의 역사, 남원의 스토리, 철곡의 인문, 포항의 철학 등 기록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콘텐츠산업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우리 영덕과 축산항의 기록자산이 조선시대까지의 기록으로 멈추어 있으면 안됩니다. 만호가 주둔 하던 곳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스타벅스의 기업명은 허먼 멜빌의 소설 《백경》 Moby Dick에 나오는 일등 항해사 ‘스타벅(Starbuck)’에서 유래하였다고 추측합니다. 스타벅스 로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Siren)이라는 바다의 인어로 17세기 판화를 참고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래잡이와 관련 있었던 작은 마을의 작은 가문의 이야기를 근자에 스타벅스 회사에서 브랜드 이미지로 재구성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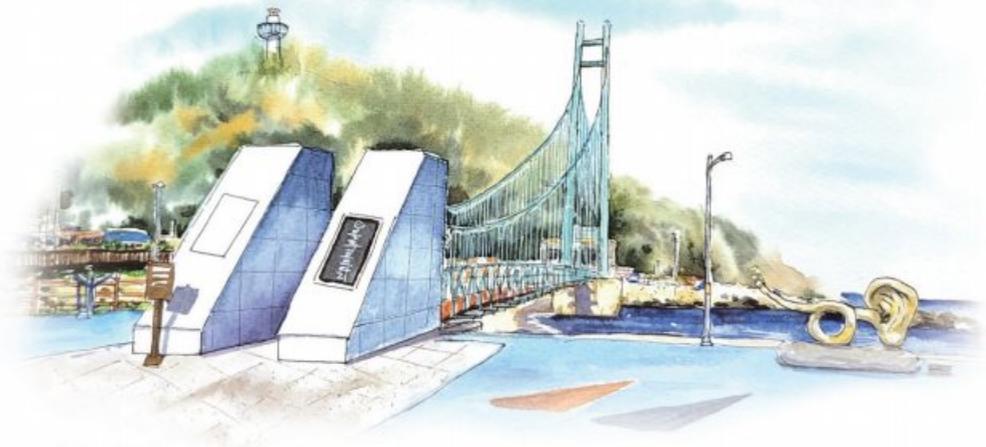
문화도시로 가는 길, 문화로 축산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축산항 개항 100년 보물선 프로젝트’입니다. 축산항 주민들은 과거의 영광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쇠퇴를 모두 경험한 세대입니다. 아프고, 고달프고, 힘겨움을 알고 있습니다. 2024년은 축산항! 개항 100년입니다. 개항은 해외와 연결되는 시점을 말하기도 하지만, 축산항 이야기는 영덕의 근·현대를 열었던 축산항에 모여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육성, 생동하는 축산항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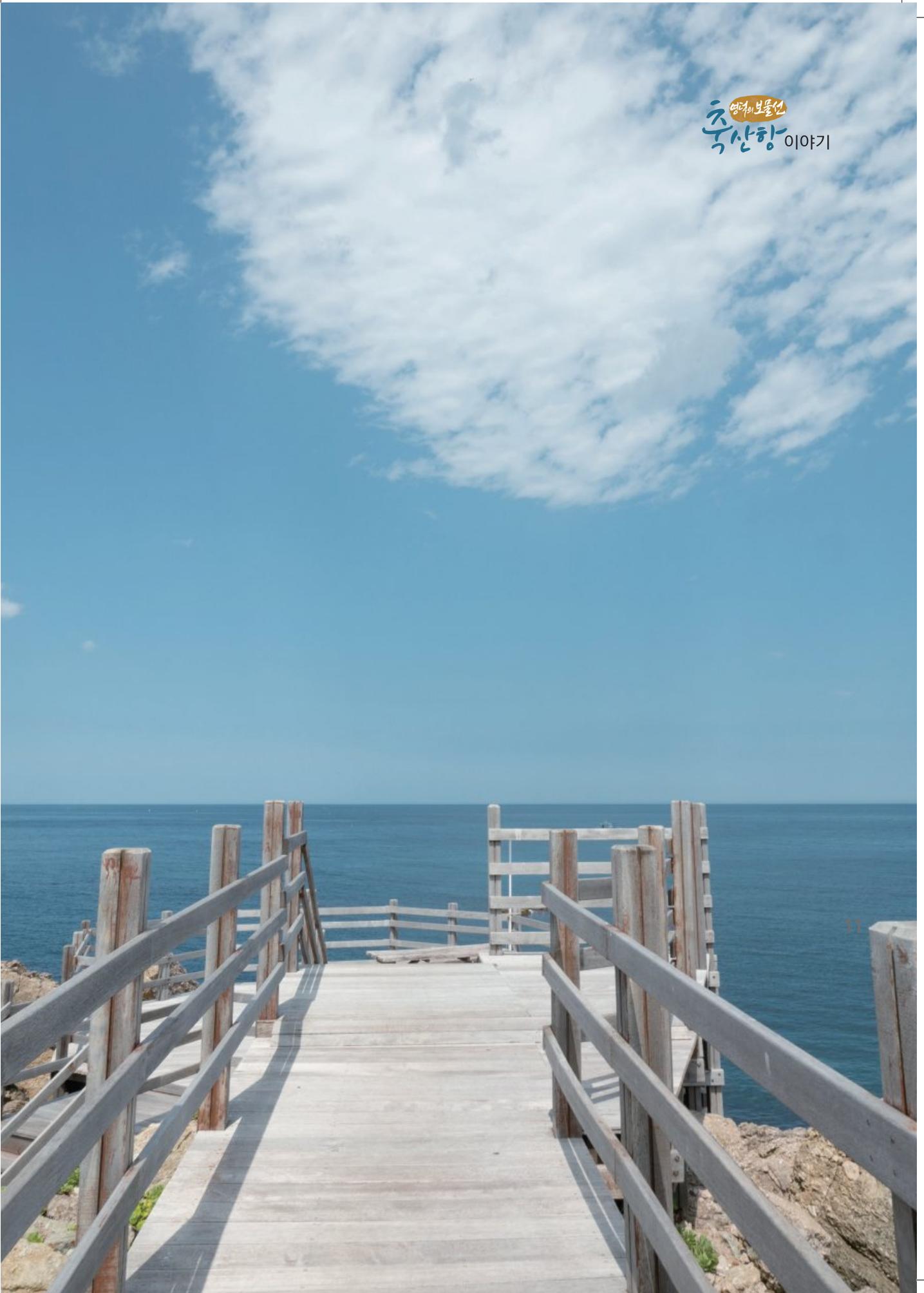
## 축산(丑山)이라 했나요

축산항 개항 100년 보물선 프로젝트 참여기

글 김희진 | 축산항 주민탐사대 영상팀 멘토



난류와 한류가 만나 풍부한 어장을 형성한 동해에 작고 아담한 항구인 축산이 있었습니다. 원조 대게 마을인 차유마을과 죽도산과 와우산, 축산항 등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그곳에서 축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영덕군에 자리한 축산항은 블루로드를 걷는 사람들에게 이미 미항으로 알려진 곳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와 더불어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진과 그림, 영상으로 기록하며 함께한 주민탐사대와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공유공간인 영해면 다오소 오피스에서 처음으로 만난 주민탐사대 일원들은 제각각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영덕군 내의 다양한 동네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축산이 고향이신 분에서부터 축산초등학교의 교장을 지내신 분, 지난 시절 축산에서 성장기를 보내신 분, 이주자로서 이제 축산과 영덕이 제2의 고향이 되신 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결같이 축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축산초등학교

취미로 가진 사진 찍기와 그림 그리기, 그리고 영상 촬영 등 나름 재주를 갖춘 그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축산의 아름다움을 외부로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스스로 축산의 홍보 대사이기를 자청한 그들은 역사적인 옛이야기에서부터 축산에서의 추억, 숨어있는 명소, 축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개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정보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축산의 자랑거리이자 보물 같은 이야기로 이번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덕분에 공부도 많이 되었습니다.

축산의 축(丑)은 소 축 자로 글자 그대로 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형의 형태로 비롯된 와우산 처럼 소 모양의 형태가 동네 이름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에 더불어 12간지의 소(축)가 의미하는 근면, 성실, 인내심이 있는 고장이란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축이 지칭하는 방향이 동북이므로 위치로서 이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축은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하는 계절적 시간을 의미하므로 얼었던 땅이 녹아 새싹을 키우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곳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씨들이 생명의 순간을 준비하는 미래적인 희망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축산향 주민탐사대를 통해 만난 분들은 모두가 성실하고 우직한 면이 엿보였고, 새로운 가치와 희망을 찾아가는 진취적인 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온한 바다와 더불어 거친 풍파를 드러내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자연의 힘과 어울려 삶을 지켜온 지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서로를 알고 과정을 공유한 다음 주말을 이용한 사진과 영상 촬영, 그림 그리기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함께 걸으며 축산의 이곳저곳을 탐사하니 점차 속살을 드러내는 축산의 매력에 빠져들어 갔습니다. 얼굴만 잘난 미남 미녀보다 속 깊은 사람의 매력이 더하듯이 축산은 예사롭지 않은 끼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옛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골목을 걸으며 부끄럽게 자신을 살짝 감추고 있는 매력 포인트를 발견할 때마다 물속에 잠긴 보물선보다 더 많은 보석이 곳곳에 숨겨져 있음에 감탄했습니다.

수군의 진지가 있었던 죽도산의 전망과 봉수대의 파노라마, 왜구에 대한 방비로 만든 허물어진 성벽 터의 흔적, 이제는 흔적이 점차 사라져가는 왜소한 조선소, 안내 없이는 인지할 수 없는 폐가가 된 일식 가옥,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이발소 등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물가자미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과 주민들의 친구이자 이웃인 동네 다방들이 곳곳에서 사람을 반겼고, 지역 발전을 위해 축제를 만들고, 흥밋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너 차례의 답사와 기록 과정에서 동네 주민들도 관심을 보였고, 지역의 현안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모두가 고장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 오는 축산과 밤의 축산이 달랐고, 매번 바뀌 먹은 지역 음식에 감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개하고픈 마음이 절로 생기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축산항 전경

기술적 숙련도는 떨어지지만, 애정으로 담고 그린 작품들이 하나씩 완성되어 갈 때 이 과정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축산에는 너무도 많은 매력과 이야기가 있기에 한 번에 모든 걸 담아 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탐사대원들도 그러한지 모두가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약 두 달여의 시간을 각자의 일상을 나누어 진행한 주민탐사대 활동은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함께 고민하고 움직이며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었고, 주민들과 교류하며

축산항의 미래를 나누는 것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만남과 나눔이 계속된다면 축산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고,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 될 거라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흔히 지역 리서치라고 하여 지역의 문화자원을 주민 스스로 조사하고 기록하는 활동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역을 주민 스스로 아카이브 한다는 것은 지역의 소중한 발전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은 지역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좋은 자료가 됩니다. 스스로 했으니, 애정도 더욱 강하겠지요.

죽도산에 왜 대나무가 많았는지, 누가 쉽게 알겠습니까. 화살대를 만들기 위해 대나무를 키웠다는 이야기는 현지인에게 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영덕대게의 대게가 게의 발과 관절 모양이 대나무를 닮아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대게를 먹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선이 출항



할 때 대나무에 깃발을 달아 만선을 기원하며 바다로 나아갑니다. 축산은 대게의 원조 고장이자 죽도산을 통해 대나무를 상징화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항으로 진입하는 도로 곳곳에 대나무 깃발로 사람들을 반기는 설치물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축산항이 바다가 아닌 육지로 부터의 만선이 되길 기대합니다.

주민탐사대에 참가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인사를 전합니다.



## 축산항 탐사대와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며

글 김효산 | 축산항 주민탐사대 사진팀 멘토

최근 현대예술의 특징 중 하나는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리며 그것들을 예술의 세계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술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발견해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이라는 매체가 이 일상성을 기록하는데 가장 적합한 매체이고, 일상을 기록한다는 것은 사진 탄생 이후 18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이어져 온 사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최근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일상의 기록에 대한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영덕, 축산항 주민탐사대’는 100년을 이어온 축산항의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오늘의 의미를 되살리며 미래를 위한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위해 영덕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팀을 구성하고 이론수업과 현장 실습을 통해 흔하게 만나는 일상을 어떻게 기록하고 예술로 승화시킬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두 번의 이론수업, 두 번의 현장실습과 개인별 촬영 그리고 여러 번의 멘토링을 통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축산항 주민탐사대 발대식



축산항 보물선 프로젝트 주민 사업설명회



축산항 주민탐사대 영상팀 편집 작업중



축산항 주민탐사대 사진팀 구도 수업중

김용록님은 열정이 넘치는 작업을 보여 주셨습니다.

24시간 카메라와 한 몸이 되어 늘 기록하는 것이 일상이 된 김용록님은 ‘높은 곳에서 바라본 축산항’이란 목표를 세우고 같은 장소를 여러 날 방문해서 한 장으로 결합시킨 작품을 비롯해 축산의 구석구석을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다니시며 사진은 눈으로 찍는게 아니라 발로 찍는다는 걸 증명해주셨습니다.

원충희님은 연륜이 느껴지는 작업을 보여 주셨습니다.

28년간 북영덕농협 축산지점에 근무했던 원충희님은 이미 지역에서는 잘 알려진 분이십니다. ‘축산항은 왜 아름다운가’, ‘왜 안전한 항구인가’, ‘축산항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가나?’라는 테마로 글을 쓰듯이 스토리가 있는 사진 구성을 통해 오랜 연륜을 보여주셨습니다.

한지수님은 다큐멘터리 사진의 정석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체국장으로 은퇴한 한지수님은 체신 전문가답게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원칙과 사진 속 도로명 주소를 통해 건물의 위치를 가늠해보는 법까지 자신만의 화법으로 멋진 작품을 보여주셨습니다.

박경희님은 사진으로 희망을 보여 주셨습니다.

은퇴를 앞둔 박경희님은 교육자의 시각으로 축산항의 이모저모를 사진으로 담아냈고 옛 축산항 국민학교 사진, 2044년 개봉 예정인 타임캡슐,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등을 보여주며 학교에 대한 애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비록 현재 18명이라는 적은 인원이 있지만 사진 속에서 밝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은 축산항의 희망이 자라는 것이라 생각하게 해 주셨습니다.

장사리부터 고래불까지 영덕은 산과 강과 바다가 어우러진 절경을 간직한 곳이고 그 한가운데에 축산항이 있습니다. 대소산 봉수대에 올라 축산항을 내려다보면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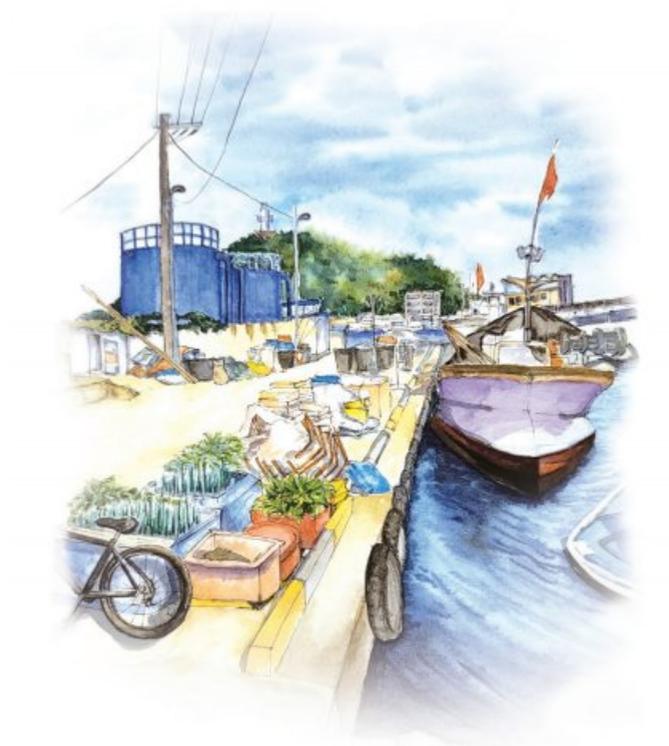
또한 축산항에는 건강한 사람들을 아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구술채록하는 과정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분들이셨습니다. 아마도 신선한 공기, 철마다 나는 신선한 해산물과 맛있는 음식들이 주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아름답고 풍요롭고 건강한 축산항의 개항 100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더욱더 아름답고 풍요롭고 건강한 축산항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신 탐사대원들과 스태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축산항과 함께한 1년의 추억들

글 황정현 | 영덕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



20

이제이 에세이  
| 1부 - 축산항 에세이

2023년, 축산항 개항 100년 기념 보물선 프로젝트를 통해 축산항 주민들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면서 축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랑은 사뭇 다른 분위기여서 낯설기도 했지만, 어떤 동네일까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 궁금증 가득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호기심 반, 긴장 반으로 다가가며 담당자인 절 낯설어하지 않도록 자주 찾아 뵙고 제 얼굴을 익힐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축산항의 과거 100년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축산항에 숨겨진, 그리고 축산항 주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이야기들을 책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참여한 주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함께 기록해 가는 과정들이 축산항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담아내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완성본을 보면 힘들었던 일들이 전부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영덕주민들의 색다른 시선으로 축산항을 담기 위해 진행한 축산항 주민탐사대는 축산항에서 무심히 지나쳐 갔던, 혹은 축산항의 새로운 모습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록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같이 참여해주신 주민분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한 장면 장면의 서사를 들여본다면 축산항의 새로운 매력들을 알리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축산항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공유하고 그 동안 쌓여져 왔던 축산항의 이야기들에 올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책갈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축산항 와우(WOW) 난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축산항 와우(WOW)난장은 축산의 대표 산 중 하나인 와우산의 이름을 본떠, 축산항에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가득! 축산항 100년 개항을 맞이하는 축산항에게 감탄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지어진 이름인데요, “축산항 히스토리(History) : 그 동안 기록한 자료들을 통해 축산항의 과거를 되돌아 보는 시간”, “축산항



나우(Now) : 지금 축산항에서 바로 만나볼 수 있는 신선한 해산물”, “축산항 쇼우(Show) : 축산항 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무대” 세 가지의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축산항 히스토리(History)에는 축산항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통해 옛 이야기를 나누며 축산항의 옛 모습을 떠올리고, 축산항 주민탐사대가 기록한 사진, 영상, 어반드로잉 작품을 전시하여 축산항 현재의 모습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평상시와는 다른 시선으로 담긴 작품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축산항의 새로운 매력을 많이 느끼고 간 전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항 나우(Now)는 축산항의 명물이자 특산물인 물가자미, 오징어를 활용한 먹거리 프로그램으로, 무려 前 청와대 전담셰프이신 천상현셰프님과 영덕에 새로 이주하신 하쿠승호 작가님께서 축산의 특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여 새로운 맛을 선사했습니다.

또 지역의 손맛이 담긴 지역 먹거리 부스와, 신선한 해산물 및 건어물을 살 수 있는 부스까지 축산항의 맛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축산항 주민탐사대 작품 관람 중



축산항 특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레시피 요리 중인 천상현 셰프



기록영상 세팅 중인 영상 감독님



축산항 개항 100년 보물선 프로젝트 와우(WOW)난장 참여 주민

마지막으로 축산항 쇼우(Show)는 축산항 주민들의 끼와 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노래자랑과, 축산항에서 나고 자란 가수분들의 유년시절 이야기와 노래까지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였는데요. 굿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신나게 즐겨주셔서 뿌듯했던 무대였습니다.

‘축산항 100년 보물선 프로젝트 와우(WOW) 난장’을 통해 그동안 준비한 것들이 알려지고 공유하게 되면서 ‘내가 축산항에 꽤 진심이였구나’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반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무엇보다 굿은 날씨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주민들의 모습이 즐겁고 행복해 보이셔서 뿌듯하게 축산항 프로젝트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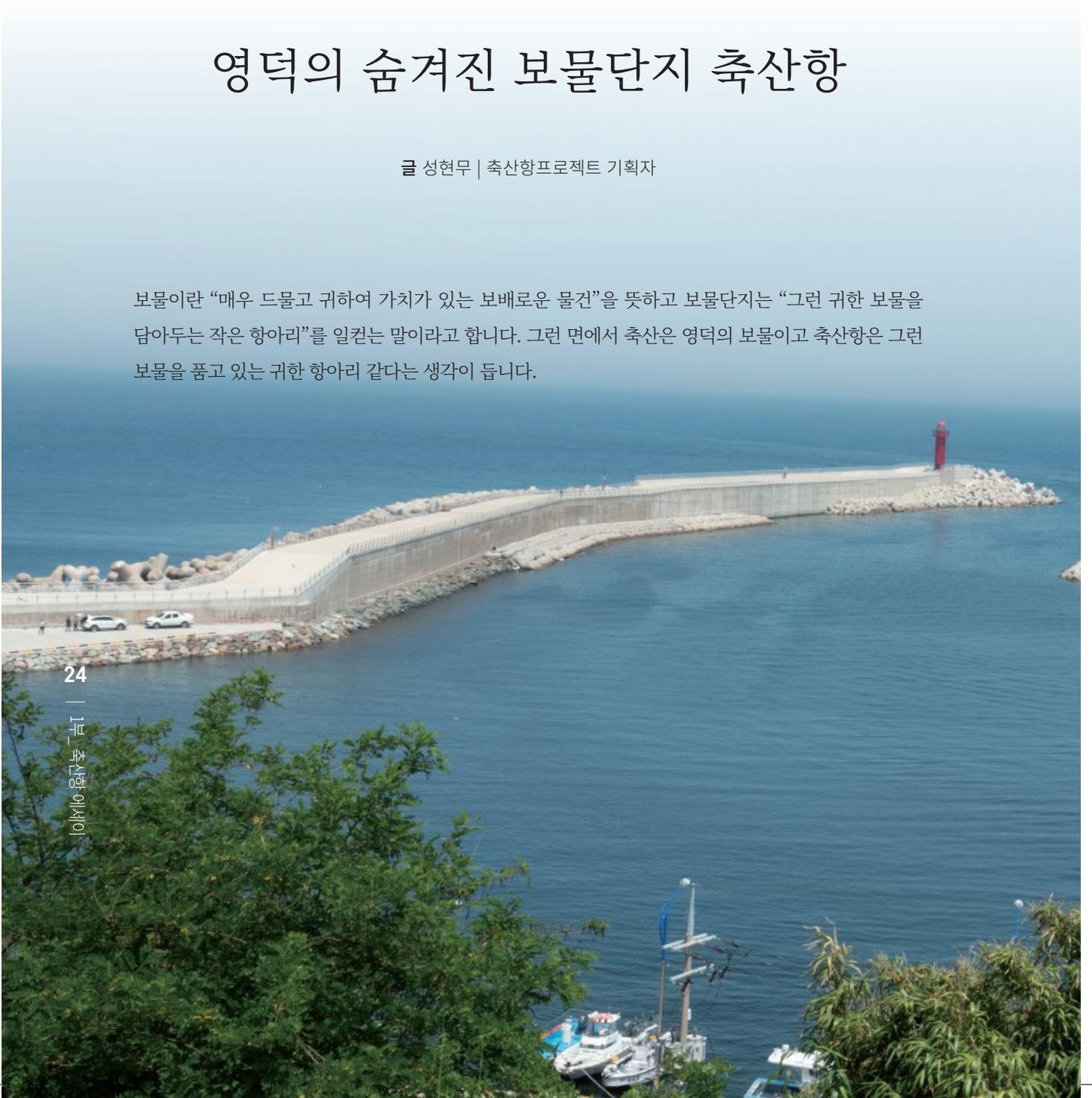
축산항 100년 보물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축산항 주민분들과 축산항 주민탐사대 분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스태프 및 우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덕분에 축산항 100년 보물선 프로젝트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인사 말씀 전합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 영덕의 숨겨진 보물단지 축산항

글 성현무 | 축산항프로젝트 기획자

보물이란 “매우 드물고 귀하여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을 뜻하고 보물단지는 “그런 귀한 보물을 담아두는 작은 항아리”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축산은 영덕의 보물이고 축산항은 그런 보물을 품고 있는 귀한 항아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과 영상, 어반드로잉(도시의 모습을 스케치로 담아내는) 3개 장르의 주민탐사대와 함께 축산항의 여러 모습을 새롭게 찾아보고 기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11명의 탐사대원과 3명의 전문가 멘토가 함께 했는데 무엇보다 참가한 주민들의 역량과 열정이 대단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인구 3.5만 정도의 작은 도시에 이런 실력을 가진 주민작가들이 즐비하다는 사실도 흥미로웠고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서 더 좋았습니다.



축산항 주민탐사대는 특강과 이론·실기수업, 현장탐사, 워크샵, 성과발표회 등 입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탐사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넘쳤고 특히 현장탐사는 익숙하지만 새롭고 낯설게 축산항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탐사의 결과물은 축산항 와우난장 때 야외 전시로 선보였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실내 전시장에서 좀 더 격을 갖추어 정식 전시회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옛것이 귀하고 소중한 시절이 왔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새로운 영감을 얻고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배경과 그 사업지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새로운 미래는 지금의 현재와 그 현재를 만든 과거의 일들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요. 축산항 100년 생애사의 첫 출발로 축산항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을 채록하고 영상으로 기록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축산항의 역사와 주민 개개인의 삶이 오롯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부와 해녀, 식당과 세탁소, 조선업과 관광, 조합장과 선주로서 다양한 장르의 업종과 직업을 가진 분들을 만났습니다. 참 이분들이 정말 축산항과 함께 웃고 울면서 평생을 살아왔구나(짧게는 20여년 길게는 70년 넘게 축산항에 터를 닦고 살면서)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과 영상으로 만들어 다른 주민들, 가족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기록으로 잘 보관하는 작업입니다. 와우난장 때 기록영상을 상영 했는데 비가 오는 와중에도 꼼짝 않고 보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축제는(단순한 오락이나 유흥이 아니라) 축제가 열리는 도시와 마을을 바꾸고 참여하는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삶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매우 유쾌하고 신나는 ‘집단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축산항 와우난장은 참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와 살거리가 아주 적절하게 잘 구성되었고 영덕문화관광재단의



축산항 주민탐사대 활동사진

기획과 현장운영이 참 좋았습니다. 지나고 생각하니 비가 온 덕분에 더 운치도 있고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얻어먹은 가자미무침과 막걸리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영덕의 숨겨진 보물단지 축산항이 이제 개항 100년을 맞습니다. 지난 세월 엄청난 영광의 시간도 있었고 또 어쩔 수 없는 쇠락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아쉬운 대목도 있겠지요. 여하튼 이제 축산항은 지난 100년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시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첫 출발이 <축산항 주민탐사대> <축산항 기록집> <축산항 와우난장>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주민들의 인터뷰, 탐사대의 기록에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축산항의 지혜와 전략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Chuksan Harbour

Chapter 2



Chapter 2

# 축산항 여행기

1789년의 『호구총수』에 의하면  
축산면은 축산육리, 축산진리(丑山津里) 등  
15개 리로 구성됐다고 한다.

또 1896년까지는 영해부의 남면(南面)으로,  
1896년 이후로는 영해군의 남면이었다.





## 내가 만난 축산

글 배길남 | 소설가, 축산항 구술채록 작가



### 축산은 왜 축산일까?

축산(丑山), 얼핏 들으면 축산업 할 때의 축산(畜産)을 떠올릴 수도 있다. 실제 축산항 부근의 축산 2리에는 축산업을 주로 하는 농가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축산의 이름은 그렇게 만만하게 지은 이름이 아니다. 100년 역사를 가진 항으로서 동해안 굴지의 어항으로 이름을 떨쳤고, 조선 시대부터 수군만호가 주재할 정도로 군사적 요충지였던 축산!

축산의 이름 유래를 꼼꼼히 따져보면, 이는 주변의 범상치 않은 지리를 면밀하게 따지고 붙인 고급 명칭이란 걸 알 수 있다. 일단 축산항 주변의 산들을 살펴보면 축산이란 이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죽도산 전망대가 있는 죽도산은 축산을 상징하는 이름이다. 이를 중심으로 북쪽 육지에서 해변으로 뻗어있는 산은 누워있는 소의 형상인 와우산(臥牛山)이라 칭한다. 또 죽도산 남쪽 경정 해변에서 길게 이어진 산이 말의 꼬리란 의미의 말미산(마미산). 어떤가?

한 마리의 소가 머리부터 몸통 꼬리까지 산으로 이어진 형국이니 이 지역을 ‘소의 산’, 우산(牛山)으로 부르며 한 마리의 소로 여겼던 것이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온 조선 팔도에 우산은 너무 많았다. 바로 근처 진전면만 해도 와우산(臥牛山)이 따로 있다. 그렇다고 이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를 평범히 부를 순 없었다. 이때 누군가 “12간지에서 소가 축(丑)이니까, 축산으로 부릅시다!”라는 신박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것이다. 그렇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축산(丑山)의 명칭은 그렇게 몇백 년을 이어져 오고 있다.

“여기를 왜 축산이라 부르는가 하면, 옛날에 여기서 소를 좀 많이 먹였어요. 실제 축산업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 뒷산 이름이 와우산이잖아요? 소가 누워 있는 형태다. 여기가 소머리가 있고 또 산줄기로 치면 저기 경정 쪽이 소꼬리 부분인데 여긴 말미산이거든. 소와 말이 감싸고 있잖아요. 축산이란 이름도 그냥 나온 게 아니죠.”

- 축산 1리 주민 박달봉 씨 인터뷰 중에서

## 축산항이 걸어온 길

축산항은 일제강점기인 1924년에 조성됐다. 하지만 축산이 항구의 역할을 일제에 의해 얻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축산은 영해부(寧海府)에 소속되어 영해 부사의 관할을 받았으며, 엄연히 고려조부터 만호성이 있던 병영취락(兵營聚落), 그러니까 군사와 민간인이 함께 살아가는 값어치 있는 지역이었다.



1789년의 『호구총수』에 의하면 축산면은 축산육리, 축산진리(丑山津里) 등 15개 리로 구성됐다고 한다. 또 1896년까지는 영해부의 남면(南面)으로 1896년 이후로는 영해군의 남면이었다. 갯가지 어종이 풍부했던 축산은 당시 속초항부터 활황이던 정어리 어획과 동시에 전쟁용 정어리 기름을 생산하던 곳이었다. 또 도곡리의 금광에서 채굴한 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정어리가 엄청 잡혀가지고 일본이 그 기름을 짜서 저장하던 기름 저장고가 여기 있었어요. 저쪽 신기 마을(축산 3리 부근) 돌출 부분에 그게 있었는데, 한국전쟁 때 비행기 폭격으로 싹 없어졌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런 정어리 잡는 견착선 업주였는데 축산에 왔다가 어머니와 인연이 되어서 결혼을 하신 거죠”

- 축산 1리 주민 박달봉 씨 인터뷰 중에서

축산항을 처음 찾는 이들이 7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커다란 광고판을 만날 수 있다.

‘대게의 고향, 천리미항 축산항’

어라? 대게면 강구 아니었나? 영덕 초보자들이 흔히 틀리는 잘못된 상식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게의 고향은 축산 아래 있는 차유마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축산이란 이름이 가지는 확장성은 커서, 대게의 원조 지역으로 말하기에 큰 무리는 없다. 현재 불법 조업으로 금지됐지만 고대 구리 어선(소형기선저인망)이 주를 이루던 시절, 의도치 않게 잡힌 대게에 대한 에피소드는 참으로 많았다.



대게는 제가 어릴 때 보면 삼촌하고 아버님하고 그물을 가지고 대게 잡는 걸 봤었어요. 그때는 워낙 옛날이니 잘 기억이 안 나요. 대신 고대구리 어선이 한창일 때는 많이 봤지요. 저인망 그물을 끌어올리면 대게가 엄청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대게하고 지금 못 잡게 돼 있는 방게하고 엄청 많이 올라왔지. 꼭 그걸 잡으려고 한 건 아닌데 많이 잡혔었죠.

- 축산 1리 주민 김세현 씨 인터뷰 중에서

어종이 워낙 풍부했던 축산은 일제강점기에는 정어리, 50년대 이후에는 콩치, 쥐치, 물가자미(미주구리), 명태, 노가리, 오징어 등등의 어종이 말 그대로 물 반 고기 반으로 잡혔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잡은 고기를 위판장에 쏟아놓고는 배 깃발만 꽂아놓고 다시 바다로 서둘러 나갔다는 일화, 위판장에 고기가 너무 많다 보니 지나가던 개나 고양이도 생선을 물고 다녔다는 일화, 위판장에서 일하며 하루 종일 밥을 먹지 못해서 장만하던 생선을 회로 떠서 몇 입 먹고는 다시 일을 해야 했다는 일화,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 축산으로 몰려들었던 일화, 처음 축산으로 이주했는데 극장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일화, 건조하던 오징어가 태풍으로 다 날아가 온 길가에 깔려있었다는 일화... 등등.

이러한 축산항의 전성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있다. 몇백 척의 배가 겹겹이 포개져 부두에 정박해 있는 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축산항 부두에 정박하지 못한 배가 넘쳐나던 시절... 수많은 어선은 부둣가 1열에 정박한 어선 뒤에 2열, 3열로 포개어 배를 정박해야 했다. 선원들은 배에서 바로 내리지 못하고 어선과 어선을 뛰어넘으며 육상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축산의 전성기 때가 70년도 후반, 80년도 이 당시가 참 좋았었죠. 배들이 댈 데가 없으니까, 옆을 대면 그 뒤로, 사이 사이로 배를 대고, 다른 배를 건너서 항구로 들어오고 그랬으니까요. 그때는 장사하는 아줌마, 할배들이 개똥을 팔아도 다 팔고 간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웃음)”

- 축산 1리 주민 손광웅 씨 인터뷰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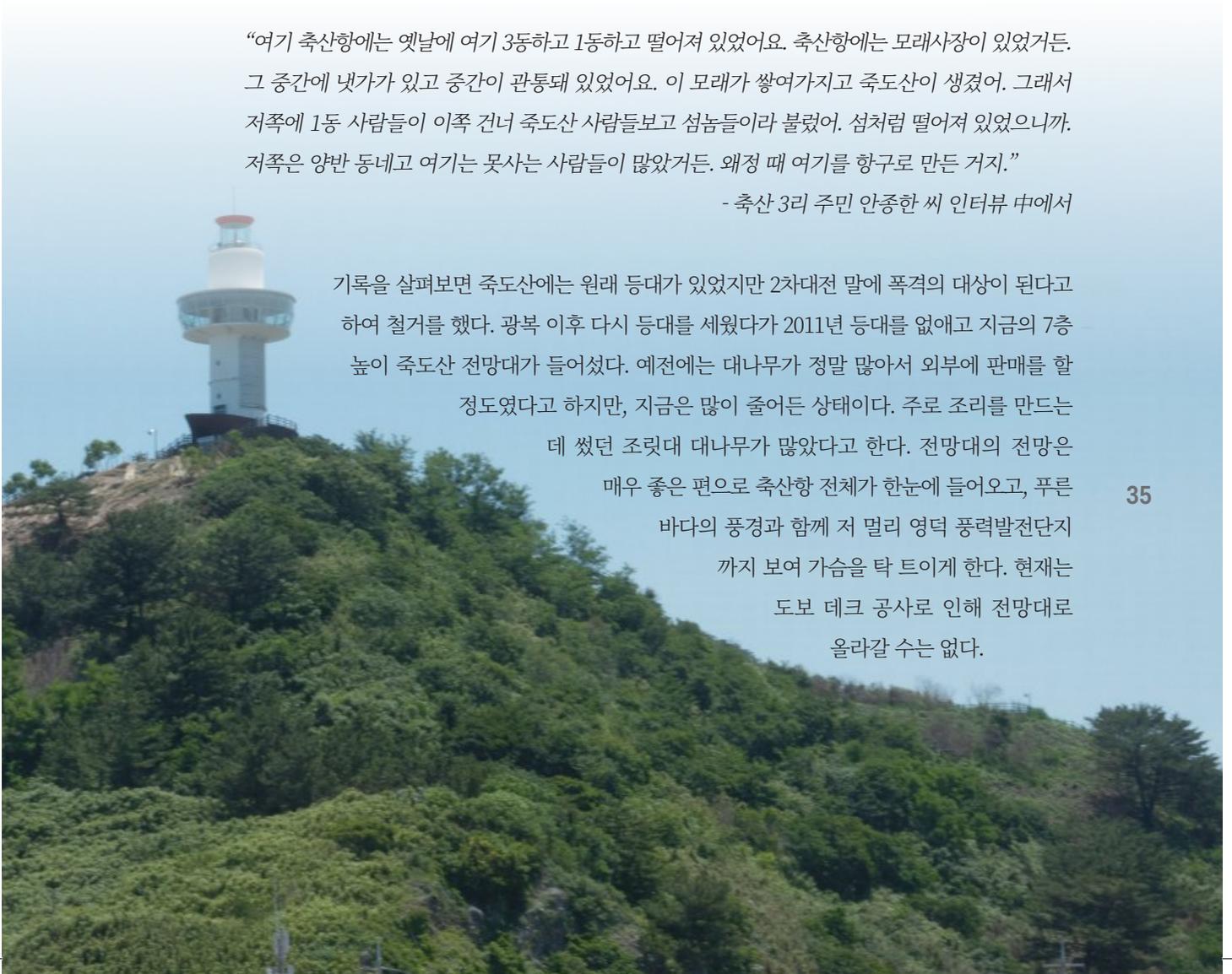
## 죽도산은 섬이었다

죽산으로 들어오는 길은 7번 국도를 타고 가다 해안도로로 오거나 지방도로로 오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어느 쪽으로 오든 죽산 1리 북쪽의 와우산이나 경정 쪽의 말미산을 지나야 하니, 산을 넘어서 와야 하는 곳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죽산의 교통은 그렇게 편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풍부한 어족 자원과 어선 항로상 죽산항의 지리적 위치 등 여러 이점으로 인해, 한때는 울진의 후포항과 영덕 강구항, 포항의 구룡포항보다 더 많은 배가 모이는 어항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런 죽산항이 원래는 두 개로 갈라진 지형이었다는 부분이다. 현재 죽도산 전망대가 있는 죽산 3리와 죽산항 입구로 연결되는 죽산 1리가 죽산천으로 갈려 있었다는 얘기. 말 그대로 죽도산(竹島山)의 죽도(竹島)는 ‘대나무 섬’ 이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였던 1924년, 이곳에 항구를 만들며 죽산천의 모래사장이 매립됐다는 것이 정설. 덕분에 죽도산은 ‘육계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또 죽산으로 새로 이주한 사람들이 죽도 쪽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기에 ‘신기(新基)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 죽산항에는 옛날에 여기 3동하고 1동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죽산항에는 모래사장이 있었거든. 그 중간에 냇가가 있고 중간이 관통돼 있었어요. 이 모래가 쌓여가지고 죽도산이 생겼어. 그래서 저쪽에 1동 사람들이 이쪽 건너 죽도산 사람들보고 섬놈들이라 불렀어. 섬처럼 떨어져 있었으니까. 저쪽은 양반 동네고 여기는 못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왜정 때 여기를 항구로 만든 거지.”

- 죽산 3리 주민 안중환 씨 인터뷰 중에서

기록을 살펴보면 죽도산에는 원래 등대가 있었지만 2차대전 말에 폭격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철거를 했다. 광복 이후 다시 등대를 세웠다가 2011년 등대를 없애고 지금의 7층 높이 죽도산 전망대가 들어섰다. 예전에는 대나무가 정말 많아서 외부에 판매를 할 정도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주로 조리를 만드는데 썼던 조릿대 대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전망대의 전망은 매우 좋은 편으로 죽산항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고, 푸른 바다의 풍경과 함께 저 멀리 영덕 풍력발전단지까지 보여 가슴을 탁 트이게 한다. 현재는 도보 데크 공사로 인해 전망대로 올라갈 수는 없다.



## 축산항을 거닐다

가을이 다가오는 어느 고적한 날, 소설가 길남 씨는 축산항을 혼자 거닌다. 축산 1리의 항구 끝머리에 있는 남씨 발상지를 먼저 가보려고 한다. 아담하고 사이 좋게 자리한 축산 택시부와 버스정류장을 지나자 남씨 발상지 앞 팽나무가 눈에 들어온다. 이전에 찾았었던 7월만 해도 팽나무는 머리를 깎지 않은 덩수룩한 아저씨의 형국이었다.

“저 나무를 이발을 시켜드려야 하는데 몇백 년 된 나무를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 솜씨 좋은 정원사나 기술자가 와야 될 텐데, 돈이 몇 백 든다 카던데...”

인터뷰를 하던 주민 한 분이 팽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던 말이었다. 하지만 더위가 슬며시 콩지를 빼고 사라지던 9월의 팽나무는 깔끔하게 단장된 모습이였다. 축산항 100년을 맞이하려면 아무래도 깔끔한 모습이 나올 것이다. 솜씨 좋으신 정원사가 일일이 신경을 쓰셨는지 잘라낸 부분마다 한자로 큰 대(大)자가 씌어져 있다.

계단을 조금 올라가니 ‘통사동’이라 적힌 비석이 보인다. 이곳이 남씨의 시조 영의공 김충이 살던 곳으로 벼랑의 바위에 통사동(通使洞)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현재의 비는 2005년에 새로 세운 것이라고. 김충은 중국 당나라 사신으로 일본에 다녀오다가 풍랑으로 표류해 축산으로 왔다. 당시 신라에 귀화해서 살기를 원했기에 신라 경덕왕은 그에게 남씨 성을 내렸다고 한다. 이런 사연들은 영양 남씨 발상지 비에 모두 적혀 있는 내용이다. 소설가는 그곳에서 저쪽 항구 반대편을 바라본다. 원래 섬이었다는 죽도산과 그 뒤의 말미산이 눈에 들어온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지만 아직 햇볕이 따갑다.

계단을 다시 내려온 소설가는 축산 주민 인터뷰 당시에 들었던 만호성의 흔적을 찾기로 한다. 일반적인 성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는데 특이하게도 평지에 성벽이 있다고 그래서 평지성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 부근이 모두 모래밭이었다고 하니, 아무래도 성벽이 있는 곳은 당시에는 지대가 높지 않았나 유추된다. 주택들과 골목 사이로 보이는 만호성의 돌은 언뜻 보기에도 커다랗고 무게가 있어 보인다. 이런 유적은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집을 짓거나 다른 건축을 위해 파괴되고 부서지기 일쑤이다. 축산의



만호성은 그나마 그 성줄의 흔적을 남겨놓고 있다. 그래서인지 문화유적 0912-016번으로 지정돼 있다고 한다. 재밌는 건 매년 충산항에서 열리는 물가자미(미주구리) 축제의 물가자미와 이 만호성이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스토리텔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자.

고려 우왕 때 왜구의 피해는 엄청났다. 충산 부근도 예외는 아니었다. 완전히 폐허가 된 고을에 경상고 관찰사 윤가관 장군이 영해 부사의 요청에 따라 이곳으로 군사를 이끌고 왔다. 둘레 약 700m의 규모로 양면을 돌로 쌓고 가운데 흙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치첩(雉堞 성위에 낮게 쌓은 담)이 설치된 성(城)을 쌓아 왜구의 침입을 막았다고 한다. 그런데 성을 쌓기 위해 경주와 안동에서 급하게 데려온 2천 명의 군사들은 피로를 채 풀지 못한 채 노역에 임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전투가 아닌 축성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골절 등의 부상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 또한 안타까웠을 것이다. 주민들은 먹는 것이나마 잘 먹이려고 축산의 어부들이 잡은 물가자미를 대접하곤 했다. 말린 건 구워 먹고, 갓 잡은 건 뼈 채 썰어내어 무채에 버무려 줬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뼈가 부러진 부상병들이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성이 무사히 잘 지어졌음은 지금 충산 1리의 골목에서 소설가가 직접 확인 중이다. 충산의 물가자미는 그렇게 전국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금도 골절 환자들에게 회를 권하는 일이 많은데,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스토리텔링이 아닐까 싶다.



건다 보니 배가 출출해진 소설가. 말이 나온 김에 점심으로 축산의 명물, 물가자미 정식으로 식사해야겠다고 생각한다. 회, 조림, 식해, 구이, 튀김, 매운탕... 모조리 물가자미 한 가지로 만들어 내놓는 코스 요리이다. 그리고 보면 축산의 먹거리는 개성 있고 다양한 편이다. 물가자미 정식 외에도 싱싱한 대게와 울릉도식 조리의 식당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전부터 축산에는 울릉도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왔다고 하는데, 그 반증이 되겠다. 또 인심 좋은 정식집도 여럿 있는데, 반찬 가지 수만 보더라도 젓가락을 들기 전에 배가 부른 집이 여러 곳이다.

천리미향으로 알려진 축산항은 크고 넓지는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고즈넉함이 담겨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런 고즈넉함이 어울리지 않던 곳이 바로 축산항이기도 했다. 전국 최고의 어항으로 이름을 날렸던 곳이 축산항 아니던가? 어족 자원이 계속 줄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생각나 소설가는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쉬다.

축산항은 항구의 볼거리만 있지 않다. 바다 반대편 골목을 이리저리 건다 보면 나타나는 모래사장이 있는데, 이곳이 죽도산 뒤편이다. 축산천과 바다가 이어진 이곳은 흔들다리 축산교가 위용을 자랑한다. 낚시꾼들이 여기를 주로 찾는데, 강과 바다와 모래사장이 이어져 바로 앞의 축산항과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소설가는 또다시 발걸음을 옮겨 죽도산 전망대로 향한다. 축산 3리 부근 항구의 끝머리로 오면, 오른쪽으로 죽도산 전망대로 가는 길이 한적하게 펼쳐진다. 길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바다와 만나며 끝나는데,



이곳에는 휴게용 정자와 공용화장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바다를 면하는 방파제와 함께 꽤 넓은 공간이 있으며,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도 곧잘 눈에 띄는 곳이다.

이렇게 축산항을 거닐다 보니 벌써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다. 어선 한 척이 조업을 마쳤는지 물양장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축산항은 예전의 모습을 감추고 있지만, 아직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을 것이다. 저녁 햇빛에 또 다른 색채를 띠는 축산항의 바다. 눈부신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려 하다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나 보다. 길가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나직한 목소리로 위험을 알려 주신다. 감사의 인사를 보내자 마음씨 편안한 미소를 지으신다.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사람들을 품고 있는 항구 축산항이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이다. 소설가 길남 씨, 여기에 왔던 많은 이들이 또다시 축산을 찾는 이유이다.

# Chuksan Harbor

Chapter\_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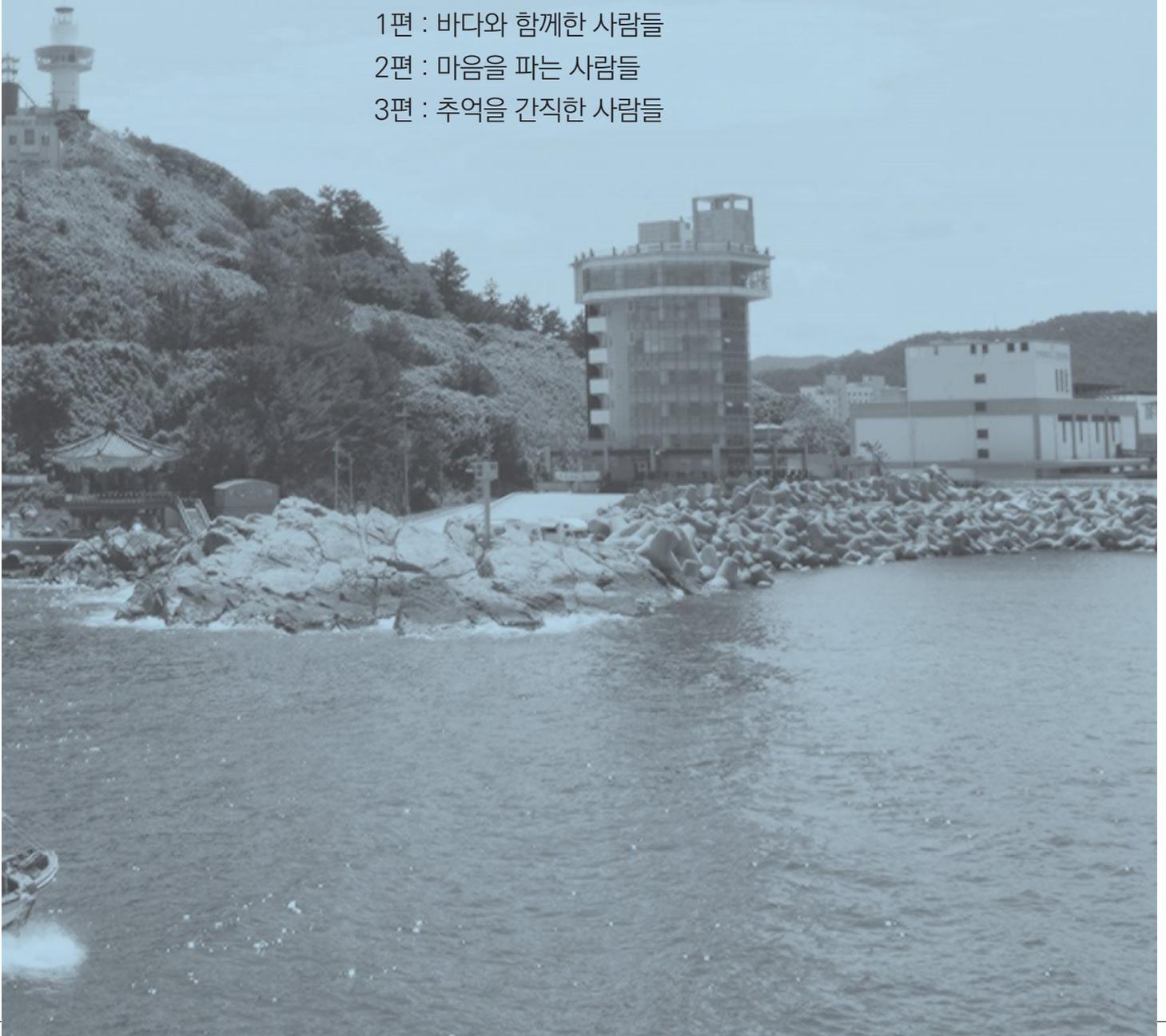
Chapter\_3

# 축산항 인터뷰

1편 : 바다와 함께한 사람들

2편 : 마음을 파는 사람들

3편 :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





# 01 바다와 함께한 사람들



박경호

박경호



김선기

김성기



김세현





# 박 천 봉

축산 1리 주민

솔직히 말해서 축산향은 예전 시절이 훨씬 좋았죠. 공기도 좋고, 또 고기가 많이 잡힐 무렵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기 작업하는 선단 선박들이 기계화 되기 전에는 풍선(風扇), 그러니까 돛단배를 가지고 전부 수동식으로 어부들이 작업을 했어요. 여기는 생계를 이으려면 농사는 그리 많지 않고, 바다를 위주로 해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Q**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1940년 2월 21일생 축산항에서 태어난 박천봉입니다.

**Q** 축산항에서 출생했다 하셨는데, 그러면 부모님 고향도 여기십니까?

**A** 5대조, 그러니까 고조부부터 축산으로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Q** 어린 시절의 축산항 모습은 어땠습니까?

**A** 솔직히 말해서 축산항은 예전 시절이 훨씬 좋았죠. 공기도 좋고, 또 고기가 많이 잡힐 무렵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기 작업하는 선단 선박들이 기계화 되기 전에는 풍선(風扇), 그러니까 돛단배를 가지고 전부 수동식으로 어부들이 작업을 했어요. 여기는 생계를 이으려면 농사는 그리 많지 않고, 바다를 위주로 해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Q** 어르신 부친께서도 어업을 하셨습니까?

**A** 아버지도 어업을 하셨지요. 저는 어업에 많이 종사하지는 않았고, 어업에 관련된 장사를 주로 했었지요.

**Q** 예전 어르신이 어릴 때 주로 잡힌 어종은 어떤 것이었나요?

**A** 축산은 지금도 그렇지만 물가자미가 많이 잡히고 유명합니다. 돛단배들이 잡는 것도 주로 물가자미 종류였지요. 또 뒤에는 쥐치도 많이 잡혔고, 이제 그 후에 발전이 좀 돼서 동력선이 움직일 때는 바다 멀리도 나갈 수 있으니까, 꿈치, 고등어, 오징어도 많이 잡았었죠. 또 명태, 노가리도 많이 낚여요. 한때는 집산지였지. 동해안에서도 명태, 노가리를 최고로 많이 잡는 항구로 이름이 났었죠.

46

**Q** 그때 시기가 언제였었죠?

**A** 한 70년 이후로 80년대 중반까지는 노가리가 많이 낚여요.

**Q** 바람을 이용하던 풍선에서 동력선으로 주로 바뀐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A** 아주 어릴 때요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력선이 아주 소소하게 몇 척은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한국 사람이 조금씩 어업에 종사하다가 돈도 좀 모으고 하면서, 그렇게 차츰 늘어나기 시작했죠. 점점 발달이 되니까, 이제 돛단배는 없어지고, 동력선 하나에만 종사하는 어른이

7-8명은 되거든. 그런데 축산항이 잘 나갈 때는 그런 동력선이 100척 정도 있었지. 그리고 외지 선박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바다에 고기 어종이 다양하게 좋고 많으니까, 외지 선박들이 엄청나게 왔지. 수산물이라는 건 시기에 따라 나기 때문에, 오징어 같으면 강원도에서 시작해서 짝 내려갔어요. 구룡포까지 연안 오징어 잡힐 때는 강원도에서 시작해서 물때 따라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명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강원도 쪽에서 나오다가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축산항이 그 중심에서 상당히 번창했었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도 어족 자원이 풍부했죠. 오징어도 많이 나고, 그때 여기는 부촌 소리를 들었죠. 활기가 있었어.

**Q** 아이들도 많았겠습니까.

**A** 그때는 축산에 애들도 많았죠. 축산항 초등학교 학생이 한 18학급 정도는 됐어요. 900명은 됐거든. 제가 그때는 육성회장을 3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축산이 참 부촌이었어요. 산책을 해야 하는 선박들이 울릉도에서도 많이 왔어요. 그때는 울릉도 배들이 축산에 정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족들도 이쪽으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학생이 일년에 불었다 줄었다 할 정도였어요. 참 사람이 많았죠.

제가 축산항 초등학교 4회 출신인데요. 저 축산항 초등학교 터가 좀 유명한 터입니다. 지리학자들이 보고 이 축산 지역이 깨가 천 석이 날 자리다 그랬거든요. 학생들을 깨에 비유해가지고, 그 자리에 학생들이 많이 모일 거라는 얘기였죠.



축산 서부국민학교 기념사진

**Q** 지금은 학생들이 몇 명이죠?

**A** 18명이라 들었습니다. 참 많이 줄었죠.

**Q** 축산항에서의 어린 시절이나 하셨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A** 저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어요. 따지자면 그렇게 추억거리가 없어요. (웃음) 요즘처럼 공장도 없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죠. 선박 관리하는데로 먼저 갔어요. 그 선박을 위주로 해서 장사하는 업체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래서 조금 나아지니까 중개인 허가를 내서 중개인 생활도 오래 했어요. 자영업도 꽤 오래 했구요.

**Q** 중매업이 어떤 일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A** 말 그대로 중개인데, 선박이 이제 어류를 취득해 오면은 수협에다가 위판을 시킵니다. 수협이 그걸 위판을 받아가지고 경쟁 입찰을 시키죠. 중매인은 여기에 경쟁 입찰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얼마만큼 한도에 얼마만큼 고기를 살 수 있는지 재산을 담보로 해놓고 고기를 사는 거죠. 내가 사고 싶은 만큼 사는 게 아니고, 가격을 부를 때 최고 고객자를 입찰을 시키는



축산 수협 어판장

거죠. 우리는 또 산 걸 가지고 노가리나 명태 같은 어종은 이걸 또 제 2차 가공하는 데로 보내지요. 공장으로. 주로 부산, 경남, 삼천포 쪽으로 보내요. 쥐포 가공 공장은 여수, 삼천포 이쪽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공장으로 보내고 우리 중개인은 그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일반 물건, 그러니까 잡어 같은 것은 입찰해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이런 데 보내는 거죠. 옛날 노량진 수산시장이 생기기 전에는, 서소문 육교 옆에 판매하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로 물건을 떼서 보냈지요. 거기에서 팔면 우리한테 돈을 보내주고. 장사가 잘 될 때는 수입이 좀 더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중개업은 그런 일입니다.

**Q** 중매업을 몇 년 정도 하셨어요?

**A** 16년 정도 했지요. 75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거의 90년도 초반까지 했어요. 어찌 보면 그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였지요. 그때 다른 것보다는 쥐치가 아주 대단했죠. 축산 주민들도 그때 제일 많이 한 게 쥐고기였어요. 그때 보면 남해 쪽으로 삼천포, 여수 이런 지역에서 쥐포 가공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업자들이 상당히 영세했습니다. 공장이라 할 것도 없이 일반집에서 하는데도 많았고. 우리가 그때 신용 거래를 하는데, 공장이 사라져서 돈 받지 못한 곳도 허다했어요. 물건 좀 사달라고 연락이 오면은 재무구조도 잘 안 알아보고 무슨 공장이다 이러면 일단 한 차 정도 내려가지고 보내는 거죠. 이렇게 계속 거래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결제를 못 한다 말이야. 그래서 중매인들이 고생을 좀 했어요. 축산 말고도 각 항구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돈을 못 번 건 아닌데, 또 이런 구멍이 난 경우에는 메꾸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지. 어쨌든 쥐치가 많이 나올 때가 참 전성기였죠.

**Q** 이후에 어촌계장으로 지내셨다 들었습니다.

**A** 예, 중매업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정치망을 했어요. 허가를 내서 10년 계약을 하고는, 바다에 터를 얻고 그물을 쳐서 고기떼가 걸리면, 거기에서 고기를 잡는 거지. 마음 맞는 사람끼리 힘을 합해서 투자를 했어요. 고기떼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물을 펴고 그물 안으로 고기떼가 들어오면 그물을 끌어 올려서 잡는 걸 정치망이라 해요. 그때는 또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어요. 이 일도 한



1976년 3월 5일 새마을 사업 작업 광경

16년에서 17년 정도 했어요. 70대에 접었으니까. 어촌계장은 한 4년 정도 했어요. 그때 어촌계원이 350명 정도는 됐어요. 축산 수협에서는 제일 컸죠. 어촌계장이라 해서 뭐 별다른 건 없고, 그냥 대표로 봉사를 하는 거죠. 이득이란 것도 없고 계원들 위해 봉사하고 대표로 활동하고 했어요. 당시에 저기 끝쪽에 대게 타운이 건설됐고, 정류장도 생기고 그랬었어요. 그런 것보다 어민 복지 문제로 군청에 왔다갔다 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Q** 축산이 대게의 원조, 대게의 고향이라고 불리는데 대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A** 풍선 시절이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대게를 여기서 잡았대요. 그때는 전부 노 젓고 다니면서 잡았다고 했어요. 고기가 흔할 때니까 그물로 잡아가지고, 그걸 삶아서 영해장에다 갖다 팔고, 며칠 걸러가지고 안동까지도 가서 팔고 그랬다는데..., 대게는 오래전부터 낫어요. 그래서 대게 통조림 하는 공장도 있었어. 일본으로 전량 보낸다고 했지. 그 당시 제일교포 한 분이 있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터에다가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때가 60년대였지? 그때도 대게 통조림을 만들 정도로 부근에서 대게가 많이 낫았던 거죠. 내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 또래 처녀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안 갔어요. 그 사람이 사업을 거두었어요. 사업실패는 아니라는데, 어쨌든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Q** 젊은 시절 다른 일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A** 군대 갔다 오고 여기 선박에 주유하는 주유소에 채용되어 6년간 근무했었어요. 그러다 서른 살에 결혼하고는 내 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었죠. 그래서 중매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 전에 또 여러 장사를 하면서 중매업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었죠. 해산물 장사도 종류별로 꽤 많이 했었어요. 운단(雲丹), 그러니까 성게알 수출 일도 했었고요, 이걸 전량 수출했었어요. 또 한천, 다른 말로 천초도 장사를 했고, 마른 오징어도 수출을 했었고요. 당시에 중매인을 한다는 자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중매인은 생물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재정 문제도 있고, 경험도 있어야 하고. 그걸 수출할 때는 공장을 끼고 루트를 찾았어요. 수출할 수 있도록 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의 메이커를 붙여서 거래를 했어요. 대표 공장으로는 당시 건오징어 수출로 최고였던 원풍산업, 또 부산의 삼화고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수산팀이 따로 파견 나와 있었어요.

**Q** 삼화고무가 수산팀이 있어서 축산까지 파견 나왔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상당히 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A** 아예 수산물 창고를 이쪽에 두고 거래를 할 정도였으니까.



**Q** 현재의 축산은 예전보다 많은 부분에서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여족 자원이 고갈된 지금, 솔직히 축산은 많은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한때 동해 어업의 중심이었던 곳이 여기인데, 어부들의 살길이 막연합니다. 여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건 그래도 대계 정도인데...; 그래도 원체 고가가 되니까 조금씩 잡아도 명맥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선원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요. 현재 외국 노동자들 아니면 작업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계도 작업할 수 있는 기한이 12월에서 익년 5월까지란 말이죠. 그런데 3월 정도되면 여족이 없거든요. 불과 3개월 정도 밖에 작업 시기가 없는데 수산물도 없고, 선원들 월급도 모자라단 말이지요. 거기애다 인력마저도 없으니...; 솔직히 폐항 위기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족 자원이 없어진 정도는 정말 심각합니다. 올해는 콩치가 한 마리도 안 날 정도예요.

**Q** 축산이 다른 방향으로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A** 천리미항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치 축산은 항구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관광 자원은 좀 부족해요. 사람이 여기서 머물다 가는 곳이 돼야 하는데, 그럴만한 자원이나 상품이 없거든. 버스가 그냥 먼지만 날리고 가는 곳 같다는 말이에요. 여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죽도산, 와우산, 마미산, 봉화산까지 산들이 해변을 끼고 기가 막힌 절경을 이루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절경 속에 위치한 항구가 있을까 싶어요. 케이블카나 주차장, 부근에 신항 건설 등등 많은 얘기가 오가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머물다 가는 곳이 되려면 여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박 금 한

축산 1리 주민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저도 초등학교를 나와  
가지고 바로 배를 탔었어요. 어른들이 돈을 못 버니까 배를 타가지고 같이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벌었던 거지요. 그렇게 바삭하게 살았어. 그런데 판잣집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좀 더 큰 곳에 가서 놀아야겠다는 포부가 있었지요.

**Q**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47년 음력 2월 6일생으로 영덕군 축산항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 박금한입니다.

**Q** 아버지 대부터 축산 출신인가요?

**A** 할아버지 대에는 축산 바로 옆에 사진리 부근에 계셨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축산 태생이라고 봐야겠지요.

**Q** 어린 시절부터 배를 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A**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저도 초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바로 배를 탔었어요. 어른들이 돈을 못 버니까 배를 타가지고 같이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벌었던 거지요. 그렇게 바삭하게 살았어. 그런데 판잣집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좀 더 큰 곳에 가서 놀아야겠다는 포부가 있었지요.

**Q** 청년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A** 제가 원래는 축산 수협에서 대의원을 했어요. 옛날에는 총대라 했는데, 당시 스물셋이니까 최연소였지. 축산에서 어선도 탔었고요. 그러다가 군대 갈 무렵 되니까, 당시엔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군대를 보충역으로 갔어요. 저도 그래서 보충역 과정을 제대하고 바로 외항선을 탔어요. 원양어선이지. 3년은 참치 잡는 마구로선을 탔어요. 나머지 7년은 냉동 운반선 이등항 해사까지 하고 스페인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외국으로 갔냐면 우리 지역이



1957년 축산항 경정리 (바다낚시)

엄청나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 굶주림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배경이 있어야 했지요. 그래서 부산으로 가서 고생을 하면서 선원 학원에 다니면서 선원수첩을 받았지. 그래서 마구로 선을 3년 타고 왔는데도 축산은 아직 가난을 못 벗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해외로 나섰던 거지.

**Q 축산에는 언제 돌아오신 건가요?**

**A** 아까 말했듯이 냉동운반선으로 7년 배를 타고 돌아오니, 81년도였어. 그때 축산에는 생선으로 쥐치가 엄청나게 낫어요. 그걸 여기 축산 사람들이 밤낮이고 그걸 잘라서 조미 공장에 보내는 거지. 삼천포, 여수 이런 곳에 공장이 있었어요. 당시 배만 나가면 만선이야. 그런데 그건 선박 하는 사람들이 이득이 있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발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또 기회를 보던 차에 부산의 청양수산이라는 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같이 있던 동기들과 알래스카에 무라사키 오징어를 잡으러 가는 임무였지. 83년도인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최초 선발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갔을 때 성과가 대단했지. 두 달 23일만에 풀만선을 해서 구룡포항으로 와서 하역했지요. 그때 제가 어로장으로 55명을 데리고 그런 성과를 내기도 했어요. 그때 돈을 많이 벌었지.

**Q 돌아오셔서 축산에서 어선을 운용하신 건가요?**

**A** 그 이후에 저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대형 FRP선박을 43톤짜리를 건조해서 운용했어요. 이후 자부담으로 46톤짜리도 같이 했고요. 그렇게 10년간 사업을 하다가, 한일어업협정하고 IMF를 겪으면서 부도를 맞았어요. 그때 정부 구조조정을 수협하고 같이 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Q 이후에도 어업과 사업을 계속 하신 건가요?**

**A** 그래도 또 이를 악물고 형제간에 힘을 합쳐서, 저기 있는 삼광호를 가지고 어업도 이어가면서 잘 살아왔지요. 제가 형제가 3남 2녀인데 맏형입니다. 그때 힘들 당시 제가 남동생들을 데리고 여수로 갔어요. 그리고 조선소의 사장을 만났지요. “사장님, 저 이런 사람인데 배를 외상으로 만들어 주시오.” 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놀라면서 돈은 당신이 선금을 걸어야 물자를 모아서 만들던지 할 거 아니냐고 되물어요. 그래서 그걸 당신이 책임지고 좀 해달라고 당차게 말했어요. 배가 먼저 생기면 이걸 담보로 돈을 만들테니까 그걸 당신한테 주고, 남은 걸로 사업을 하겠다 했지요. 그래서 배를 가지고 담보를 놓고는 밀천을 마련했지요. 삼형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 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점점 갚고 차츰 삶이 나아지면서 자리를 다시 잡게 됐지요. 그 과정이 또 10년이 걸렸어요.



1990년대 축산리 (박금한 선생님 제공 사진)

**Q** 그때 하셨던 업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그때는 자망도 했고, 고동 통발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대게 어망도 하고... 뜯 그물로는 공치도 잡고 그랬지요. 전에는 저도 배를 탔었는데, 이후에는 형제들이 고기를 잡아 오고, 저는 장사를 하고 그렇게 가게를 운영했었어요.

**Q** 요즘 어획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대게 어획과 가게를 운영하면서 현재의 축산에 대해 느끼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이 일을 하며 대게 어업도 하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지금은 대게 어획량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음식을 드시고 구경도 하고 해야 하는데, 볼거리가 없단 말이죠. 너무 단조로운 거야. 강구나 후포같은 지역에 가면 대게 먹고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볼거리가 많은데, 여기는 볼거리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꾸 줄어드는 거죠. 제가 번영 회장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관심이 있는 학자나, 해수부 쪽 관료들도

여럿 만나 봤어요. 예를 들면 신항만을 주변에 건설하자는 이야기도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군에서 큰돈을 들여 연구 용역을 주고, 그 결과로 해수부에 신항만 건의도 하고 말이지요.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들도 많지요. 하지만 현재는 별다른 얘기도 없고, 큰 진척도 없어요. 또 예전에 잘못됐던 부분들도 많아요. 저기 보이는 방파제를 처음 만들 때에 멀리 좀 내가지고 했어야 하는 건데, 그때는 축산항이 다른 항보다 컸으니까 규모를 크게 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리 지역에는 큰 약재인 거예요.

**Q** 방파제가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습니까?

**A** 제일 처음 했던 것은 20년쯤 됐지요. 그때 형태는 갖춰놨지만 그 이후로는 필요에 따라 조금씩 늘려 갔지요. 처음부터 미래를 바라보고 건설했다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면서 실용성은 자꾸 떨어져가는 지금의 모양은 아니었겠지요. 그 당시 시야가 너무 좁았던 거지요.

**Q** 축산항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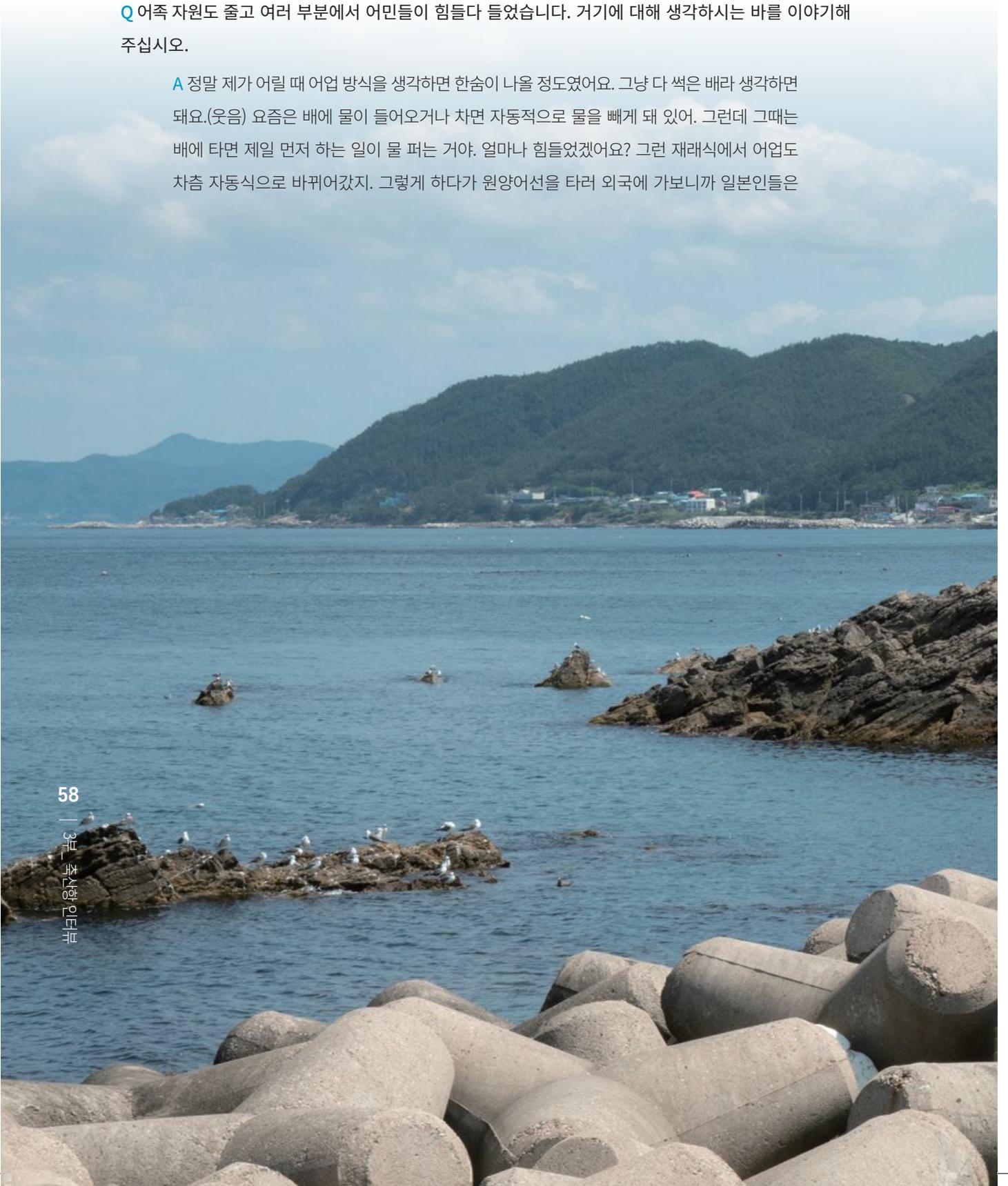
**A** 저도 나이가 이제 77살입니다. 후손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생 축산 사람으로, 이곳 사람들에게 뭔가 남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닷가는 첫째 방파제하고 항구가 좋아야 해요. 항구가 적으면 자연적으로 적은 규모의 지역이 되는 거예요. 저기 방파제 보세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조금 늘렸다가, 또 한계가 있으니까 또 저렇게 늘리고...

**Q** 발전의 모습으로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축산항을 천리미항이라고 부릅니다. 저기 봉화산하고 와우산, 죽도산, 말미산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세종시에서 바라보면 동쪽 가장 극단이 바로 여기 축산항의 와우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정동진이라고 부르던 말이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볼거리와 스토리텔링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 도로와 주차시설을 잘 만들어 수용성도 높여야겠지요.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바닷가는 항구가 우선이에요. 순서가 있는 거지요. 신항만으로 항구의 역할부터 크게 만들어 놓고, 관광산업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눈앞의 이익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개발이 필요합니다.

**Q** 어족 자원도 줄고 여러 부분에서 어민들이 힘들다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A** 정말 제가 어릴 때 어업 방식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냥 다 썩은 배라 생각하면 돼요.(웃음) 요즘은 배에 물이 들어오거나 차면 자동적으로 물을 빼게 돼 있어. 그런데 그때는 배에 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물 퍼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재래식에서 어업도 차츰 자동식으로 바뀌어갔지. 그렇게 하다가 원양어선을 타러 외국에 가보니까 일본인들은



실제 모두 기계식이었어. 당시 선진 기술이었던 거지요. 이렇게 발전하는 어업 기술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보급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뒤떨어지는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양수산부나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지원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기술 발달이 뒤처지니까 어업도 자꾸 뒤떨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 김 세 현

축산 1리 주민

축산향이 참 인심도 좋고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느끼기에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사업 자체가 잘 안되고 하다 보니까 좀 각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옛날에는 정말 인심 좋은 곳이었던데요. 이제 또 고기잡이도 좀 늘고 사정이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워낙에 좋은 곳이라 인심도 금방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Q**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제 이름은 김세현이고, 나이는 일흔다섯 소띠입니다. 축산에 산 지는 한 70년 되지요. 본 고향은 아버지 따라 왔는데 강구 쪽입니다. 아버지께서 강구 쪽에서 터를 잡고 계시다가 축산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다섯 살 때 거의 1950년 전후해서 왔던 거 같아요.

**Q** 초등학교는 축산항 초등학교를 다니셨나요?

**A** 그렇지요. 당시엔 축산항 국민학교지요. 중학교에는 못 갔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식구가 대식구였어요. 우리 형제가 육 형제에 칠 남매였는데 위로 누님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형제야. 위로 형님 한 분하고 밑으로는 남동생들하고 그랬었죠. 누나까지 7남매에 아버지, 어머니까지 모두 9명이 한 집에서 살았으니까 어려웠어요. 그때만 어려운 시절이지. 학생도 엄청 많았어요. 시설은 많이 안 좋았죠. 4학년까지는 마루 바닥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기수가 축산 국민학교 13회. 졸업생이 83명이었어요. 이 인원이 한 교실에서 다 공부를 했으니까 그만큼 열악했죠.



축산항 이대현씨 집앞 하수도 공사

**Q**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어업에 종사하셨습니까?

**A** 초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식구들도 많고 이러니까 중학교는 못 갔어요. 그런데 여기 바로 뒤쪽으로 그때 서당이 있었어요. 서당에도 겸수 선생님이라고 참 대단한 분이 계셨지. 그분이 일본에서 오셔가지고 참 똑똑한 분이셨어요. 이제 새벽에 나가서 서당에 가면



축산항 그물작업

하늘천따지 천자문도 외우고, 거기서 주산도 배웠고, 또 붓글씨도 배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좀 지나면 이력서 쓰는 법도 배우고. 거기서 아침에 공부를 하고 집에 오면 밥 한 술 뜨고는 나무를 하러가고 그랬지. 그리고 좀 있다가 열네 살인가 열다섯 살부터 배를 탔어요. 배도 타고 산에 나무도 하고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지냈었지.

**Q** 어릴 때부터 배를 타신 건데 소년 시절 뱃일을 배우고 하면서 힘드신 것도 많았겠습니까.

**A** 힘이야 많이 들었죠. 나이 열다섯 살 돼가지고 배를 탔으니 당연한 거지. 그래도 그게 주어진 삶이니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됐었어. 그렇게 아버지 옆에 타고 그때만 해도 그런 경우가 많았지.

**Q** 그때 어린 시절에 여기 축산향의 모습은 좀 어땠습니까?

**A** 축산향 모습은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집(축산향5길 우성호수산) 앞이 백사장이었어요. 축산면 발전위원회 사무실 거기도 백사장이었고, 백사장 뒤로는 집도 많이 없고 그랬어요. 옛날 얘기지요.

**Q** 그때 초등학교 다니시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든지, 축산향 부근 예전 모습의 특이한 다른 부분도 말씀해 주시지요.

**A** 뭐 특이한 건 없고 그때는 초등학교라도 도시락 안 싸고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먹고 그랬거든요. 점심시간 되면 집에 밥 먹으러 오니까 더울 때는 전부 바닷가로 나가서 해수욕하고 놀고 그랬었지. 그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바닷가에서 헤엄치고 놀고 하면 금방 배가 고파져요. 그것 말고도 축산천이나 냇가에도 가고 그랬지. 옛날 생활이 다 단조롭지.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어요.

**Q**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다음부터 바로 생활 전선으로 나가셨다고 했는데, 당시에 주로 잡히던 어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그때는 이제 주로 잡는 어종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내가 배를 탈 때는 그때 머구리(다이버나 잠수부를 일컫는 옛말)배를 탔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잠수부인데, 요즘 텔레비전에 한 번씩 나오곤 하더라고요. 옛날 재래식 잠수복을 뒤집어 쓰면 그게 마치 우주인처럼 그랬어요. 제가 그 머구리배를 탔는데, 잡는 건 다양해요. 해삼, 멍게, 전복 등등 뭐 해산물을 많이 잡았지요. 그 배 모는 다섯 사람 외에 네 사람씩 내려가는 머구리가 그때 따로 있었거든.

**Q** 그때 머구리배 탔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묘사해 주시겠습니까? 작업 방식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A** 그때는 재래식이니까 직접 펌프질을 했지요. 지금은 에어펌프를 가지고 공기를 주입하고 이러겠지만 옛날에는 펌프기가 작은 게 있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건데, 그게 저 위에는 사람이 네 사람이 펌프질을 하고, 한 사람이 호수줄을 해서 그렇게 물밀으로 내려갔어요. 수압이 힘드니까 다섯 사람이 펌프질 하기도 하고.

**Q** 머구리배의 작업을 배우시고 종사하시다가 다른 일을 하시게 됐다구요.

**A** 이제 군대를 시골이다 보니 보충역으로 갔어요. 군대를 제대하고도 머구리배를 조금 더 타다가 좀 더 큰 배를 탔지요. 근해로 나가는 거. 물론 그런 배도 6~7톤 정도 하는 목선이었어요. 디젤 기관도 아닌 그냥 야키다마라고 하는 목선.

그때 잡던 어종이 한참 잡혔다던 쥐치나 오징어 등등의 어종이었습니다.

그렇게 75년에서 80년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지. 쥐치는 그때 정치망 어장에서 많이 잡았고, 노가리는 고대구리라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많이 나갔지. 그때만 해도 이 고대구리(소형 기선저인망, 현재는 불법 조업 방식으로 사라졌음) 어선이 많이 있었어요. 나도 노가리를 잡으러 일반 선원으로 타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그 고대구리 조업 자체가 금지 됐지요.



**Q** 고대구리 어선을 할 때부터 대게가 많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A** 대게는 제가 어릴 때 보면 삼촌하고 아버님하고 그물을 가지고 대게 잡는 걸 봤었어요. 그때는 그런 거고 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으니 더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대신 고대구리 어선 할 때는 많이 봤지요. 저인망 그물을 끌어올리면 대게가 엄청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대게하고 지금 못 잡게 돼있는 방게하고 엄청 많이 올라왔지. 꼭 그걸 잡으려고 한 건 아닌데 많이 잡혔었죠. 지금은 그런 조업 자체가 금지니까. 그때는 그랬었죠. 그러다가 대게 자체가 활성화된 건 90년대 말 아니면 2000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전문 어선도 생기고 그랬었지.

**Q** 한창 고기가 잡히던 시절의 축산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A** 살기 좋았죠. 노가리 많이 나고, 쥐치 많이 나고. 쥐치 많이 날 때는 쥐치 상차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치망에서 잡아오면 중매인들이 전부 사서는 상차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잡은 쥐치는 전부 여수, 삼천포 이쪽 가공 공장으로 보냈거든. 그때 차로 싣는 일을 많이 했었지요.

**Q** 뱃일 말고도 다른 일을 많이 하셨다구요.

**A** 나는 그때 뱃일을 하긴 하는데 자꾸 멀미가 나고 적성에 안 맞더라구요. 배가 타기 싫어. 그래서 배를 안 타려고 애도 많이 썼어요. 나고 자란 게 축산항이니까 뱃일이 절로 달라붙은 셈이지만 어쨌든 참 그렇더라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다른 일을 많이 찾았었지요. 심지어 양조장 막걸리 배달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노가리가 많이 날 때니까, 그 노가리를 어느 양으로 끊어가지고 사료로도 쓰고 그랬어요. 그때 경운기를 하나 사서 사료 만드는데 실어나르는 일도 하고 다양하게 일을 했어요. 배를 운영하는 선주도 했지요. 제가 타지는 않고 선장을 따로 두고, 20톤 클래스로 금포호라고 배를 운영하기도 했지요.

**Q** 선주로 배를 운영하시게 됐군요.

**A**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됐냐면 어선에 쓰는 통발 장사를 제가 했거든요. 그러다가 선구점을 차리게 돼. 선구점 자체가 선박 상대로 장사하는 건데, 배에 대는 물품을 자꾸 다루다 보니 자연스레 배와 가까워질 수 밖에 없잖아요. 어찌다가 그래서 20톤급 배를 장만해서 운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선장을 잘못 들이는 바람에 피해를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그물을 충분하게 내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 돈을 다른 데 돌렸던 거죠. 그때 마음으로도 물질로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 바람에 죄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봤었어요. 그건 또 지난 일이구요. 선구점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 2018년부터 식당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축산항이 좀 정체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는 어떤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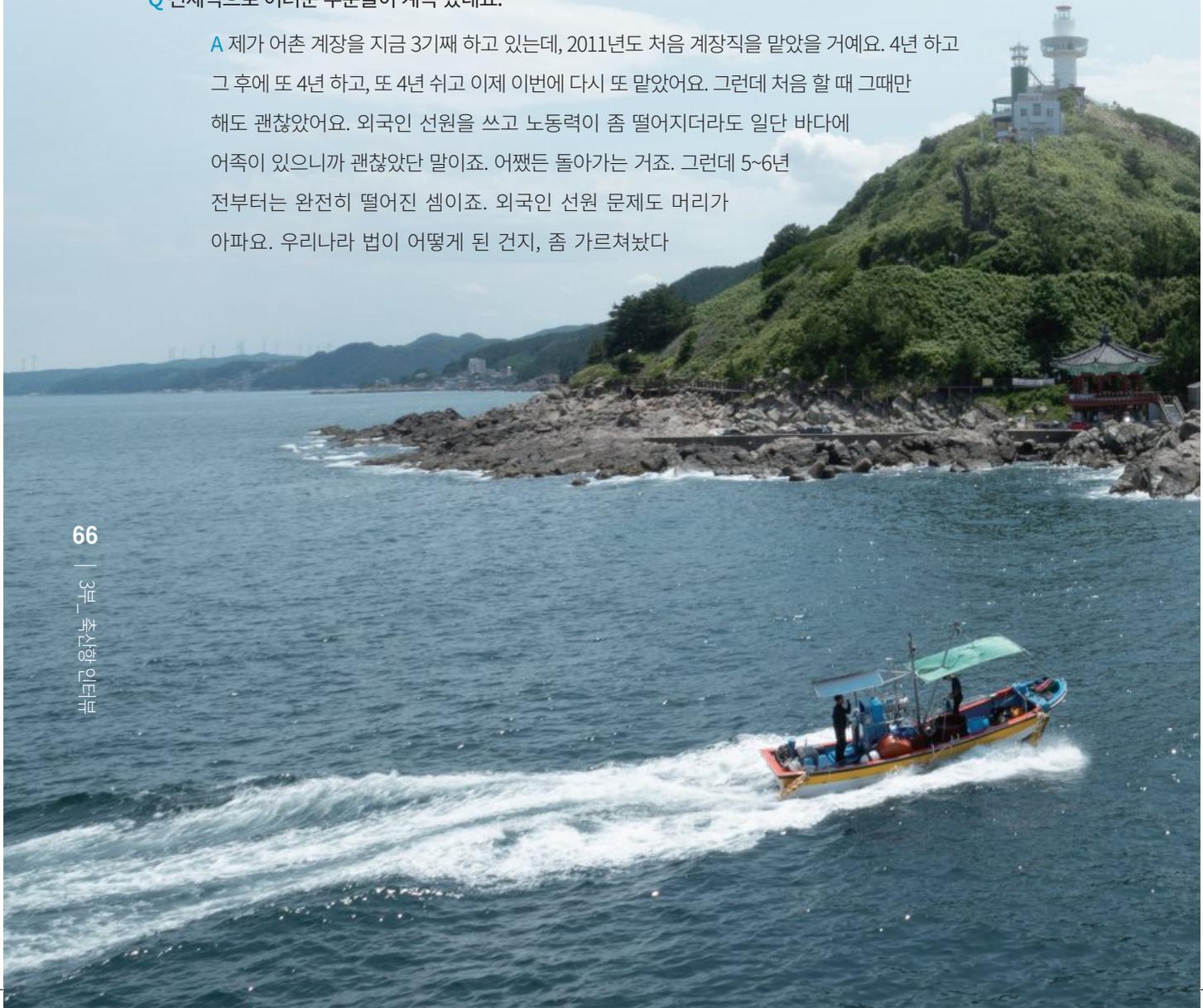
**A**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몇 년 되는 것 같아요. 한 6~7년 안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주종인 오징어도 많이 안 나고, 옛날에 나던 쥐치는 떨어진 지 오래됐고, 이제 공치도 22년도보다 100분의 1도 안 낚거든요. 올해 공치는 아예 씨가 마를 정도니까. 정치망도 지금 어렵다고 할 정도니까.

**Q** 외국 선원들 고용도 힘든 수준이라는 말도 들립니다.

**A** 외국 선원들 6명, 7명 고용하면 월급이 한 달에 거의 한 2천만 원 이상은 되고 그 외에 들 비용을 생각하면..., 한 3천만 원 이상 있어야만 현상 유지가 될 겁니다. 감가상각은 내놓고도 한 3천만 원 정도는 돼야만 운영이 될 텐데, 지금은 운영하는 비용이 선주분들의 주머니에서 그냥 빼고 있는 셈이죠. 고기를 잡고 돈을 벌어야 충당이 될 텐데 그게 안될 정도니까.

**Q**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있네요.

**A** 제가 어촌 계장을 지금 3기째 하고 있는데, 2011년도 처음 계장직을 맡았을 거예요. 4년 하고 그 후에 또 4년 하고, 또 4년 쉬고 이제 이번에 다시 또 맡았어요. 그런데 처음 할 때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외국인 선원을 쓰고 노동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일단 바다에 어족이 있으니깐 괜찮았던 말이죠. 어쨌든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5~6년 전부터는 완전히 떨어진 셈이죠. 외국인 선원 문제도 머리가 아파요.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된 건지, 좀 가르쳐놔다



싶으면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면 이 선원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돈을 버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실 소형 선박들의 선주나 선장들이 보통 개인으로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외국 선원들을 잘 보듬는다는 말이죠. 참 잘해주는데도 연령이 어린 축이 많으니까 뱃일을 힘들어하며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말도 배우고 일도 배우고 쓸만하면 꼭 그런 일이 생기니까 더 애로사항이 많아요. 또 유가가 워낙 올랐는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면세유 자체도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 비싸니까요.

**Q** 어린 시절부터 쪽 살아온 축산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축산항이 참 인심도 좋고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느끼기에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사업 자체가 잘 안되고 하다 보니까 좀 각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옛날에는 정말 인심 좋은 곳이었거든요. 이제 또 고기잡이도 좀 늘고 사정이 좋아지리라 생각하구요. 워낙에 좋은 곳이라 인심도 금방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 김 순 남

축산 1리 주민

지금 축산향에는 방파제가 있지만, 이게 별로 많이 안 나갔거든요. 방파제가 이렇게 안 나가고 할 때는, 바위도 얇고 물도 얇고 그러니까 해삼도 나고 해산물도 많았어요. 그렇게 작업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방파제를 늘리니까 작업 공간이 사라져 버렸지요. 그래서 해녀업의 삶의 공간을 없앤 부분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촌계에 일당을 받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보니까 소송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증인도 확보하기 힘들었구요.

**Q**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죽산 1리에 사는 김순남 할머니입니다.

**Q** 죽산에서 태어나시고 쪽 사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고장에서 오셨습니까?

**A** 강원도 명주군 묵호에서 국민학교(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할 무렵에 중학교를 가야 하는데 아버지 사업도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중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일 때문에 죽산에 계셨거든요. 아버지가 배 타는 일에 종사하니까 그래서 따라 내려왔지요. 14살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15살 때 죽산에 온 셈이네요.

**Q** 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 이사를 오신 거네요.

**A** 그렇죠. 강원도에서 따로 생활이 안 되니까 하나로 합치자 해서, 죽산으로 오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12월에 먼저 가시고, 가족이 다음해 3월쯤 내려온 거 같아요. 어머니하고 동생 둘하고 저하고. 나중에 셋을 더 낳았어요. 우리 형제가 6남매입니다. 처음에는 죽산에 와서 남의 집에 셋방을 살았어요. 그렇게 전전하다가 아버지도 자리를 조금 잡으시고 우리 형제들도 좀 크니까, 오두막집이라도 한 칸 지어 살자고 해서 우리집을 하나 지어 나왔지요.

**Q** 처음에 묵호에서 죽산으로 오실 때 첫인상이나 느낌이 어땠습니까?

**A** 묵호에 있을 동안에는 아버지 사업도 잘 됐었고, 먹는 것도 별로 고통 받지도 않았었죠. 또 이모부님네가 잘 사니까 그 덕으로 또 같이 이제 살았었는데..., 여기 오면서도 그렇게 불행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셋방살이에 아버지 벌이가 별로 없어요. 당장 나부터 벌이를 해야 했으니까... 많이 힘들었었죠.



해녀작업, 죽도산 (김순남 선생님 제공 사진)



물질 하시는 모습

**Q** 그때부터 생업으로 해녀 일을 하신 건가요?

**A**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그런데 여기에 제주도에서 해녀들이 한 30명씩 와가지고 작업을 하고 벌이를 했어요. 바다에 해초, 그러니까 우뚝가사리 이런 게 많이 났거든. 그래서 그때 그쪽으로 가서 일을 조금씩 배우고, 나도 뜯어 나오고 그랬지.

**Q** 해산물을 잡는게 아니라 해초를 뜯는 일이었군요.

**A** 이제 바위틈에 있잖아요, 옛날에는 방파제가 넘어져가지고 돌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거기에 해초가 돋았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사투리로 왕구사바리, 그러니까 도박이라고도 하고. 이게 돌가에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 해초가 나오면 그걸 뜯어요. 그걸 가지고 한 근에 얼마, 이렇게 돈을 매겨서 줬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식량도 사고 그랬지요.

**Q** 사투리로 왕구사바리, 그러니까 개도박을 말씀하시는 거죠?

**A** 지금도 그렇게 부르긴 부르는데, 개도박 그거예요. 요즘은 해초가 많이 없어졌어요. 잘 나지를 않아. 조금씩 나기는 하는데 이게 또 쓸모가 별로 없어졌지. 옛날에는 개도박 이게 어떻게 쓸모가



있냐 하면, 집이나 건물 지을 때 있잖아요? 집 지을 때 풀처럼 쭈어가지고 횃가루 같은 거 바를 때 거기에 섞어 가지고 같이 타면 벽이 잘 붙는다고, 그걸 많이 썼지요.

**Q** 또 다른 해초는 어떤 게 있나요?

**A** 천초, 그러니까 우뚝가사리도 많이 캬어요. 이것도 요즘은 참 많이 없어졌어요.

**Q** 어린 소녀 시절부터 해녀일을 그렇게 배우신 거군요.

**A** 처음 어릴 때는 14살 때까지 바닷가를 봐도 이게 벌이가 되는 건지 아닌지 몰랐지요. 목호에 있을 때도 항구가 크니까 바다는 자주 봤지만서도 별 생각이 없었지.

그런데 축산에 와서 보니까 이게 벌이가 되고 그런 거예요. 집도 어려운데 다른 일은 달리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때는 그냥 헨 옷 같은 거 입고 이제 막 바위틈에 있는 해초 뜯어가지고 한 움큼씩 갖다 팔고 그랬지요. 그러다 일을 조금씩 배우게 됐어요. 제주도 해녀분들이 일을 하다가 어린 게 따라다니거든요?(웃음) 그럴 때는 이제 제주도 해녀들은 일을 알려주거나 도와주곤 해요. 그래서 어떻게 큰 두나 짜리 수경을 구해가지고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불천에 쓰던 오광목이라고 있어요. 그 오광목으로 속옷을 해가지고 밑에 고무를 넣고는 그냥 그렇게 풍덩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해초를 막 뜯어서 속옷에다 넣으면 여기가 불룩해져요.(웃음) 그리고 그걸 빼서 바닥에 널어서 말리고 그랬지. 그렇게 차츰 차츰 배우니까 나중에는 해녀들이 장비를 하나 주더라고요. 오광목으로 된 건데, 한쪽으로 발을 끼워가지고 물질을 하는 장비였어요. 그래서 그걸 입고 또 조금씩 더 배웠지요. 한 시간도 있고, 30분도 있고요. 물 조류에 따라서 물이 좀 따뜻하면 오래 있고, 물이 차면 금방 들어갔다 나오고, 그렇게 뜯어가지고 말리고 그랬어요.

**Q** 당시 추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 옛날만 해도 이런 채취가 불법이라고 해서 어촌계나 이런 해초를 다루는 회사에서 돈을 많이 안줬어요. 막말로 야매로 했거든요. 이쪽에는 돈을 적게 주고는 다른 데다 팔아먹는 거지. 그러다 보니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영해장으로 가기도 했어요. 20리가 족히 되지. 8km쯤 되나? 그걸 언덕으로 올라가서는...(웃음) 그제 새벽 4시에 나가면 세 참, 네 참씩 쉬어가면서 그렇게 갔어요. 자리에 묶어가지고 그렇게 영해장에 가면 돈을 좀 더 쳐주거든요. 그걸 팔아가지고 좁쌀, 보쌀(보리쌀) 몇 되 사가는 거지. 그걸 이고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세 번, 네 번씩 쉬어가면서 축산으로 돌아오는 거지.



1975년 축산면 도곡리

**Q** 축산의 옛 모습 중에 땀감 구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A** 그렇지요. 그렇게 곡식을 구해오면 밥을 해먹어야 하는데 나무가 있어야 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무 구하기도 워낙 어려워. 좀 사는 사람들은 연탄을 떼지만, 우리집처럼 어려운 집은 나무를 떼야 했거든. 저기 저쪽 봉화산 너머까지 가요. 그렇게 가서 살펴봐도 나무가 떨어진 게 없어. 그럼 생소나무 가지를 치는 거예요. 이 정도 크기의 소나무 밑에 천을 깔고 막 베는 거지. 그러다 산감수(산지기)한테 걸릴까봐 애가 타면서도 어떡해요? 밥을 해먹어야 하니까. 옛날에는 현장에서 감시하는 것 말고도, 집 뒤에 나무를 해서 쌓아놨나 살피고 뒤져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산감수가 벌목을 감시하니까 나무하고 오다가도 만나면 안되요. 혼나고, 벌금내고...(웃음)

**Q** 다른 추억들도 얘기해 주시죠.

**A** 어떤 때는 나무하러 갔다가 사람들 몇이서 묘에 10월 시사를 지내러 오곤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반갑던지. 그런 사람들 만나면 떡 하나라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수를 끝내고 시사를 지내러 오면, 만나는 사람들 머릿수대로 떡을 주거든. 그러면 얘기도 업고 어떻게든 머릿수를 늘리려고 꾀를 쓰고 그랬어요.(웃음)

**Q** 정확하게 축산에 오신 년도가 언제쯤일까요?

**A** 정확한 건 모르겠고, 우리가 클 때는 단기를 많이 쳤는데, 단기 4292년으로 기억이 나네요. 서기로 1959년이네요. 축산에 오신지 벌써 64년이 되었네요.  
네, 주민등록보다 2년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호에서 축산으로 왔어요. 제가 다녔던 목호국민학교는 상당히 컸어요. 그런데 거기서 달리기 선수를 했거든요. 제가 꽤 빨랐어요. 막 달리다보면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서서 기다리고 그랬었지.(웃음) 운동 신경을 닦았는지 손자가 청소년 국가대표도 했어요.

**Q** 다시 해녀를 하신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A** 어휴, 말도 못해요. 그 고생은... 축산에 와가지고 남자보다 더 역세게 일한 거 같아요.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살았어요. 아버지도 일이 없지, 제가 동생들 키우고 그랬지요. 축산에서는 해녀 일을 하면서 물질 말고 다른 일도 있었어요. 선박 스크류에 걸린 로프나 그물 같은 걸 제거하는 일이지. 배 밑으로 들어가서 스크류에 감긴 줄이나 그물도 자르고, 끼인 것도 떼어내고 그렇게 하지요. 바다에 나간 배가 그렇게 감기며 다른 배에 끌려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 스크류에 얽힌 것들을 벗겨내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저도 몇 번이나 죽을 뻔 했어요.

**Q** 큰 위험을 겪으셨다고요?

**A** 한 번은 스크류 작업을 하다가 물 밖으로 나오려는데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배 밑으로 잘 못 들어가서는, 아무리 헤엄을 쳐도 배 밑바닥을 벗어날 수 없는 거야. 물 밖으로 못 나오니까 숨을 쉴 수가 있나? 아휴, 그때 겨우 도망쳐 물 밖으로 나와 숨을 쉬는데... 이런 고생을 누가 할까 싶었지요.

**Q** 정말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해녀 일을 배운 게 제주도 분들이라고 하셨지요?

**A** 제주도에서 인술을 해서 2월이나 3월 되면 해녀들이 이리로 와요. 먹을 게 여긴 별로 없으니까 노란 좁쌀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먹을 건 가지고 오는 거지요. 그렇게 6개월쯤 일하다가

다시 돌아가요. 이 근처는 집도 드문드문 있고, 그냥 모래밭이라. 그러니까 고구마도 못 심고 그랬죠. 저기 3동에는 집이 많았고. 하여간 해녀들은 그렇게 왔다 가곤 했어요. 그러다 몇몇은 여기 총각하고 서로 인연이 맞아서 결혼하고 살기도 하고.

**Q** 제주도 해녀들이 보통 6개월쯤 있다 가는 거였군요.

**A** 한 2월에나 와가지고 미역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겨울에 들어와서 3, 4, 5월 가는 이도 있고, 7, 8월에 가는 이도 있고 여러 종류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왔다 돌아가더라고요. 주로 한 20명이나 15명 나와서 여름에 작업하고 가곤 했지요. 해초는 가을에 끝나니까 그때 가기도 하구요.

**Q** 제주도에서 사람들이 오는 건 어떤 루트로 온 건가요?

**A** 그러니까 바다에도 구역이 있었어요. 그럼 투자자가 바다 어떤 구역의 해초를 수확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구역에 얼마만큼의 양을 수확할 것이라고 계약을 하고는 해녀들이 팀을 짜서 축산에 오는 거예요. 할당을 다 채우면 다시 돌아가는 거지. 마치 농사짓는데 소작 주듯이 했어. 주로 해초를 많이 했어요. 도박, 천초 이런 종류로.

**Q** 해녀분들에게 일을 배우신 건가요?

**A** 아니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나? 그냥 풍덩 들어가서 내려가다보니 숨이 늘고, 또 되니까 더 깊은 데도 가고 그렇게 물질을 익힌 거지.

**Q** 해초 외에 해산물을 따고 하신 건 언제부터지요?

**A** 어촌계에 배당받은 만큼 해산물을 넘기고 그 외에는 우리 수익으로 하는 식으로 일을 했어요. 7명씩 조를 짜서 했지요. 그렇게 조가 잘 맞으면 몇 년 동안 했지요.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배당이 불합리해서 손해도 많이 봤어요. 참 어려운 때였어요. 체계가 많이 잡혀갔지.

75

**Q** 이후 결혼도 하시고 일이 여러 모로 바뀌었겠네요.

**A** 스무 살에 어떻게 연애를 해가지고 인연이 됐지요. 그런데 집에서 많이 말렸어요. 두 집안에서 서로 가난해서 좋지 않다고. 그런데 그게 맘대로 되나? 하여간 남편은 군대를 가고 제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생계를 이었지요. 집안 환경이 썩 안 좋았어요. 시아버지도 그때 돌아가셨고. 하여간 먹고 살기 막막해서 내가 그때 구계리로 일을 갔어요. 거기서 미역을 해주면 노란 광주

리에 한 광주리 해주면 주인들이 5천 원씩 주더라고. 그렇게 열 광주리를 하면 5만 원이야. 그렇게 가면 시어머니가 돈을 크게 벌어들였어. 그러고 나서 그렇게 있다가 남편이 제대했는데, 동생하고 트러블이 많았어. 집 환경이 안 좋으니까 몸도 안 좋았지. 그러다가 내 나이 서른넷에 세상을 떠어.

**Q** 뒤에 다른 인연을 만나셨군요.

**A** 아이가 넷이나 되는데 혼자 있으니 친절에서 중매를 썼지요. 원양어선원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처음에는 제가 거절을 했지요. 그런데 맞선을 보고 저를 따라와요. 애가 네 명이라던데 확인한 다음에 거지. 그렇게 오니까 만딸이 싫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더니, 딸이 “그럼 한 번 해보세요.” 라고 승낙을 하는 거예요. 이후에 그렇게 살게 됐지요. 아휴, 말도 말아요. 술도, 술도 그렇게 많이 먹고, 아는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어쨌든 그렇게 살아 왔지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못 산다고 아이들한테 물으니까, 아이들이 도리어 다른 생각 말고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 저는 해녀 물질 계속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Q** 힘은 들었지만 축산에서 계속 터를 잡고 살아오신 거군요.

**A** 또 한 때는 축산이 그래도 살기가 좋았어요. 노가리가 많이 나니까. 칼만 들고 나가면 하루 10만 원씩은 거뜬히 벌었어요. 거기에 어장을 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돈을 벌고. 옛날에는 그래도 축산이 컸거든요. 그렇게 터도 사고 집도 짓고 그렇게 산 거죠. 애들도 다 키웠고, 좋았지요. 아들이 서른두 살에 장가가서 애를 낳았는데 말아 보살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감이 자기가 보살피겠다. 무슨 소리냐고?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겠느냐니까, 그날로 술, 담배 끊고 애를 보살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유모차를 끌고 애를 데리고 다니는 거지. 내가 자맥질 하고 나오면 유모차를 끌고 나와서 “너거 할매 저기 있다” 그러는 거지. 그 손자가 아까 청소년 국가대표도 하고 그랬지요.(웃음)

**Q** 해녀 작업을 하시는데 축산의 환경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A** 지금 축산항에는 방파제가 있지만, 이게 별로 많이 안 나갔거든요. 방파제가 이렇게 안 나가고 할 때는, 바위도 알고 물도 알고 그러니까 해삼도 나고 해산물도 많았어요. 그렇게 작업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방파제를 늘리니까 작업 공간이 사라져 버렸지요. 그래서 해녀업의 삶의 공간을 없앤 부분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촌계에 일당을 받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보니까 소송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증인도 확보하기 힘들었구요.



**Q** 이제는 작업환경이 어떤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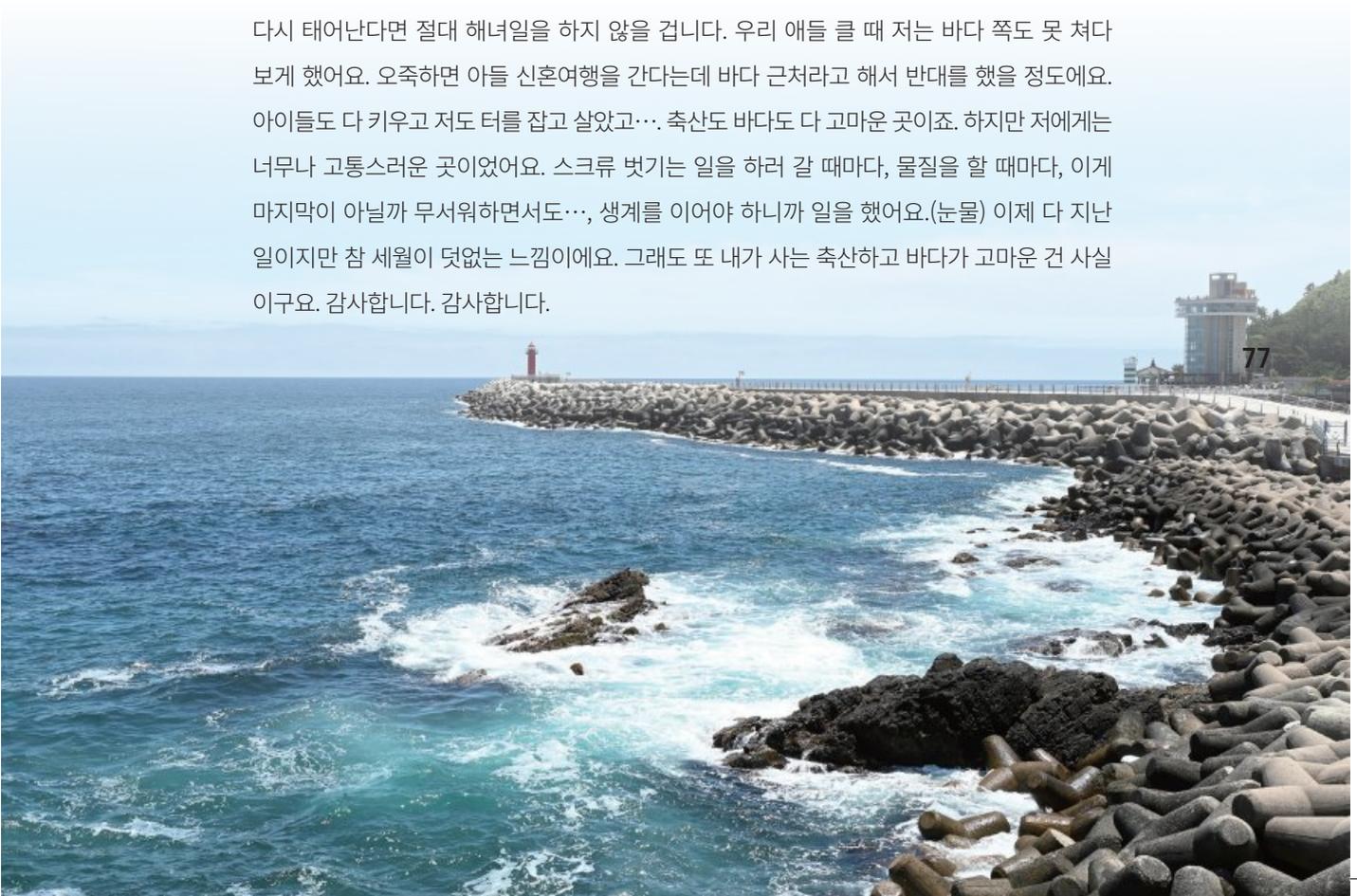
**A** 여기서 작업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다니다가, 동료 해녀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줄어들었지요. 제가 명칭만 해녀 회장이예요. 이제는 바다에 있는 해산물도 함부로 작업을 하지 못해요. 불법으로 막아놨거든. 또 예전처럼 바다 자원이 풍족하지도 않아요. 도박이고, 천초고 해초도 싹 없어져 버렸어요. 한 몇 십 년 없어지다가 작년부터 조금씩 다시 나오. 이제는 채취도 다이버가 허가를 맡아서 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해녀업을 잇는 젊은 사람들도 없고. 이제 해녀는 시대하고 안 맞는 거지요.

**Q** 평생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건강은 어떠십니까?

**A** 예, 저는 아직 건강한 편이에요. 아직도 일이라면 열 가지 다 합니다. 오징어도 고기도 말려 팔고..., 뭐 여러 가지 해요. 해녀일이라는 게 매일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날씨도 봐야 되고, 잡는 때도 따로 있고. 그러다보니 수익이 불균형하지요. 물질 안 나갈 때는 고깃배에 반찬 고기 떼 와서 분류하고, 팔고, 말려서 팔기도 하고... 역세계 살아온 편이죠.(웃음) 아직은 건강해요.

**Q** 김순남 선생님에게 축산은, 또는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A** 제가 열 살에 들어와서 고생한 걸 생각하면... 저는 사실 바다를 다시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 해녀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애들 클 때 저는 바다 쪽도 못 쳐다 보게 했어요. 오죽하면 아들 신혼여행을 간다는데 바다 근처라고 해서 반대를 했을 정도예요. 아이들도 다 키우고 저도 터를 잡고 살았고... 축산도 바다도 다 고마운 곳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었어요. 스크류 벗기는 일을 하러 갈 때마다, 물질을 할 때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무서워하면서도..., 생계를 이어야 하니까 일을 했어요.(눈물) 이제 다 지난 일이지만 참 세월이 덧없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또 내가 사는 축산하고 바다가 고마운 건 사실 이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복

영덕 북부 수협 조합장

수협에서는 근본적으로 지역 어업인들의 위판이나 경영 사업에 관련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협은 이제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까지 4개면에 13개 어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된 조합원이나 어민들의 수산활동을 관리하고, 새벽 4시 반부터 위판부터 해서, 어민들 복지사업들까지. 또 여러 가지 냉동창고의 수산물 보관, 금융에서는 정책자금이나 자금, 그리고 담보대출 등을 하면서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네, 저는 영덕 북부 수협 조합장 김영복입니다. 오늘 축산항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 향토에 대한 관심과 향후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을 위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Q** 수협 조합장으로서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간단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A** 수협에서는 근본적으로 지역 어업인들의 위판이나 경영 사업에 관련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협은 이제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까지 4개면에 13개 어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된 조합원이나 어민들의 수산활동을 관리하고, 새벽 4시 반부터 위판부터 해서, 어민들 복지사업들까지. 또 여러 가지 또 냉동창고의 수산물 보관, 또 나머지 금융에서는 정책자금이나 자금 그리고 담보대출 등을 하면서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조합장님은 출생이 축산 지역이신가요?

**A** 저는 가까이 영해 쪽입니다. 이 지역이 각 동네마다 거리가 차로 20초, 30초 단위로 연결되는 만큼 가깝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님, 그리고 저까지 3대째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Q** 어린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어업에 종사해야겠다고 결심하신 동기가 있을까요?

**A** 저 같은 경우는 초중 시절 말고는 고등학교와 대학까지 학창 시절은 외지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군대 갈 시기가 돼서 고향으로 와서 어머니 아버님 도와드린다고 유통 일을 조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역 배정을 받았는데, 경험이 있다보니 ‘수산산업기능요원’이 됐어요. 요즘으로 치면 공익요원 같은 거죠.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에서 수산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36개월 했습니다. 거기서 36개월 하면서 이제 조건이 지역에서 수산업을 이제 부모와 같이 도와줘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36개월 끝나고 어른들하고 사업하면서 배우고 다니니까 여기서 뭔가 모르게 좀 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뭐 월급도 받고 하니깐 이제 돈을 더 모아서 어른들 고생하시는데 학비를 좀 더 충당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2년 더 하게 됐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1년 후, 당시 어업인 후계자, 그러니까 지금은 수산경영인이죠. 그걸로 선정됐었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사회생활을 밖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수산 사업하는 것이 웬만한 주위의 은행이나 관공서나 공무원보다 훨씬 낫더라구요. 그래서 좀 더 젊었을 때 여기서 뭔가를 일궈봐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Q** 이때가 청년 시절이군요. 이후 경력을 말씀해 주십시오.

**A** 1993년 정도 되겠네요. 1996년에 수산경영인에 선정됐고요. 이후 2009년에 수산 신지식인 11기에 선정됐고, 2021년도에 제가 영덕 북부 수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당선되어 연임으로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어린 시절부터 이 지역의 바다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셨군요.

**A** 항상 그랬었죠. 집에서 그렇고, 눈만 뜨면 다 배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아버님도 잠수부 부터 해서, 어장, 자망 등등을 하셨지요. 어머니도 함께 양식장하고 유통도 같이 하셔서, 눈뜨고 배울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함께 하다보니, 바다는 제게 당연한 것입니다. 항상 제 주변 환경이었죠.

**Q** 축산이 활발하던 예전 모습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A** 제가 92년 하반기부터 여기 들어와서 어르신들 일을 도와드리며 일을 했는데, 그때가 20년 만에 오징어가 엄청나게 어획됐습니다. 93년도부터 한 2005년도까지 한참 잡혔었지요. 특히 이제 90년도에 엄청나게 오징어가 전국적으로 잡히면서 건조, 가공, 제조, 유통일이 활발했었어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영덕 이 부근은 80~90%가 스톨집일 정도로 빈촌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촌계가 남쪽 지역까지 쳐서 17~19개 정도 있었는데, 각 동네 어촌계마다

오징어 건조 물건을 대고는 건조, 가공하는 일을 맡기면서 부가가치 생산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돈이 돌다보니 애들 공부시킬 조건도 됐고, 또 혼자 있는 여성들의 일거리도 많이 생겨났고요. 하루에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자기가 경영해서는 20에서 30만 원까지도 수익을 창출했었어요. 이곳에 일하러 오신 분들만 해도 그렇게 돈을 벌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엄청나게 자본금을 취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저도 그 물건 대주는 사업을 24~25년 정도 했습니다.

**Q** 이후의 변화를 말씀해 주십시오.

**A**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 좋은 세월이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징어가 나지 않게 된 거죠. 2005년 정도부터 점점 감소되어 갔죠. 그렇게 줄면서도 꾸준히 나던 오징어가 아예 사라지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어업 생산량이 오징어가 가장 많습니다. 채낀이 어선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오징어 자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 바람에 어민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어요. 축산항도 현재 그 생산량의 규모가 상당히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사업을 해볼 거라고 노력하는 어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사정입니다. 투자비도 지금은 잘 건지지 못하고 이자 내기도 힘든 실정에 있어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전체 수산업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변화에 따라가지고 달라진 어종이라도 나와 하는데, 그것도 아닌 거죠. 수산물 자체가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Q** 현재 축산항의 형편도 그에 따라 힘든 상황이겠군요.

**A** 축산항 전체의 지금 분위기는 작년하고 재작년과 비교해도 훨씬 좋지 않습니다. 공치로 예를 들면 이때쯤 되면 공치가 나아 하는데 3, 4년 전부터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희 축산항 에도 공치 잡는 선단들이 꽤 되고 대형선에 웨이버선까지 들어왔는데, 현재 공치 어장이 형성이 안 돼서, 거의 위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조합장으로 계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직접 목격을 하시고 계실 건데, 들려오는 목소리 중 어떤 것이 가장 많을까요?

**A**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 부도 나겠다, 이자도 못 낸다... 이런 실정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일본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수산물의 물량이 작아지면 위판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수산물 양이 적은 반면에 수산물 가격은 더 하락하고 있는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조합에서도 지금 어업인들한테는 항상 정책 자금 등을 빌려주고 저리 이자를 받는데, 지금 그 월 이자도 내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 저희들도 이자 독촉하기가 많이 죄송한 그런 실정입니다.

**Q** 이런 목소리들이 들리는데 정부나 행정에서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지, 그나마라도 숨통을 틔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저도 그래서 중앙이나 해수부 회의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수산물 생산 감소와 소비 심리 위축에 있지 않느냐? 여기에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어민들이다. 어민이 피해를 보면 조합이 피해를 보고 그러면 해수부나 중앙정부에서도 같이 피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타당성 있는 조사와 자료로 국민이 수산물 소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또 당장 어족자원 감소의 해결은 어려우니까 첫째 선박의 유류 지원을 제대로 해주고, 둘째 외국인 선원들 임금도 못 맞추기 때문에 임금이라도 일부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수산물 좌우하고 위판을 해도 가격이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등의 이자 일부를 면제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 축산항도 어족 자원의 감소로 많이 위축된 모습입니다. 축산항이 발전하려면 어떤 점이 개발되어야 할까요?

**A** 축산항은 미항이라 불립니다. 항구가 작으니까 예뻐 수밖에 없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서는 그런 부분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역적으로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도로 입구와 접근성이 불편한 거죠. 도로 공사를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만족할 순 없다고 봅니다. 또 강구항 등이 개발되면서 주변 상가의 환경도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축산항은 아직 그렇지 못하죠. 상가가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정해수라인이 축산항 내에 설치되어 깨끗한 물로 깨끗한 수산물을 보관한다는 것만으로도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먹거리와 볼거리 이후에도 주차시설, 숙박시설 같은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개발이 되려면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큰 프로젝트 하나가 실행된 후, 그 시너지 효과로 다른 사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구의 산업적 측면에서는 축산항 부근의 신항만 건설, 관광 측면에서는 축산항 전체의 청정해수라인 등 대형 프로젝트 하나가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Q** 수협 조합도 급변하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주고 있을 텐데요.

**A** 한 2, 30년 전에는 모든 것이 성하는 어종에 따라 상황이 바뀌곤 했습니다. 그 어종이 나지 않거나 금어기가 되면 그게 다시 풀리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실패를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저희 조합뿐만 아니라 전국 조합이 모두 바뀌고 있는 시점인데, 금융 사업, 그러니까 은행 사업을 해서 조합의 자금을 좀 더 체계적으로 유지 하면서 경쟁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고기만 많이 나면 좋아진다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돌파구를 새로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호금융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 강남에 중앙회를 같이 해서 복합점포로 서초구 교대 지점이 아마 올 10월에 오픈될 겁니다. 수협 중앙회하고 같이 복합 점포로 운영되는 거죠.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김영복 조합장님께 축산항과 수산업이란 어떤 것일까요?

**A** 저에게 축산항과 수산업은 꿈이고 미래다. 여기서 어르신들이 먹고 자고 하면서 저를 키우고 공부시키고 다 했고, 저 역시도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다른 지역으로 나갈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바꾸고 수산업의 미래가 있구나, 하며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축산은 여기서 뭔가 내 꿈을 키우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제 개인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이 그리고 수산업이 그런 꿈이 있는 공간과 산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축산항에 있는 지역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이 여러 가능성이 실현되는 곳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충청남도  
충청산항 이야기



마음을 파는 사람들  
인터뷰 영상 바로보기

# Interview

Chapter\_3 충청항 인터뷰



# 02 마음을 파는 사람들



삼  
디  
스  
모

오  
해  
조



편  
지  
진



이  
력  
선





# 남 금 속

축산 3리 주민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전경 아이들 밥해줬던 게 제일 생각나요. 그렇게 해 주니까 또 자기들끼리 고맙다고 상도 주고. 저기 저 상이 해양경찰서장 감사장이예요. 또 일반 경찰 감사장도 두 개나 더 있구요.(웃음) 또 전경 아이들은 제대하고 나서도 한 번씩 식당으로 찾아와요. 어렸던 총각이 애를 안고 와요. ‘어머니 밥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하면서요. 그러면 제가 너무 반가워요. 전부 아들 삼아 그렇게 지냈으니까.

**Q** 어르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이름은 남금숙. 47년생이고 축산항에서 실비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식당은 81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고 벽에 적혀 있더군요. 여기 축산 출생이신가요?

**A** 축산 출신은 아니고 우리 큰 딸이 두 살 때 여기 왔어요. 우리 아저씨가 여기서 철공소를 했거든요. 나는 그때 구룡포에서 왔어요. 큰딸이 우리 나이로 54살이니깐 52년전에 1971년에 축산에 왔네요.

**Q** 그때 축산으로 와서 남편분이 철공소에 취직을 하셨군요.

**A** 아저씨는 철공소 일을 했어요. 철공소의 직원으로 들어갔고, 나는 고대구리(바다 밑바닥을 촘촘한 그물로 훑어 잡는 어구방식의 배, 현재는 금지됨)라고 작은 배가 있었는데, 나는 거기 잡은 고기를 처리하는 일을 했어요. 옛날에는 사는 게 다 그랬지요. 그때도 축산에 고기가 많이 났어요.

**Q** 71년에 축산에 처음 오시면서 느낌이 어땠는가요?

**A** 구룡포가 바다가 크니까 여기는 약간 시골 느낌이 났어요. 그래도 고기가 많이 나니까 항구에 사람이 제법 많았어요. 바닷가하고 극장이 생각나네. 그때 극장이 있더라구요.

**Q** 극장 이름이나 위치는 생각나세요?

**A** 극장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극장 위치요? 저기 수협 골목으로 들어가면 동해식당이라고 있어요. 그 안쪽 길로 있었던 것 같아. 쇼같은 건 안 하고 그냥 영화만 상영했어요. 영사기 돌려가면서.

**Q** 축산에 들어오실 때 도로는 어땠습니까?

**A** 도로는 작았죠. 그런데 그때는 다 그랬으니까. 구룡포에서 포항가는 길도 구불구불 똑같았어요.

**Q** 70년대 초반의 기억이신데, 그때 축산에 배는 많았습니까?

**A** 당시에 고대구리배가 많았던 걸로 기억나요. 주로 도루묵, 노가리 이런 걸 많이 잡았어요. 그걸 잡아 오면 이제 아줌마들이 서로 따려고 막 경쟁을 하고 그랬어요. 잡은 고기를 처리해서 나무 상자에 넣으면 한 상자에 얼마씩 품을 주고 그랬거든요. 저는 당시만 해도 아저씨가 일을 하니깐 생선 처리하는 일은 안 했지. 나중에 되니까 형편에 따라 한 번씩 나가고는 했었어요.

**Q** 그럼 식당은 언제부터 하신 거지요?

**A** 원래 지금 식당 자리에서 시작했는데, 그때는 주인집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벽이 있었고, 주인집은 안쪽 여기서 장사를 하고, 우리는 길가에 있었지. 그러다가 저기 건너 쪽에 헌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로 가서 1년인가 하다가 우리 아저씨가 몸이 아파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1년쯤 뒤에 이쪽 집을 사서 다시 돌아왔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쪽 식당을 한 거예요.



축산항 실비식당

**Q** 거의 한 자리에서 50년 동안 식당을 하신 거네요. 그때도 지금처럼 정식 위주로 하신 겁니까?

**A**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 아저씨 살아계실 때는 떡국을 했어요. 그때 애기 업고 끓여가지고, 그걸 이고 가서 방안에 화투치는데 갖다주기도 하고 그랬어요.(웃음) 그리고 불을 두 개씩 지퍼서 한쪽에는 시락국 끓이고, 한쪽에는 국수를 삶았어요. 축산 이쪽으로 낚시꾼들이 낚시를 많이 왔거든. 버스가 몇 대씩 그렇게 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 출출할 때 시락국에 국수 조금 넣어 가지고 파는 거지요. 그렇게 먹고 가고. 막걸리도 같이 팔고 그렇게 했어요.

**Q** 그렇게 시작하시다가 부군께서 돌아가시고 조금 변화가 생겼겠네요.

**A**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아저씨 계실 때는 저녁에는 떡국하고 낮에는 시락국 그렇게 했

었어요. 아저씨 돌아가시고는 이제 국수집을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또 세 살 먹은 애기가 있고... 그때부터 국수만 했는데, 저는 국수를 이고 자전거 타면서 배달을 다녔어요.(웃음) 낚시꾼하고, 공사하는 데고, 어디 가정집이고, 다방이고, 어디 배달해달라고 하면 다 다녔어요. 자전거 타고 그 다라이 그걸 이고 말이지.(웃음)

**Q** 남편분이 병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참 막막하셨을 텐데, 이겨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A** 슬픈 건 잠깐이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있니까... 그렇게 열심히 장사를 하다가 축산항에 방파제 공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방파제 공사를 크게 했어요. 포항에서 삼건사라고 회사가 들어와서 방파제 공사를 했지요. 그때 공사하는 사람들 아침, 점심, 저녁을 해주는데, 저녁일 마치고 12시에 자면,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3시에 밥을 해서 먹으면 7시에 나가고... 그걸 오래 했어요. 새참으로 국수 삶아 주고. 그렇게 밥을 대는 일을 하면서 하루 하루 바쁘게 지냈어요. 그때 축산에 노가리가 참 많이났어요. 또 쥐치 고기도 참 많이났고.

**Q** 방파제가 쪽 공사를 진행한 건 아니지요?

**A** 예,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하고, 또 그 뒤로 이어서 방파제를 더 늘리고, 그런식으로 10년 넘기고 20년 넘기고 그랬어요. 30년은 넘는 거 같애. 그만큼 오래 걸렸어요.



축산항 공사현장 사진

**Q** 그때가 80년대 쯤 되겠군요.

**A** 네, 그때쯤 될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집에서는 또 순경들하고 전경한테 밥을 또 해줬지요. 경찰 쪽에 봉사도 많이 하고, 같이 좋은 관계가 많이 있었지요. 그런 이야기를 신문에서도 실어줬었어요. 세계일보에 기사가 나서 집 안쪽에 아직 붙여 뒀어요.

**Q** 전경 부대가 있었습니까?

**A** 그건 아니고, 저기 사무실이 있어요. 저기 바다, 그러니까 해양경찰. 그리고 또 일반경찰도 밥을 같이 했구요. 전경 총각들은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해준 거니 공짜 삼아 그렇게 같이 먹이고 그랬어요.

**Q** 식당일을 하시면서 단체 식사로 크게 쪽 하셨었네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식당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셨구요.

**A** 요새는 몸이 안 좋고 하니까, 다리도 아프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주지를 못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자기네들끼리 직접 해 먹으면 그릇도 갖다주고, 또 경찰들은 편 데서 먹기도 하고, 우리 식당에 와서 먹기도 하고 그러지요.

**Q** 어쨌든 지금은 정식으로 장사를 하시는데, 제가 아까 점심을 여기서 먹었잖습니까? 반찬 수가 참 많아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전에는 반찬 수가 더 많았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렇게 반찬을 어떻게 내놓을까 궁리도 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A** 항상 내일은 뭘 내놓을까 생각을 하지요. 오늘부터 내는 반찬, 내일은 뭘 낼 건지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할 거를 다 내놓고는, 다음날 걸 준비하는 거지요. 또 그렇게 하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고 그러지요. 예를 들면 지금 철이 여름이니까 철에 맞는 걸 생각하는 거지요. 또 매일 몽땅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서너 가지는 바꿔서 내는 거지요. 또 오늘 콩나물 냈다고 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내일 콩나물은 그대로 또 새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장사 마무리하면 다 버려요. 많이 남아도 버리고 새로 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그래서 믿고 먹는 거니까.

**Q** 참 많은 정성을 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A** 예, 그렇죠. 전경들 처음에 있을 때는 총각들 오징어 횡거리도, 그냥 횡거리도 이래저래해서 먹이기도 하고, 이제 또 순경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손님들하고 같이 해주지만, 저녁에는 또 똑같이 못 준다는 말이죠. 저녁에 한 끼 먹을 수도 있고 두 끼도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너희들 엄마다 생각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으로 밥을 하고 먹었지요. 아침에는 매일 횡거리를 많이 샀고, 아니면 소고기 불고기 같은 거 해 먹이고 그랬어요. 저녁에는 좀 별다른 음식을 해주려고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Q** 그러면 음식 재료를 신선하게 가져오는 것도 일이 많았을 텐데 재료를 어떻게 다 대셨나요?

**A** 옛날에는 우리 식당 맞은 편에 부식 가게가 있었어요. 좀 비싸도 거기 아저씨가 대구에 새벽

시장에 가서 부식을 신선한 걸 가져와요. 그래서 그걸 쓰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날에 제가 이것저것 필요한 걸 시키고 그랬어요. 지금은 시키면 신선한 걸 가져다 주지.

**Q** 이외에 또 뱃사람이나 다른 단골 손님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A** 예전에는 다이빙하는 사람들도 많이 왔었고, 또 뱃사람들도 많이 왔지요. 고깃배 타는 사람들은 생선 잡은 거 들고 와서 따로 해 먹기도 하고, 국수도 해주고. 반찬 많이 해서 주고는 공기밥은 공짜로 더 드시라고 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Q** 이렇게 식당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보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전경 아이들 밥해줬던 게 제일 생각나요. 그렇게 해 주니까 또 자기들



끼리 고맙다고 상도 주고. 저기 저 상이 해양경찰서장 감사장이예요. 또 일반 경찰 감사장도 두 개나 더 있구요.(웃음) 또 전경 아이들은 제대하고 나서도 한 번씩 식당으로 찾아와요. 어렸던 총각이 애를 안고 와요. ‘어머니 밥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하면서요. 그러면 제가 너무 반가워요. 전부 아들 삼아 그렇게 지냈으니까. “어머니”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으면 이름도 부르고 “왔나?” 그러지요.

**Q** 거의 명예 경찰이셨네요.

**A** 정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내 힘이에요. 내 밑에 순경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지.(웃음) 어디 나가서 경찰차를 보면 가슴이 뛰면서 기분이 좋아요.

**Q** 이제 축산에 사신 지도 벌써 50년이 넘으셨습니다. 어르신께 축산은 어떤 곳이고 어떤 느낌인가요?

**A** 그냥 제가 아이들 데리고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고생도 많았고 그런 곳이 축산입니다. 제 삶의 터전이고, 경찰 아들들이 많은 보람도 있었던 곳이기도 하구요. 또 지금도 제가 식당을 운영 하면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 오 해 조

축산 3리 주민

저는 처음 축산향 이름을 들었을 때, 소 먹이고 돼지 키우는 곳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외지 손님들이 그렇게 묻는 경우가 있다니까요.(웃음) 어쨌든 남편이 쓰러지고 제가  
여기 밭을 디딘 거니까 잘 몰랐었죠. 사람들이 많아도 원래 그런가 보다 했고. 그런데  
막상 오니까 마을도 차그마하니 소담하고 사람들도 그때는 참 인심 좋고, 그랬어요.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이름은 오해조이고 1961년생, 울릉도 출신으로 축산에는 15년 전에 남편을 따라 왔어요.

**Q** 남편분께서 먼저 축산에 와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A** 남편이 먼저 와서 선주로 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그렇게 울릉도에서 나왔어요. 배는 저희 가게 이름하고 같은 용창호입니다.

**Q** 남편분은 축산에 훨씬 먼저 와 계셨군요.

**A** 저보다 한 10년 먼저 와서 살고 있었어요. 제가 15년 됐으니까 남편은 25년 넘게 살고 있는 셈이죠. 거의 90년대 초반이겠네요. 그러다가 제가 오기 직전에 갑자기 풍을 맞았어요. 뇌졸중으로 오른쪽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옆에서 돕기도 해야 하니까 제가 어른들 돌아가신 후에 축산으로 아예 이사를 했죠.

**Q** 축산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A** 처음에는 좋았죠. 그냥 울릉도 섬에 있다가 육지에 왔으니까요. 저도 원래 육지 사람인데 울릉도로 시집 갔던 거니까요. 또 세월도 모르고 살다보니까 울릉도에 정이 많이 들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또 좋더라고.



**Q** 처음 축산에 오셔서 거처는 어디로 정했습니까?

**A** 원래 아저씨 살던 본가가 여기 축산 3리에 있었어요. 옛날 주소가 94번지. 지금 가게 자리 바로 근처예요. 지금 여기는 터를 사놓고는, 물건 찼 데가 없으니까 창고처럼 쓰고 있었구요.

**Q** 15년 전이면 한참 고기가 많이 나고 사람이 많을 때겠네요. 그때 동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A** 저는 처음 축산항 이름을 들었을 때, 소 먹이고 돼지 키우는 곳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외지 손님들이 그렇게 묻는 경우가 있다니까요.(웃음) 어쨌든 남편이 쓰러지고 제가 여기 발을 디딘 거니까 잘 몰랐었죠. 사람들이 많아도 원래 그런가 보다 했고. 그런데 막상 오니까 마을도 자그마하니 소담하고 사람들도 그때는 참 인심 좋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살아보니깐 나쁜 점도 눈에 띄고, 그러다가 또 좋은 점도 눈에 들어오고 그런 거죠. 울릉도도 처음 타향이었는데 고향삼아 살다 보니 정들고 고향같이 됐죠. 지금 축산도 타향이란 생각이 없어요. 그저 와서 살다 보니까 또 고향같이 된 거고. 그냥 재밌게 살아야죠.

**Q** 요즘 코로나 이후로 축산에 외부 손님들이 많이 줄었나요?

**A** 그냥 그렇죠. 코로나 바로 터지고도 장사는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기가 잘 만나니까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장사도 썩 안되고, 서로서로 다 그렇지요. 요즘은 고기도 잘 만나니까. 동네가 조용하지요. 지금이 7~8월 휴가철인데도 주말 빼고는 조용하잖아요. 어찌보면 지금이 최악이에요.



축산항 용창수산펜션 전경

**Q** 코로나로 손님도 줄고 힘들 때 정부나 군의 지원이 좀 있었습니까?

**A** 코로나 터지고 장사는 점점 줄어드는데 여기는 월급 나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몇 명 빠져도 장사는 해야하니까 고정으로 돈이 나가는데, 그러면 적자가 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이자도 나가야 되잖아. 그러다가 겨우 장사를 좀 회복시키니까 기준에 벗어난다고 또 보조금을 안 주더라고요. 우리집 같은 경우엔 배도 운영해야 되고, 장사도 운영해야 하는데, 실제 보조나 혜택이 없으니 힘이 많이 들었죠.

**Q** 90년대 처음 오셨을 때 그래도 떠들썩 할 때의 모습을 좀 더 얘기해 주세요.

**A** 나는 진짜 축산에 와서 느꼈던 게, 배가 나갔다 들어오면 만선인 거예요. 그렇게 가득 잡아오고 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3분의 1도 안 나지요. 옛날에 비하면 정말 분위기가 많이 죽었어요.

**Q** 예전에는 선원들이 배 나갔다 들어오면, 항구 주변 식당하고 술집 이런 곳에서 저녁이면 시끌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하던데 어땠습니까?

**A** 당시만해도 외국인 선원이 별로 없고 주로 여기 사람들이 나고 들고 하니까, 아무래도 술 마시는 횟수가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외국 선원들이 많으니까 술 먹는 횟수도 확실히 줄었어요. 또 예전에는 선박에 12~13명씩 많이 태우고 그랬거든요. 우리 배가 냉동선이니까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국 선원들만 타고 이러니까 그런 분위기는 없지요. 물론 옛날에는 술 많이 드셨지요.



**Q** 그때 축산항에서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은 하셨습니까?

**A** 아니요. 저는 여기 항구하고는 크게 연관된 게 없었고, 영덕 군청에 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울릉도에서 혼자 오고 하니까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거기에서 찾았지요. 그러다가 제가 9년 전에 암에 걸렸었어요. 그러다보니 어울리는 것보다 내 몸 건사하기에 바빴지요. 다행히 건강을 좀 찾고 나니까, 노는 것도 지루하고 해서 4년 전에 창고로 쓰던 터에 건물을 지어 장사를 시작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대게, 회 등등 아저씨가 배로 잡은 수산물 취급하는 횡집하고, 펜션도 운영하구요. 제가 원래 울릉도에서는 장사를 했었거든요.

**Q** 남편분이 운영하시는 용창호에서 잡는 주 어종은 어떤 건가요?

**A** 주로 오징어, 콩치 그렇게 잡아요. 콩치 물회, 오징어 물회 같은 거 판매도 하고 이랬어요. 지금은 콩치가 안 나니까 못 하지만 많이 했었어요. 원래는 콩치가 많이 나고, 오징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콩치가 없어 우리가 작업을 못 했어요. 작년에는 한 4천만 원 손해였고, 올해는 시작도 못 했다니깐요. 그 정도로 콩치가 없어졌어요. 배가 제주도로도 가는데 제주도 쪽에도 고기가 그렇게 없다고 해요. 어종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Q** 이렇게 사시면서 축산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주십시오.

**A** 어찌 보면 삶의 터전으로서 살았던 거죠.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서 끝까지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만 했지요. 좀 각박해진 건 있어도 또 나아지겠죠. 그래도 앞에 말한 것처럼 소박한 동네예요.





# 최종명

축산 3리 주민

103

제 아이가 24개월입니다. 그런데 애가 갑자기 아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말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근처에 애를 데리고 갈 병원이 없습니다. 한창 코로나 시기에는 더 심했었죠. 그러면 애를 데리고 포항까지 가야해요. 영해에 있는 아산병원도 주말에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무작정 포항으로 차타고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병원 인프라 하나만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지금 축산항에서 용창횃집 운영하고 있는 최종명입니다.

**Q** 축산항에 오신 것은 언제이지요?

**A** 저는 울릉도 출신이구요, 아버지께서 축산에서 25년 가까이 계셨습니다. 제가 축산에 자리잡고 이렇게 횃집을 운영한 것은 5년이 좀 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선 용창호 선주이자 선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축산에 먼저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하다가 축산으로 왔습니다.

**Q** 현재 용창호가 축산항 근해에서 어로활동을 하고 있나요?

**A** 지금은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이달 말쯤 되면은 서해 보령 대천항 쪽으로 가서 작업하죠. 원래 축산항 근해에서 작업을 하셨는데, 요새는 고기가 덜하고 해서 다른 데서 작업을 하는 거죠. 벌써 고기가 잘 안 잡힌 지 5년은 된 거 같아요.



**Q** 회사 생활을 하다 축산에서 횃집을 운영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A** 저는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서 회사 생활을 쪽 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평생 직장으로 여기고 거기서 나름 꿈을 이룰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미 LG가 공장을 접으면서 충격을 받았었죠. 대기업도 어려워지니까 접더라구요. 보통 사람들이 평생 직장이라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그런 때에 집에서 축산항 창고로 쓰던 터에 건물을 짓고 횃집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을 주신 거죠. 이제는 대기업이나 직장에 기대어 미래를 건주는 것보다 자기 것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Q** 축산에는 예전부터 아버지 관계로 자주 오셨겠군요.

**A** 가끔씩 왔었습니다. 아예 모르는 게 아니죠. 고등학교 때도 학교는 대구라서 자주 오는 편이었구요.



**Q** 한 번씩 찾아오실 때 축산에 대한 느낌은 어땠습니까?

**A** 예전에 어릴 때 오면 그냥 시골벽적했죠. 사람들이 꼭 차 있고. 초창기 대게 축제하고 할 때도 그랬었고, 제가 간간히 올 때마다, 한 5년 전까지? 거의 제가 서른 살까지도 되게 북적거렸던 것으로 생각나요.

**Q** 요즘은 그때보다 훨씬 조용해진 건 사실이군요. 횡집 운영하신 게 코로나 딱 터지기 직전인 것 같은데, 코로나의 영향이 컸었나요?

**A**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때도 생각 외로 장사는 양호했어요. 사실 장사가 좀 준 건 부동산 경기 등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여러 부분이 줄어들었죠. 어족 자원이 고갈되는 부분도 크구요. 수온이 상당히 오른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대게도 잘 안 잡히는 실정이니까요.

**Q** 횡집을 운영하시면서 고기 수급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A** 저는 요즘 죽변에 입찰을 하러 갑니다. 그 이유는 울릉도하고 여기는 일직선상에 있을 때 거리가 멀어요. 근데 죽변항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울릉도 배들이 죽변 쪽으로 들어가요. 물론 전부터 그래왔었구요.

**Q** 아까 말씀이 예전에는 대게 축제를 축산에서 했다고요?

**A** 예전에는 인근 경정하고 축산에서 축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경정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강구로 내려갔죠.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가 안 생겼어요.

**Q** 축산이 많이 축소됐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횡집 운영하신 5년간이 여러 변화들과 겹치는데,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어쨌든 5년 전과 비교해도 젊은 층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얼마 안된 것 같지만 5년 전만해도 부모님과 같이 있는 젊은 층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다 도시권으로 떠났어요. 2017,





18년 정도만 해도 젊은이들이 좀 있고 했는데, 지금은 일거리도 줄고, 일자리를 도시에서 찾아가니까 많이 빠져나갔어요. 지금 동네를 다녀봐도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예전에는 10년 걸릴 변화가 요즘은 5~6년 만에 나타난다고 봐야겠죠.

**Q** 젊은 층이 떠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제가 지금 애기가 24개월입니다. 그런데 애가 갑자기 아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말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근처에 애를 데리고 갈 병원이 없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심할 때는 더 심했었죠. 그러면 애를 데리고 포항까지 가야해요. 영해에 있는 아산병원도 주말에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무작정 포항으로 차타고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병원 인프라 하나만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젊은 층이 가정을 이루고 여기서 살려고 하면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 자꾸 더 떠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겠죠. 저도 솔직히 애 낳기 전에는 이런 걸 모르고 있었어요. 소아과 갈 일이 없었으니까요.(웃음)

**Q**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충산항 인근도 코로나 시기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체감으로 느낀 부분이 있습니까?

**A** 최근 3개월? 올 4월부터 확실히 더 줄어든 느낌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야 저희도 먹고 사는데, 일단 고기가 안 잡히다 보니 더 그런 점도 있구요. 충산항에는 30톤 넘는 큰 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배들이 다 다른 지역가서 고기를 잡고 있거든요. 근해에 고기가 나지 않으니까.

**Q** 방금 관광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축산항 자체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나 다른 대책들이 있을 텐데, 문제점에 대해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A** 일단 축산항 자체를 젊은 세대가 잘 모르죠. 또 젊은이들을 부를 만한 어떤 브랜드나 스토리텔링이 필요한데 부족하지요. 저는 인터넷으로 가게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게가 신선도나 맛과 개성으로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나 거짓 홍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한 번 왔던 손님도 다시는 오지 않게 되는 거죠. 가게들도 홍보를 하려면 불가능한 부분이나 과대 광고는 빼고 확실히 증명할 수 있도록..., 단속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Q** 최근의 어족 자원이 줄어드는 현상을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용창호의 경우나 횃집의 경우로 직접 확인하고 계신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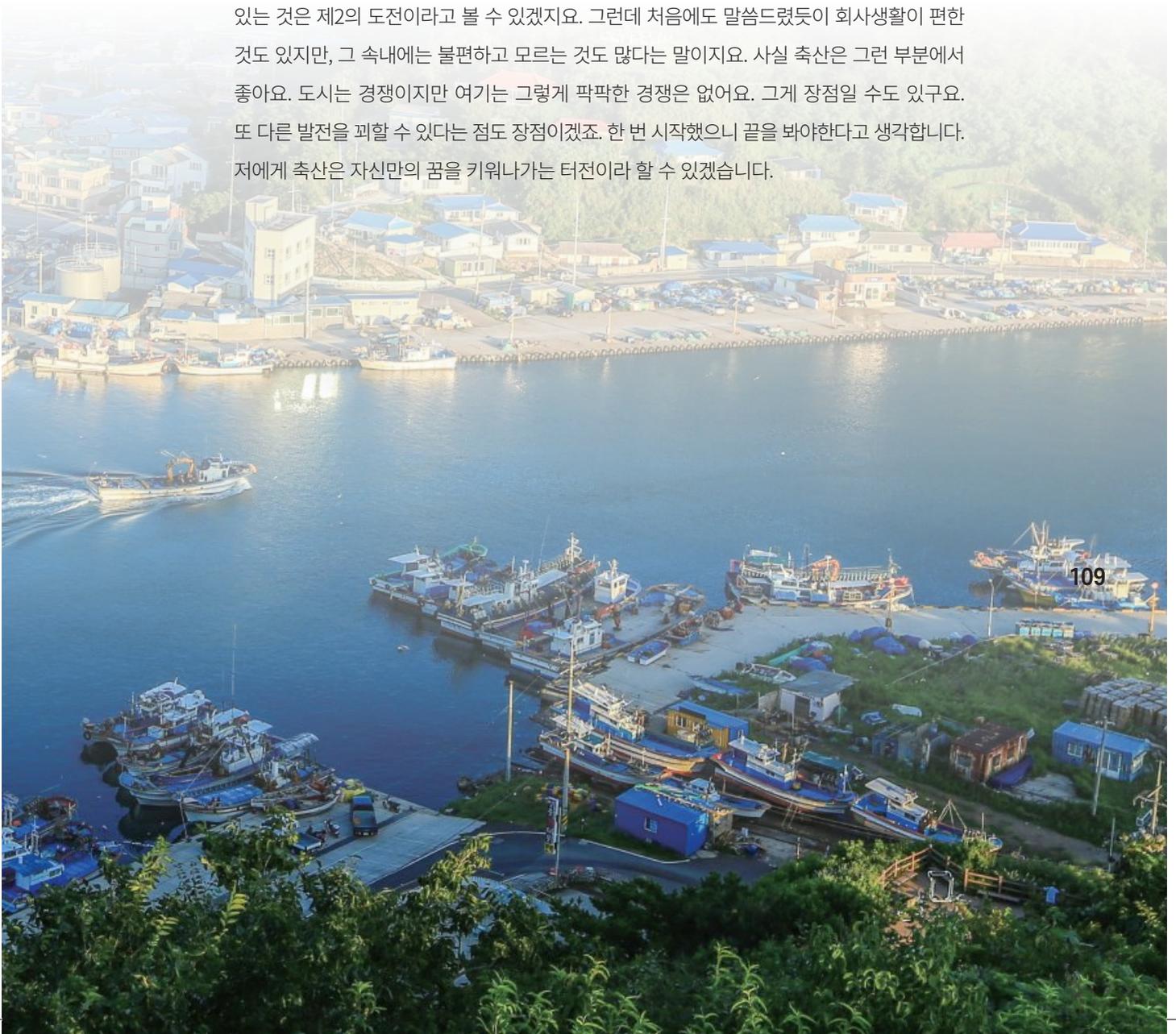
**A** 앞으로 길게 봐서 15년? 그보다 줄 수도 있구요. 일단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도 일을 배우거나 대를 잇는 어민들이 거의 없잖습니까? 외국인 선원마저도



줄어드는 형편이니깐요. 지금 선주나 선장분들의 연세가 거의 60에서 80사이예요. 이제 그분들이 손 놓으면 배를 누가 운영하느냐 말이지요. 기술 전수도 안 될 것이고... 또 내가 어업을 하겠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면허가 1급에서 9급까지 있고, 코스에 맞게 배를 운항할 수 있는 면허가 또 따로 있던 말이지요.

**Q** 여러 리스크가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축산항에 자리를 잡고 축산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계신단 말이지요. 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A** 저는 진짜 그냥 공부 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직장을 다녔었구요. 게다가 학창시절에는 유학을 가서 한국에도 잘 없었어요. 그런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삶을 일구고 있는 것은 제2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회사생활이 편한 것도 있지만, 그 속내에는 불편하고 모르는 것도 많다는 말이지요. 사실 축산은 그런 부분에서 좋아요. 도시는 경쟁이지만 여기는 그렇게 팍팍한 경쟁은 없어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겠지요. 한번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축산은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가는 터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손 광 응

축산 3리 주민

축산항이라는 건 진짜 내 삶의 참 터전이죠. 내가 이 자리에서 자식 셋을 키우고 동생 셋을 결혼 다 시켜서 출가시켰고. 그렇게 한 동네에서 많이 얻었으니, 베풀고 살려고 노력했구요. 앞으로도 뭘 하겠다 하면 앞장서서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동네 인심이 참 좋은 동네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Q** 어르신,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A** 저는 60년 전에 여기에 세탁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손광웅이라고 합니다. 새마을 지도자와 반장을 한 20년 했었고, 지금은 경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Q** 막내 동생 분이 군의원과 도의원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A** 제 막내동생이 여기서 군의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지역에서 신임을 얻고 덕을 잘 쌓아왔기 때문에 동생이 군의원도 하고 도의원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 자제분들은 포항에 계신다구요.

**A** 우리 딸은 시집 가서 포항 여중의 영어 선생입니다. 또 아들들은 포항서 처음부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Q** 뿌듯하신 얼굴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60년 전에 축산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고향은 어디십니까?

**A** 병곡면 백석동 1리에서 태어났습니다.

**Q** 축산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A** 대구에서 세탁소를 하다가 일을 배우고는, 제가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때 이리셨어요. 어른이 계시니까 네가 말이로서 멀리 가서는 안된다. 가까운 곳에 같이 살도록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고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에 세탁소가 하나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탁소에 인수해서, 여태까지 한 60년 가까이 이렇게 세탁소를 하고 있습니다.

**Q** 그러면 그때가 연세가 그때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A** 내가 스물일곱 살에 결혼했으니까 그때가 한 스물 다섯, 여섯쯤 됐을 겁니다. 그때 이미 군대는 제대했구요.

**Q** 학교는 어디를 나오셨습니까?

**A** 병곡 초등학교를 나왔고, 그때 우리 집이 조금 괜찮게 살았기 때문에, 대구에 대건중학교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시험 쳐놓고 입학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호에 우리 집이고 뭐고 싹 다 날아가 버렸던 거죠. 그때부터 우리 집이 기울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대구에서 기술을 배워서 이제 세탁을 했지요. 그리고 군에 갔다가 여기 축산에 세탁소를 얻어서 왔지요. 원래는 영해에 차리려고 했는데, 영해에 있는 분이 축산에서 세탁소 하는 사람이 대구로 돌아가려 하는데 거기 세탁소를 맡아서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맡은 것이 지금까지 왔지요. 그때가 1969년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Q** 그때 축산에 오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A** 시내버스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주 산골짜기로 들어가더라고요. 비포장 도로를 따라 가지고 한참 들어오니까, 갑자기 바닷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슴이 확 띄고, 진짜 그 당시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세탁일 하면서도 친구들과 같이 낚시질하면 낚은 고기를 그 자리에서 회를 쳐서 바로 먹고, 라면 넣고 매운탕도 해서 먹고 그런 좋은 시절이었죠.(웃음)

**Q** 그때가 69년도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때의 모습을 말씀해주세요.

**A** 많았어요. 여기 이 골목이 축산에선 최고 중앙통이었어요. 도곡, 칠성, 우리 면에 동네 사람들 이라든가, 저기 창수면에 촌사람이라는가, 하여간 아침만 되면 여기에 전부 다 뭍 이고 와가지고 길 옆에 짝 앉아서 장사를 하는 거지요. 여기가 사람들이 빈번하고 많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모여들어요. 여기서는 채소가 별로 없으니까 전부 다 뜬데서 가지고 와서 팔아. 그리고 뱃사람들이 득실하고, 항구에 배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 척, 두 척, 세 척을 겹으로 정박해놔요. 이 항구가 꽤 잘 정도로 여러 척을 건너가고 이랬어요. 제주도, 경남, 속초 배들. 이런 배들이 오징어 철 되면 여기에 다 왔지요. 아주 참 살기가 좋았어요. 그 당시에.



1970년대 축산항 모습

**Q** 세탁소를 차리셨는데 주 고객 대상이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A** 아, 그때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손님이 많았죠. 선원들 갑바 떨어진 거 우리가 틀을 벗겨내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틀일을 하고, 안에서 옷을 하고 그랬지. 그 당시에 여기 사람들은 콩나 물이고 뭐고 간에 물건을 가져오면 감이고, 복숭아고 저녁에 갈 때는 다 팔고 갔어요. 참 웅성 웅성 장사도 잘 됐지.

70년대 80년대에는 뱃사람들 옷이 많았어요. 수선을 많이 했어요. 옷을 한두 벌 입다가 보니까 터지고 떨어지면 꿰매고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바지가 터지면 꿰매주는데 무릎팍, 엉덩이 같은데 떨어진 것도 꿰매고, 갑바 같은 건 뱃일 할때 입을 걸옷인데 그것도 터지고 하면 수선을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풍이라고 있어요. 배를 저 먼 바다에 대어놓고는, 배를 딱 고정시켜야 오징어를 낚고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정하는 것이 닳아 아니고 풍이라는 게 있어요. 물을 싸가지고 그걸 딱 달아놓고 있으면 배가 진짜 가만히 있어요. 그게 이제 터지고 찢어지고 하면 그 수선도 우리가 했지요. 그때는 일감이 많아서 직원도 몇 명 두고 일했어요. 한 명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곤 했지요. 옆에 동네까지 가서 배달해주고 그랬어요. 동생이 둘이나 왔었어요. 일감이 많으니 새벽 5시, 6시 되면 항시 일어나야 했어요.

**Q** 손님이 많은 비결이 있었습니까?

**A** 비결 같은 건 없고, 성실히 했었으니까. 또 대구에서 세탁소를 하면서 도시에서 일을 배웠기 때문에, 세탁 기술을 못하는 게 없었지요. 드라이 기계 같은 것도 시골은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드라이 기계를 여니까 영덕읍에서도 구경하러 왔어요. 드라이 기계를 어떻게 하느냐고. 저 드라이 기계를 내가 영덕에서 제일 먼저 넣었었지요.

**Q** 그러면 축산에 오신 다음에 결혼을 하신 겁니까? 어떤 인연으로 사모님을 만나게 되신 건지?

**A** 우리 집안 어른들은 병곡, 백석에 다 계십니다. 거기 우리 이모님이 백석에서 선을 한 번 보러 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중매를 서셨는데, 낮에는 일하고 바쁘니까 못 가고 저녁에 이제 밤에 처음 봤습니다.

제가 선을 보고 오니까 뭐 참 좋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는 전에는 밤에 봤으니까, 이제 낮에 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연락을 먼저 했어요. 그렇게 낮에 보니까 진짜로 처남들도 좋고, 장인 장모도 다 좋으시고 그랬어요. 또 장인 어른이 배우셔서 저를 어린애 취급 않고 얼마나 점잖게 저를 대하는지... 그래서 좋은 인연을 가진 거지요.

**Q** 세탁소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같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A** 그때 한참 오징어가 잡힐 때니까 저 위에 공동 할복장이 있거든요. 거기 오징어 내장 속에 알이 있어요. 그걸 새벽 4시, 5시에 가면 그걸 수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서 씻어가지고 10kg짜리로 나눠서 얼려 놓고 집에 와서 아침 먹고 세탁소 일을 하고 그랬어요. 당시에 명태알, 명태곤도 수거를 했었어요. 참 그러고 보면 축산에 참 돈 버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걸 수거하면 워낙에 많이 잡고 처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루에 1톤까지도 수거할 때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할복하는 사람은 또 돈 벌고, 세척하는 사람도 돈 벌고... 그때 그리 동네가 함께 참 잘 살았네요. 그리고 그릇점도 운영했었는데 3년 전에 폐업 신고를 냈고, 세탁소는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데라서 그만두지는 못하고.(웃음)

**Q** 여기 세탁소가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거군요.

**A** 우리 집에는 이제 오후 되면 아줌마들이 여기 놀러 옵니다. 놀러 와서 집사람하고 커피도 사서 먹고 그래 앉아 놀다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세탁소는 좀 힘이 들더라도 힘닿는 데까지 하려고 놔두고 있어요. 사실 젊을 때는 동생 되는 사람들하고 친구들이 몰려들어서 밤새도록 화투도 치고 놓고 그랬어요.

**Q** 사모님이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A** 고생은 해도 사람을 참 좋아해서 우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잘 모여들었어요. 재밌게 지냈지.

**Q**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마을에 봉사일도 많이 하시고 그랬군요.

**A** 처음에는 이제 반장 일을 했습니다. 축산 3리 11반 반장을 오래했습니다.(웃음) 20년 넘게

했으니까. 또 새마을 지도자도 20년 했었어요. 그건 그전에 하던 어른이 돌아가시니까 할 사람도 없고, 누가 하긴 해야 하나니까. 그래도 내가 세탁소를 하면서 시간을 내가 낼 수 있으니까 나서게 됐죠. 그냥 술이나 먹고 울퉁불퉁하는 사람이 아닌 걸 아니까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셨죠. 저도 이 동네에서 먹고 사는데 그냥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요. 큰 희생은 아니더라도 내가 봉사하고 조금 희생하면 모두가 좋지 않겠는가 하고요. 그 외에도 영명사라고 절이 있는데 거기 신도회장도 했어요. 처음에 그 절터에 갔을 때 내가 그냥 절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모금도 하고, 돈도 내고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절을 지었어요.

**Q** 새마을 지도자 하시면서 기억에 남으시는 일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A** 고물 폐품 수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우리 축산면 회원들이 다 모여서, 밭에 가서는 페비닐을 걷어서 차에 싣고 영덕군에 갖다가 주고. 또 옷 같은 것도 헌옷을 걷어가지고 군에 갖다 주고. 동네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과 같이 나서서 봉사를 했어요. 회원들이 고생했지요. 동네 어른들이 잔치한다면 그거 나와서 다 해주고. 또 남자들도 새마을 지도자라고 편하게 있는 게 아니고, 청소 같은 것도 지도자들이 나서서 많이 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군수 표창같은 걸 받기도 했구요. 그래도 여기 축산이 내 고향인데 고향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어요.

**Q** 축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씩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A** 참 전성기 때가 70년도 후반, 80년도 이 당시가 참 좋았었죠. 배들이 멀 데가 없어 가지고, 옆을 대면 그 뒤로 사이 사이로 배를 대고 다른 배를 건너서 항구로 들어오고 그랬으니까요. 그때는 장사하는 아줌마, 할배들이 개똥을 팔아도 다 팔고 간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웃음) 그런데 지금은 동네에 젊은 사람이 없어요. 외국 사람들 아니면 배도 운영 못 합니다.

**Q** 세탁소도 이제 일이 많이 줄었겠습니다.

**A** 우리가 그릇점도 같이 했는데 한 3년 전부터는 폐업 신고를 냈어요. 이젠 많이 줄었죠.



**Q** 축산에 대해 자랑 같은 거나 좋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A** 우리가 물 하나는 아주 바닷물이 깨끗합니다. 제일 내가 바라는 건 저기 다리 쪽에 모래사장에 해수욕장을 열어 관광객을 모았으면 싶어요. 물이 참 깨끗하거든요. 예전에 신기동 쪽에 모래사장이 참 좋았는데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Q** 동생분이 군의원 나가는데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A** 동생이 어느날 군의원에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니다. 대신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사람들을 위해 희생해서 좋은 걸 많이 쌓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베풀고 봉사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형님 덕분에 됐다고 말하더라고. 참 보람이 있었어요.

**Q** 축산에서 참 재밌게 사셨고 사랑하는 곳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축산은 어르신께 어떤 곳인가요?

**A** 축산항이라는 건 진짜 내 삶의 참 터전이죠. 내가 이 자리에서 자식 셋을 키우고 동생 셋을 결혼 다 시켜서 출가시켰고. 그렇게 한 동네에서 많이 얻었으니, 베풀고 살려고 노력했구요. 앞으로도 뭘 하겠다 하면 앞장서서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동네 인심이 참 좋은 동네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추억의 보물선  
추산항 이야기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  
인터뷰 영상 바로보기

# Interview

Chapter\_3 추산항 인터뷰



# 03

## 추억을 직간 사람들



안정환·최말선



이재우

페레라



이권



김영민





## 안 종 한 · 최 말 선

축산 3리 주민

**[안종한]** 어릴 때부터 고생하고 살았지만 따뜻한 곳이에요. 사람들 인심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런 곳이에요. 나한테는 고향이고 애들 잘 키우고 살아온 곳이지. 옛날에 고기 많이 날 때는 사람들도 참 많은 곳이고. 아이들한테 더 좋은 거 못해줘서 아쉽지.

**[최말선]** 처음에 그랬지, 지금까지 잘 살았던 데지요. 잘만 벌면 안 좋은데가 어디 있겠어요?(웃음)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런 데지요. 아이들 잘 크고 잘 자란 데지 뭐. 내가 지금도 사는 곳이에요. 외지 사람들보다 나는 사는 데니까 좋지요. 할아버지는 여기가 토박이고 그래요.

## 안종한

Q 어르신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축산에 사는 안종한입니다. 89살입니다.

Q 어르신은 축산 출신이십니까?

A 아버지가 처음에는 봉화에 계시다가 총각 때 바닷가에 일거리가 많다고 해서 축산에 오셨어요. 아버지 성함이 안오중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축산에 오실 때가 항구를 처음 만들 때였어요. 그때가 왜정(일제강점기) 때지. 그래서 아버지가 항구 만드는 인부들이 있는 노조에 들어가서 일을 하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지방에서 오셨어도 사람들에게 잘 보였던 모양이에요. 자리를 잡았던 거지. 아버지가 그때 총각이니까 사람들이 중신을 서는데, 처녀한테 장가를 가야 원칙이지만 그때 그런 형편이 좋지 않고 아버지도 나이가 많으니까 과부하고 결혼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원래 김씨 집안에 시집을 갔었는데, 이제 안씨 집안으로 재혼을 해서 나를 낳으셨던 거지요. 어쨌든 그렇게 지내다가 내가 열다섯이 됐을 때 양친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누나 밑에서 컸지요.

Q 그때 축산에 학교는 있었습니까?

A 그때 학교는 없었어요. 학교는 짓지도 않았고, 저어기 저 건너편에 보면 어민 조합이라고 거기 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애들 모아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게 지금 초등학교라 보면 되지.



1950년대 축산항 모습

의무교육으로 갔지. 그때 왜정에서 해방되고도 거기에 계속 다녔어요. 그때가 내가 일곱 살인가 해서 갔을 거예요. 옛날이다 보니까 연령차이가 없어. 열 몇 살 먹은 사람도 오고, 또 일곱 살 짜리도 오고. 나이 많다고 못 온다 그런 것도 없었어. 워낙 없이 살던 시절이라 집이 곤란하고 하면 또 못갔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만 다녔어.

**Q** 초등 과정을 거치고는 일을 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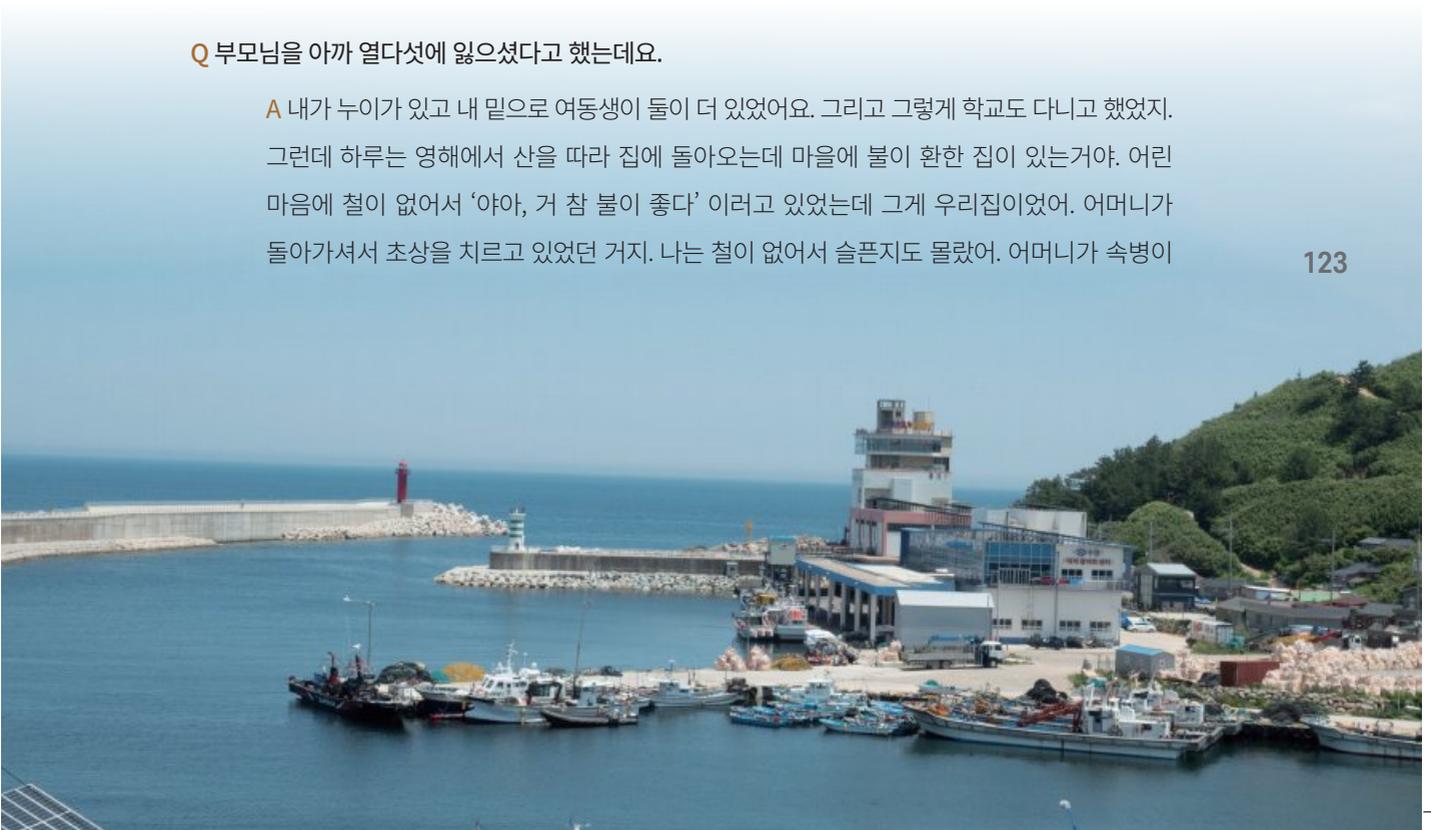
**A** 아니지. 아버지가 촌사람이긴 하지만 자식을 되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도 받을 일귀서 나를 학교를 보냈어요. 그때는 중학교가 없었고, 고등공민학교라고 있었어. 거기에 나를 보냈어요. 여기 죽산 동네에서 많이 나가야 되지. 영해에 있었어요. 영해 고등공민학교. 죽산에서 그때 다섯명이 학교로 갔어요.

**Q** 그때 도로는 어땠습니까?

**A** 그때는 도로가 없어서 영해 장터에 가는 길에는 소구루마를 타고 그렇게 가고 했어요. 또 차가 있기는 있었는데, 석탄 싣고 다니는 차였어. 그 차가 한 번씩 다니곤 했지. 여기 죽산항에는 옛날에 여기 3동하고 1동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죽산항에는 모래사장이 있었거든. 중간에 냇가가 있고 중간이 관통돼 있었어요. 이 모래가 쌓여가지고 죽도산이 생겼어. 그래서 저쪽에 1동 사람들이 이쪽 건너 죽도산 사람들보고 섬놈들이라 불렀어. 섬처럼 떨어져 있었으니까. 저쪽은 양반동네고 여기는 못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왜정 때 여기를 항구로 만든거지.

**Q** 부모님을 아까 열다섯에 잃으셨다고 했는데요.

**A** 내가 누이가 있고 내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 더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학교도 다니고 했었지. 그런데 하루는 영해에서 산을 따라 집에 돌아오는데 마을에 불이 환한 집이 있는거야. 어린 마음에 철이 없어서 ‘아아, 거 참 불이 좋다’ 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우리집이었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초상을 치르고 있었던 거지. 나는 철이 없어서 슬픈지도 몰랐어. 어머니가 속병이



있었거든. 그렇게 어머니가 가셨어. 그리고 그 뒤에도 학교를 다녔어. 그런데 어머니 김 씨 집안 쪽으로 어머니가 낳으신 배다른 형제가 있었어. 어머니 집안이 부유하니까 그때 어선을 운영했거든요. 당시에 축산에 오징어가 참 많이 낳아. 그 오징어를 따로 건조 가공을 해서 배로 운반을 했거든. 오징어를 가득 싣고 부산으로 갔다가 오징어를 다 내리고는 포항으로 왔다가 돌아오곤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배를 타고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배가 침몰해 버렸지.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나도 학교를 다니기 힘들어졌지.

**Q** 그 이후 청년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A** 이후에는 누님 밑에서 컸어요. 그러다가 군대 영장이 나오기 몇 달 전에 결혼을 했어요. 영덕 아가씨였는데, 그렇게 군에 가게 됐어요. 군대를 그래 3년을 갔다와서 일을 배운게 없으니까 배밖에 더 타겠어요? 일단 동생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노력해서 일군 땅에 똥장군을 지고 농사도 짓고, 배도 타고 했어요. 그런데 배 경험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래 저래 배우고, 또 학교도 좀 다닌 것도 있으니까 노가리 배 선장을 했어요. 그 명태 새끼 노가리가 그때 많이 낳았어요. 그건 주간에 하지 않고 야간에 작업을 해요. 그때 울릉도에서 오징어가 잘 안잡힌다고 울릉도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선원들 데리고 배를 나가고 했었지. 그런데 하루는 파도가 엄청나게 센 거야. 풍랑이 도는데 사람들 다 죽는다고 난리가 났었지. 집채만 한 파도에 아이구 참 무서웠어요. 선주도 울릉도 사람인데 걱정을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겨우 살아서 항구로 들어오니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배를 못 타겠더라고. 그래서 손을 끊었었지요.

**Q** 이후에는 정치망을 하셨다구요.

**A** 그때 혼난 이후에도 선주가 배를 타 달라면서 그 당시 돈으로 50만원을 내놓더라고. 그래도 나는 죽어도 못 탄다고 했지. 그리고 있다가 바다 어장을 사서 정치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더라고. 아침에 가서 물보고 물도 관리하고 뭐 좋았어요. 그러다가 식도암이 걸리는 바람에 정치망도 그만 두고는, 아들 있는 대구로 가서 치료를 했어요. 그러다가 정치망 있는 것도 팔고, 식당을 했지.

**Q** 축산에 사람이 많았다구요.

**A** 워낙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외지인들이 한참 들어왔었지요. 그러다가 고기가 안 나면 또 다 나가 버려. 여기가 원래 그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어요. 참 그래도 인심이 좋은 동네예요.

## 최말선

**Q** 이제 최말선 어르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은 여기 이쪽 태생이신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서 시집을 오셨습니까?

**A** 고향은 울산이지. 제가 29살에 좀 늦게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집도 없이 나한테 장가를 왔어. 누나 밑에서 컸거든. 그 바람에 이 양반이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오빠들이 넷인데, 나를 데리고 이리로 왔어요. 그런데 집도 없고 뭐가 있어야지. 그때만큼 서러운 경우가 없어요.

**Q** 어떻게 중신을 서서 인연이 됐습니까? 그리고 사는 집을 어떻게 장만하셨어요?

**A** 이 양반이 아무 것도 없어놓으니까 머리가 아팠지. 중신은 울산 사람인데 여기서 머구리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 양반이 그 배를 좀 탔었나봐. 그래서 중신이 들어와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빠들 따라 왔지. 그런데 집도 없고, 누나 밑에 컸어도 따로 도와주지도 않아. 하다 안 되니까 친정에서 어머니가 와서 지금 이 집을 마련해줬지. 너거 돈 모아가지고 값으 라고하고. 그 바람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서러웠던지. 그래서 이 양반하고 싸움도 하고 그랬었지.(웃음)

**Q** 처음에 축산에 왔을 때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A** 바다가 똑같고 울산도 바다인데 뭐. 그냥 맘에 안 들었어요. 힘들기만 하고. 중신애비보고 욕을 얼마나 했는데?(웃음) 우째 이런 데다 중신을 섰냐면서. 하여간 그렇게 살림을 시작했어요.



1960년대 축산항 모습

**Q** 살림하시고 바로 일을 하셨다고요?

**A** 나는 나중에는 강구에 가서 일을 했어요. 대계 가공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전에 시집와서 얼마 안됐을 때는 벌이가 시원찮으니까나도 일을 해야지. 그래서 저기 위판장에 가서 고기를 땀어요. 명태 새끼, 노가리 배따고 그랬지. 또 건조장에 말려가지고 그런 일도 하고. 고기를 쏟아 놓으면 서로 자기가 차지하려고 싸움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줌마들이 힘이 세가지고 아휴, 그때 고생한 거 생각하면 말로 다 못해요. 밤에 차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면 가는 거지. 밤도 없고 낮도 없고, 고기가 있으면 늘 한차 가득히 갔어요. 우우, 하고 사람들이 나가는 거지. 서로 일거리 먼저 잡으려고 그랬어요.

**Q** 그때 그러면 또 급여를 어떻게 줬습니까? 돈을 일당으로 줬습니까 아니면 월급으로 줬습니까?

**A** 아침마다 서로 나가고 하니깐 월급으로 못주고 일당으로 줬지. 하루에 먼저 고기배 다 따면 돈 주고, 상자를 받아서 거기 다 채워넣으면 돈 주고. 그랬어요. 한 상자 당 가격이 있었지요. 하여간 다른 지역에서도 이 일을 하려고 많이 왔어요. 위판장에 일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은 좀 더 많이 주고, 우리 같이 그냥 있는 사람은 알아서 적당히 주고 그랬어요. 판자 상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우성도 그런 아우성이 없어. 막 달려들거든.

**Q**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남편분이 식도암 걸러가지고 또 혼자서 벌이를 하셨겠네요.

**A** 그때가 한참 전인데, 그러다가 나는 강구에 대계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나 되겠네. 하여간 그때 노가리를 끝내고 강구 공장에 갔지요. 길이 나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출퇴근 했으니까. 공장에서 버스가 왔어요. 버스가 일하는 사람들 싣고 왔다 갔다 했지요. 아침 7시에 가서



저녁 6시쯤 마치고 왔어요. 야근할 사람들은 야근하고 말이지요. 그때 축산에서 일하러 가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Q** 일을 그만 두신 건 얼마나 됐나요?

**A** 벌써 몇 년 넘었죠. 그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 그 이후로 식당에서 일도 했고, 나중에 식당도 하고 그랬어요. 이 양반이 아파가지고 정치망 그만 두고 그랬었지요.

**Q** 옛날에는 장에 한 번 가시려면 힘들었겠어요.

**A** 버스가 하루에 두 번 밖에 없으니까 영해장에 가려면 힘들었지요. 대신에 반찬거리 작은 것은 부식차가 왔었어요. 그걸로 부식을 좀 사가지고 살림을 살고 그랬지요.

## 안종한·최말선

**Q** 안종한 어르신께 축산은 어떤 곳입니까?

**A** 어릴 때부터 고생하고 살았지만 따뜻한 곳이에요. 사람들 인심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런 곳이에요. 나한테는 고향이고 애들 잘 키우고 살아온 곳이지. 옛날에 고기 많이 날 때는 사람들도 참 많은 곳이고. 아이들한테 더 좋은 거 못해줘서 아쉽지.

**Q** 최말선 어르신께 축산은 어떤 곳입니까?

**A** 처음에 그랬지, 지금까지 잘 살았던 데지요. 잘만 벌면 안 좋은데가 어디 있겠어요?(웃음)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런 데지요. 아이들 잘 크고 잘 자란 데지 뭐. 내가 지금도 사는 곳이에요. 외지 사람들보다 나는 사는 데니까 좋지요. 할아버지는 여기가 토박이고 그래요.





# 김 동 환

축산 1리 주민

129

아버지께서 태어나시기는 영덕에서 태어나셨고, 축산항에서 조선소를 운영하셨습니다. 제가 조선소를 이어서 했으니까, 1대로 조선소를 운영하신 거지요. 아버님은 조선소 기술을 배우기를 일본 사람 밑에서 배웠다고 했어요. 일본 사람한테 기술을 전수 받아서 포항에서 좀 계시다가, 고향이 영덕이다 보니까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축산항에 정착을 하게 되셨지요.

**Q**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1949년에 축산항에서 태어나 조선소를 운영했던 김동환입니다.

**Q** 축산항에서 출생했다 하셨는데, 그러면 부모님 고향도 여기십니까?

**A** 아버지께서 태어나시기는 영덕에서 태어나셨고, 축산항에서 조선소를 운영하셨습니다. 제가 조선소를 이어서 했으니깐, 1대로 조선소를 운영하신 거지요. 아버님은 조선소 기술을 배우기를 일본 사람 밑에서 배웠다고 했어요. 일본 사람한테 기술을 전수 받아서 포항에서 좀 계시다가, 고향이 영덕이다 보니까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축산항에 정착을 하게 되셨지요.

**Q** 조선소의 위치는 어디였지요?

**A** 조선소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저기 지금 북쪽으로 돌아가는 해안도로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름은 ‘한일 조선소’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물려받고 50년을 운영했고, 또 저하고 쪽 같이 일하던 동료 직원에게 인수해 줬던 게 22년도 10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은퇴를 했어요.

**Q** 아버님 시절 조선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A** 축산항에서 쓰는 배도 만들었고, 또 건조한 배들이 외지로도 많이 나갔어요. 일제 때부터 다루었던 배는 주로 목선을 취급했지. 저도 아버님 시대부터 이어받고 어느 정도까지는 목선을 취급했었어요. 그러다가 이후 조선 환경도 바뀌었고, 한 30년 정도는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선박을 취급했어요.



1962년 축산항국민학교 졸업사진



1960년대 축산항 진수식

**Q**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선박은 어떤 겁니까?

**A** 몰드(주형, 틀)를 먼저 만들어 만드는 배로 소재가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폴리에스터 수지에 섬유 등의 강화재로 혼합한 플라스틱)로 이루어진 배를 말합니다. 소형 어선이 주로 FRP 선박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Q** 조선소가 축산에 있으니 활동도 주로 이곳에서 하셨겠어요.

**A** 축산항에서도 그렇고 건조해서 외지로도 많이 나가고 그렇게 했지요.

**Q**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이 조선소를 하시니까 그 때 자연스럽게 일을 좀 배우셨겠네요?

**A** 그랬지요. 17살 때부터 아예 조선소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Q** 조선소에서 일하기 전에 다른 꿈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A** 그런 건 없고, 당시에는 아버지가 조선소를 하니까, ‘아버지 기술을 전수 받아야겠다’하는 생각이 컸었죠. 옛날 그때는 뭐 다 뒤를 잇고 했으니까.

**Q** 어린 시절이라 힘든 것은 없었습니까?

**A** 당연히 힘들었죠.(웃음) 우리 조선소에 일하는 목수들이 한 20명쯤 있었으니까. 20명 모두 숙식 제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이 좀 들었지. 일을 배울 때도 20명이 넘는 기술자들 뒤에서 잔심부름을 해야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 경우에서 지적받을 때도 있고, 좀 우사를 당할 때도 있고, 뭐 그런 시절이었지요. 그런데 또, 뭐 섭한 경우가 있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버티고 막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아버지 밑에서 기술을 전수 받아 나간 거지요. 그렇게 배워나가면서 조선소 일이 내 일이 되어 갔고요.

**Q** 그렇게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조선소에서 보내셨는데, 조선소 일에 대한 보람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131

**A** 선박을 다 만들어서 선주한테 인수인계했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죠. 또 그렇게 선박 진수식 할 때 느끼는 느낌도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고. 또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는 내가 직접 설계를 배워서 배를 만들었을 때 또 보람이 있었지요.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서 정부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으로 내가 책임을 맡아가지고는 25톤짜리 네 척을 만들어 진수식을 했었어요. 그때 도지사까지 오고 일도 보람도 참 컸었지요.

**Q** 그때가 어느 정도 시기일까요?

**A** 한 1975년쯤 될 거예요. 내가 군대갔다 제대하고 나서 책임 설계해서 진수식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결혼도 했구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기술 배운 거 하고 내가 배운 거 하고 이제 기술 합작이 되는 거지. 설계 등등 기술 접목이 되니까, 옛날보다 공정도 빨라지고 선박도 더 견고해지고 선형 모양도 달라졌어요.

**Q** 축산항이 한참 전성기를 맞을 때와 시기가 맞물리는군요.

**A** 그때 쥐치, 쥐고기가 한창 날 때지요. 축산에 배가 몰리다 보니까, 우리 조선소 배 만들새가 소문이 나서 강원도 삼척에서도 배를 주문할 만큼 바빠졌어요. 이제 배도 모양이 좋고, 짐하고 고기도 많이 적재한다는 소문이 났지요. 하여튼 이 부근 어장의 선박들은 우리 조선소 배가 많았어. 목수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공정이 빠르거든.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척 정도 계속 만들 정도였어요. 목수들하고 기술자 20명이 달라붙었으니까. 울릉도에 거주하는 목수도 오고.



**Q** 축산항이 전성기를 누릴 때의 모습이군요. 당시 잡혔던 어종들이 생각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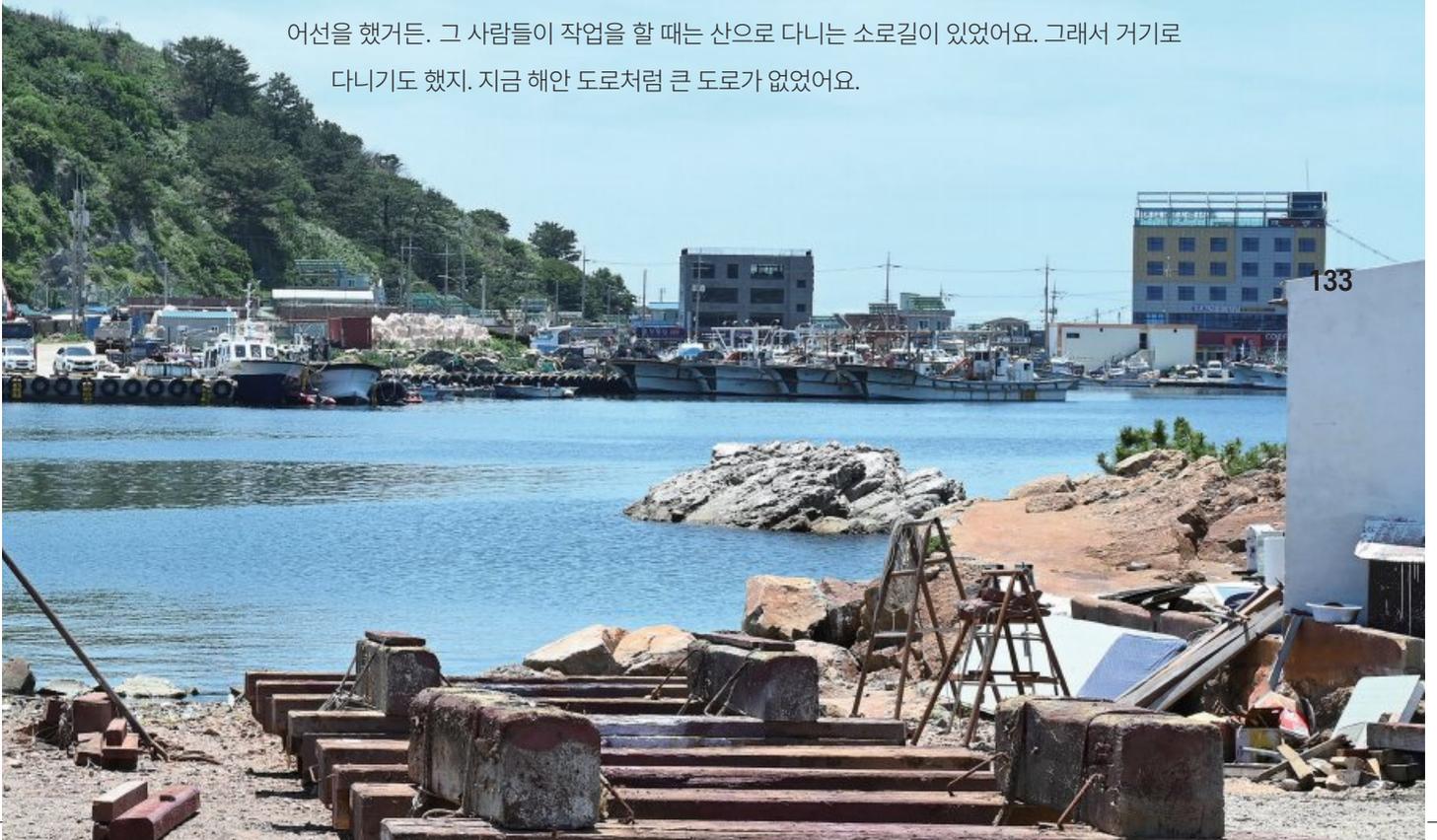
**A** 그때 여기 분위기가 좋았지. 고기들도 많이 나고. 쥐치, 콩치, 오징어 이런 어종이 주로 잡혔었지요. 다른 지역 어선들도 전부 이리로 들어와가지고, 배들이 항구에 정박하면 다 못 대니까, 배들이 한 줄로 쭉 정박하면 그 뒤로 또 한 줄로 정박하고 그 뒤로 건너 건너... 그렇게 배를 댈 때였으니까. 부산 배도 많고, 강원도 배도 많았고. 이제 고기들이 동해안을 타고 남해로 빠져나가니까 배들도 따라 다녔거든요.

**Q** 그러니까 거의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를 넘어 90년대 정도까지는 축산항은 그때가 가장 전성기라 볼 수 있겠네요.

**A** 그렇지요. 어판장에는 미처 처리하지 못한 고기들이 쌓여 가지고 냄새가 말도 못할 정도일 때도 있었지요. 지금 같으면 기술이 좋고 교통이 좋아서 처리가 됐을 텐데, 당시만 해도 그렇지 못했지. 너무 많이 잡혀서 쌓이면 난리도 아니야. 나중에는 개도 물고 다니고, 고양이도 물고 다니고.(웃음)

**Q** 당시만 해도 도로사정이 썩 좋지 않았겠군요.

**A** 그렇지요. 이제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보니까 도로가 그렇게 많이 뚫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도로는 거의 뚫리지 않은 상태고 지금 강축도로, 그러니까 강구에서 축산가는 도로, 해안도로도 없었고, 7번 국도를 타려고 하면 저기 대진해수욕장까지 가서 국도를 타야 됐었지. 그때 당시에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해안 쪽으로 작은 소부락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어선을 했거든.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할 때는 산으로 다니는 소로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다니기도 했지. 지금 해안 도로처럼 큰 도로가 없었어요.



**Q** 그러면 조선소에도 수많은 자재라든지 재료가 들어왔을 텐데 어떻게 날랐습니까?

**A** 부산에서 거래를 했어요. 어릴 때부터 얼마전까지도 거래를 했었는데, 부산 엄궁동에 태평목재라고 있어요. 거기에 거래를 하면 항상 차로 여기까지 배달을 했어요. 한참 바쁠 때는 정신없이 추레라가 왔다 갔다 했지.

**Q** 그렇게 조선소 운영하시면서 가진 기술을 알려주는 제자, 그러니까 도제 관계도 있을 것인데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A** 작년에 제가 은퇴를 했었어요.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선소는 내가 가르친 제자가 운영하고 있어요.(웃음) 옛날 이야기지만, 조선소에 그 친구가 나이가 어릴 때 들어왔어요. 한 열다섯이나 됐나? 초등학교 마치고 진학을 하지 않고 조선소로 왔으니까. 그때 당시 참 어려웠어요. 그때 우리 공장에 보면 상호 자체가 한일 조선 철공장이라고 철공소도 있었어요. 선반하고 용접하고 그런 일을 했지. 그 형제가 큰 형은 철공 전문가고, 동생은 목선할 때 배가 전문이고 그랬지. 그 형제를 키우다시피 같이 지냈어요. 그러다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면서 장례까지 같이 다 치루고... 그렇게 같이 쪽 일을 같이 하며 지냈던 거죠. 그렇게 지나다가 작년에 내가 나이도 있고 해서 진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니까 찾아와서 우리가 운영해 보겠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조선소는 제자가 운영하는 거예요.

**Q** 그 형제분들도 축산 출신입니까?

**A** 축산이 고향이지. 평생 축산에서 일한 거지. 나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Q** 축산이라는 지역을 잘 상징하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이제 축산의 현재 모습을 말할 때가 됐는데요. 현재의 축산은 전성기보다 좀 줄어든 느낌이 있습니다.

**A** 왜냐하면 고기 어종이 확 줄었으니까. 생산이 줄었을 때 자꾸 이제 선박도 줄고 그렇게 되는 거지. 선박들도 가치가 자꾸 하락될 수 밖에요. 고기가 생산이 많이 되면 활성화가 되는데, 어족 자원이 자꾸 줄고 그러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 게 뭐냐 하면 배를 이제 정부에서 사들이는 거지요. 한 척, 한 척 선령이 많은 위험이 있는 선박부터 줄여가는 거지. 그러면 허가도 자꾸 줄고 그렇게 되겠지요. 어업 자체가 자꾸 사양길에 접어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악순환이 생기지요. 한참 좋을 때 여기 정박 중인 배가 200척이었다면 현재는 100척 정도 밖에 안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선박 조선도 줄어들고, 수리도 줄고, 부수적인 철공일도 줄고, 선박에 필요한 선구 자재도 줄고... 모든 것이 이제 힘이 떨어져가는 거지요.

**Q** 어린 시절부터의 이야기와 특히 조선업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에 감사드립니다. 나고 자라고 일하신 곳이 바로 이곳 축산인데요. 김동환 어르신께서 생각하시는 축산은 어떤 곳입니까?

**A** 글쎄요. 축산은 내가 살고 태어나고, 지금도 살고 있으니 좋은 집 같은 곳이지요. 설혹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더라도, 지금까지 잘 살고 이렇게 잘 보냈으면 여기만치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몰라. 나하고 잘 맞았으니까 지금까지 남들하고 잘 살아온 거겠지. 지금까지 별 사고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나한테도 고맙고 자랑스럽고, 축산이 자랑스럽고 고맙지요. 그래서 나를 고향에 대해 봉사하며 살아왔어요. 소방대원으로 들어가 소방 대장도 33년인가 했고, 파출소에 운영위원장도 했었고, 또 방범대장도 한 30년을 했고, 영해예주 라이온스 클럽도 창립 멤버로 한 20년 했지.

**Q** 봉사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A** 옛날에는 파출소 직원들이 부족해가지고, 방범 대원들이 많이 돕고, 음식도 해서 나누고 그랬었지요. 7번 국도에 교통사고 나면 우리가 나가서 일 처리도 하고. 또, 산불도 나면 비상으로 모여서 불도 끄고... 그래도 사명감도 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좀 했었어요. 이제는 나이 들어가지고 뭐... (웃음)



공사를 위한 주민들의 블록 운반



# 권 호

축산 2리 주민

137

내가 여기서 60년을 살았고, 또 다 아는 사람들 있고, 내가 도울 어르신들 찾아다니며  
돕기도 돕고 그런 곳이지요. 또 우리 애들 다섯 명, 그래도 잘 키워서 잘 자란 곳이기도  
하구요. 젊은 청년들이 지금 우리들 다 잘 도와주고. 서로 서로 돕고 협조하면서 사는  
곳이에요. 나에게 정말 고향이고 편한 곳이지요. 그래도 우리 위주가 아니고 젊은 사람  
위주가 돼서 희망이 더 있는 곳이면 더 좋구요.

Q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호적상에는 48년생으로 돼 있고, 본 나이는 47년생, 이름은 권호입니다.

Q 원래 고향은 어디이신가요?

A 원래는 안동 출신이에요. 축산 2리 이 부근에 안동 출신이 많아요. 안동에서 여기로 시집을 왔지요. 내가 지금 78살인데, 스무 살에 여기 왔으니깐 딱 58년을 살았어요.

Q 안동에서 꽤 멀리 오신 건데, 처음에 이곳으로 오셨을 때 인상이 어땠습니까?

A 여기 처음에는 오니까 나무가 무성하고 숲이 있는데 집이 숲 속에 있었어요. 초가집에 드문드문 집이 있고... 좀 놀랐지요. 말그대로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말도 못해요. 아휴, 그렇다고 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집오고 나니까 혼자 계신 시아버지도 있고, 엄마 없는 조카들도 있고. 우리 아저씨가 나 시집 오기 전에 아들 하나 낳아놓은 것도 있고... 이런 곳에 내가 와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 와서 살았던 셈이지요.



1950년대 축산면 축산리(보리베기)

Q 도로가 있긴 하지만 지금도 산속 깊이 있는 느낌인데요, 처음 시집 올 당시의 모습을 조금 더 이야기해 주세요.

A 처음 올 때가 70년이 안 됐을 때니까, 67, 68년 이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는 정말 아무 것도 없고 숲에 집이 한 채, 다른 집도 한참 가야 될 정도로 띄엄띄엄 그랬었죠. 도로도 없었고, 현재 이 자리도 논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여기 올 때 차를 타기는 탔는데, 도로가 비포장이지. 또 많이 걸어다녔어요. 차도 한 번씩 다니고, 버스도 하루 세대? 네대? 그렇게 잘 안 다니어요. 지금은 살기 좋죠. 시간마다 버스도 다니고.

Q 축산하면 바다 끼고 있는 동네라지만 축산 2리 이곳은 또 바다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A 그렇죠. 우리 마을에는 아직까지 여는 배를 탄 사람은 못봤어요. 여긴 산골이고 초원이니까. 아예 농촌이죠. 농사 위주로 짓고 살았어요. 주로 벼농사를 짓지요. 그것도 자기 농사가 아니라 남의 농사, 소작 짓고 그랬어요. 우리 집도 몇 년 전엔가 겨우 논도 사고 해서 우리 농사 짓는 거지. 옛날에는 대부분이 소작이라.

**Q** 어려운 시절 힘든 것들이 많았겠어요.

**A** 이거 참 소설 쓴다는 사람 앞에서 더 소설 같은 이야기가 많아요. 가난한 동안에 초가집 그거라도 있다고 애들데리고 다 같이 사는데 조카가 장가간다고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쫓겨나서 남의 집에 세 살다가 또 쫓겨나고... 그래서 예비군 초소에 가서 살기도 했어요. 진짜 이런 얘기는 말로도 다 표현 못해. 나는 5남매를 낳으면서 병원은 커녕 미역국에 이밥 한 번 먹어보지 못했어요. 참 어려운 세월이었어요.

**Q** 힘들어도 생계를 위해 열심히 사셨습니까.

**A** 이래저래 온갖 일을 해도 가난을 면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문중 위답(문중 제사를 위한 경비를 마련하는 문중의 토지)을 부쳤는데, 그걸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는 집에서 술장사, 밥장사를 해서 살림을 이어갔어요. 사람들 다니는 도로에 있으니까 집에서 장사를 한 거지. 우리 아저씨도 같이 했었지만, 아저씨가 34년 전에 고인 됐어요. 그 뒤로 제가 오남매 데리고 살았어요. 그래도 그 장사해서 집도 다시 올리고, 논도 일곱 마지기로 좀 사고 그렇게 애들 가르치고 키우고 했었어요.

**Q** 자제분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A** 내가 낳은 자식이 5남매입니다. 아들 셋 딸 둘, 5남매이구요. 지금 큰아들은 GM대우 다니고 있고, 창원에 아들 셋이 다 있고, 막내딸은 대구에 도로공사에 팀장으로 가 있고, 큰딸은 창원 농협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제는 사는 게 넉넉해졌어요.(웃음)



**Q 남편분이 일찍 떠나셨네요.**

**A** 우리 아저씨가 포항에 포항제철 노조에서 일했었어요. 거기서 한 2년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치료를 한다고 침을 맞았는데, 그게 간을 건드려버렸어요. 그 바람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렇게 화장을 하고 나니까 먹고 살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술장사, 밥장사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는 보험일도 했었어요.

**Q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셨다 들었습니다.**

**A** 보험설계사를 한 15년 했어요. 마을 부녀회장도 한 15년 했구요. 3년 임기를 다섯 번이나 했지.(웃음) 하여간 보험설계사는 50이 다 돼가지고 했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보험왕도 해봤고, 월급을 990만 원까지 타 봤어요.(웃음) 처음에 보험설계사를 시작했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도 좀 나고 경쟁심도 있고 해서 시험을 쳤지요. 그때 딸이 영덕경찰서에 있었는데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어요. 처음에는 떨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점장이 축하도 하고 그랬어요. 그 뒤로 더 열심히 했었는데 최고로 찍었던 게 월급 990만 원 받았을 때야. 그때 너무 기뻐했죠.

**Q 축산 2리의 인구는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A** 다른 데 비슷하죠. 예전보다 발전은 됐어도 인구는 훨씬 줄었지. 호수가 73호는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50가구 밖에 안 돼요. 우리 있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겠지만 줄긴 줄었어요. 집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몇 채, 조금 더 가다보면 몇 채. 이런 식으로 집들이 있어요. 그래도 같은 동네 사람이라 다 소통하고, 다 아는 사람이지. 친가 아니면 사돈에 팔촌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있어도 서로 좀 도와주고 그랬지요.

**Q 주민들 간에 사이가 많이 좋았겠어요.**

**A** 지금은 노인들이 많지. 지금도 우리 동네 최고 고령자가 96세예요. 연세 많은 어른들이지만 그래도 자전거 타고, 낚시 다니고 막 이리면서 잘 다니셔요. 사실 농가에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들 먹을 거나 생기면 직접 찾아가서 갖다 드리고 그래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잘 해요. 또 젊은 청년들이 어른들을 잘 모시고 잘 하니깐. 동장님이나 청년회장 이런 분들도 잘 해요.

**Q** 안동이 고향이라 하셨는데 축산 2리에 안동과 연유한 성씨도 많고, 역사도 제법 있다고 들었습니다.

**A** 안동김씨, 안동권씨, 서산김씨, 서산주씨, 평산신씨 등 쟁쟁한 성씨가 많이 있어요. 또 여기에서 산주씨나 서산김씨나 평산신씨 제공이 있어요. 여기가 촌이지만 양반 동네라고 했어요. 이 앞에도 열두 칸 기와집이 있었는데 불이 나서 타 버렸지요. 거기가 효자비가 있는 거기거든요. 지금은 효자비 있는 데만 남아 있어요. 저게 도로공사 한다고 다시 올려준다고 해놓고서는 지금은 세월이 지나니까 책임이 서로 없다고 저렇게 방치가 됐어요. 저게 나라에서 인정했던 양대 효자비거든요. 그때 처음부터 일찌감치 복원하게 했으면 저렇지는 않았을 텐데 싶어요.

**Q** 축산 2리 학생들의 교육은 어땠습니까?

**A** 초등학교는 거리가 좀 있어도 축산향 초등학교에 다녔었지요. 중학교도 축산 중학교 갔고. 고등학교는 이제 영덕도 다니고 영해도 다니고 그랬지요. 우리 애들이 다닐 때는 그래도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여기 애들도 꽤 됐구요. 여기 버스 한 대가 오면 꼭 찾아요. 그걸 억지로 타고 다니고 했지. 지금은 버스가 많이 비어 있지. 큰 애가 오십 여섯이니까 이것도 옛날 얘기죠.



축산향초등학교 교실

**Q** 남편분이 축산향에서 일도 하셨다구요.

**A** 그게 뱃일은 아니고 백암온천에서 백들을 시켜가지고 일본에 수출하는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큰 배가 와서 며칠 작업하고 그랬지요. 그게 우리 큰애가 세살 때 쯤이니까 50년 다 된 이야기네. 내가 시집 오니까 그 일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때 우리 아저씨가 그 일 책임자로 일하곤 했었어요.

**Q** 이 곳 분들이 축산향으로 가서 일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까?

**A** 예전에 1970년대나 오징어 많이 나고 할 때는 이쪽 사람들도 거기에 일하러 많이 갔지요. 오징어 말리고 고기배 따고 그런 거. 나는 별로 간 적이 없는데 그 당시에 여기 논주인 대부분이 경정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논이 없으니까 일하러 가곤 했지. 축산 2리 부잣집이라 해도

논 열마지기 정도 그랬을 때예요. 어쨌든 새벽에 가서 8시나 돼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밤 10시까지도 일하고 올 때도 있었던 거 같아요. 버스가 가니까 그걸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는 밥을 싸가지고 가다가 나중에는 나아져서 거기서 밥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때도 일당이 크지는 않았다고 들었어요. 주로 위판장 말고 개인집에서 하는 데서 했었어요.

**Q** 예전에는 이 부근에 수해가 많았었다고 들었습니다.

**A** 수해 많이 졌지요. 한번은 저 앞에 500년 된 당산나무가 있었는데 거기부터 터져가지고 물이 다 고이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요앞에 고랑이 있었는데 터져서 우리집까지 물이 다 고이고 그랬었지. 아까 효자비 있던데 제당이 다 무너지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인이 사는데니까 복구가 다 됐는데, 제당 이런 데는 그래서 아직 그대로예요. 비가 많이 오면 산에서 물이 팔팔 쏟아지니까 이 근방으로 다 모여버리거든. 그러니까 물이 팍 차서 안 내려가면 이런 난리가 없어요. 그러다가 2,3일 있으면 싹 빠져버리거든요. 비 많이 오면 근방 어른들한테 모여 있으라고 마을 청년들이 다니고는 했지요.

**Q** 축산 2리가 주로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또 다른 분야는 어떻습니까?

**A** 우리 마을 청년들은 다 농사를 지으면서 소를 많이 먹어요. 가축을 많이 키우지. 청년들이 한 열 명 되는데, 모두 소를 키워요.

**Q** 축산 2리 주위에 숲이 많은데 관계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습니까?

**A** 예전에는 여기에 호랑이도 한 번씩 나온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숲이 깊었어요. 저기 숲에 할머니 한 분이 사셨는데, 시골에 살다보면 나물을 하잖아요. 그 나물 말리고 하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뭔가 큰 게 있더라네. 그게 호랑인지도 모르고 가다가 노인이 나중이야 알았던 거지. 그 바람에 놀라서 집에 바로 달려갔는데, 놀란 가슴에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그래도 집까지 돌아와서 가셨지. 그때 보니까 알록달록한 고양이 같은 새끼도 같이 있었더라네. 또 내가 젊을 때인데 나도 호랑이를 봤어요. 그때 첫 애 낳아놓고 세 살쯤 됐을 텐데, 우리 아저씨가 축산항에 노가다한다고 새벽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수를 좀 삶아달라고 하더라고. 집이 요 위에 있으니까 국수를 삶아서 내려오는데 길이 좁은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산채 만한 게 슬슬 걸어오는 거예요. 겁은 나는데 호랑이보면 정신차리라는 얘기가 생각이 나서 눈을 똑바로 뜨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게 숲으로 빠져서 달려가는데 눈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싹싹

멀어지는 거예요. 그길로 장사집으로 도망가서 앉아 있으니까 아저씨가 날 찾아 왔더라고. 아휴,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저기 군부대가 근처에 있으니까 봉화산 숲에 산짐승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Q** 현재 노인회관에서 어르신들이 잘 지내시는 거 같습니다.

**A** 우리 회관에서 밥도 해먹고, 사람들이 와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두 끼 다 먹고 놀다 가지지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청소 다 해놓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모시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마을에도 빈집이 많아요. 사람들이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이제 시골에 사람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가구도 점점 줄고 그렇게 나중 생각하면 가슴이 시리지.

**Q** 어르신께 이곳 축산 2리는 어떤 곳입니까?

**A** 내가 여기서 60년을 살았고, 또 다 아는 사람들 있고, 내가 도울 어르신들 찾아다니며 돕기도 돕고 그런 곳이지요. 또 우리 애들 다섯 명, 그래도 잘 키워서 잘 자란 곳이기도 하구요. 젊은 청년들이 지금 우리를 다 잘 도와주고. 서로 서로 돕고 협조하면서 사는 곳이에요. 나에게 정말 고향이고 편한 곳이지요. 그래도 우리 위주가 아니고 젊은 사람 위주가 돼서 희망이 더 있는 곳이면 더 좋구요.

축산 2리 마을회관 전경





## 오 장 을

축산 1리 주민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원래 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앞에도 그렇게 재산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이들 교육과 여러 부분을 보고 여기 왔지만, 단칸방에서 우리 가족 다섯 명이 3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저 밑에 방을 두 칸을 얻어 거기서 몇 년 살다가, 제가 80년도에 이 집으로 시작해서 쪽 지어서 옮기고 했지요. 여긴 2000년도에 준공을 했었지요. 그렇게 지금처럼 가게 하고 2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올해 80살이고 이름은 오장율, 건재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축산항으로 오신 것은 언제쯤이지요?

**A** 제가 젊은 시절 축산면 대곡리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하다가 여기에 인맥이 있어서 이사를 왔습니다. 기억이 좀 희미한데 여기 온 지는 한 45년에서 50년 가까이 돼요. 70년대 초에서 중반 무렵에 왔으니까.

**Q** 이쪽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A** 대곡리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했는데, 사실 큰 비전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들 교육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는 모든 걸 버리고 축산항 쪽으로 왔지요. 그때 새마을 사업 한창 할 때, 건재상이 참 활기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축산항 부근에 건재상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 여기로 들어왔던 거죠.

**Q** 운영하시는 건재상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A** 이 건재상은 그때 새마을 사업할 때, 집을 개조하고 수리하고 지붕개량하고 이런 걸 많이 했죠. 제가 그때는 이 지역에 동장, 새마을 지도자, 뭐 이런 분들만 알고 들어왔었어요.



1975년 11월 축산항

**Q** 당시에 개발되지 못한 집이나 마을의 모습을 얘기해 주십시오.

**A** 캄캄했죠. 지역이 캄캄했어요. 저기 신기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기는 바닷물이 올라 갔다 내려갔다 하는 암반만 있었지 집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길이 다 포장됐죠? 그때는 회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그 회관도 짓고 했습니다. 새마을 사업 인맥이 있으니까. 또 저기 저편을 보면 사료 공장도 있어요. 경상북도에서 두 개인데 여기 지은 거죠.

**Q** 그때 새마을 개발 사업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가요?

**A** 제가 이곳의 문제점이 뭔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물로써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축산면 지품 경계선으로 물이 전부 다 이곳으로 모이고, 또 영덕 지역에 물도 여기 온단 말입니다. 만약 강우량이 많아 물이 넘으면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천은 이미 감당하는 양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당시 동장과 새마을 지도자분과 함께 상의를 했었어요. 여기는 수해를 피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물을 우회를 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때 8월 무렵에 큰 태풍이 와서 또 물이 넘고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 연구를 했었어요.

**Q** 이곳의 지리와 연관해서 수해 방지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셨네요.

**A** 네,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파출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조금 가면 올라가는 산이 나오는데, 이걸 뚫으면 거리가 약 250m가 돼요. 당시에 1m에 공사비 천만 원 정도 잡으면 약 25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걸 뚫자고 했지요. 그런 걸 제시했더니 어른들이 안 된다고 반대를 해요. 왜 안 되느냐? 평상시에 들어온 물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영덕군의 병곡면에 가도 한 동네 물을 전체를 돌려가지고 흡수를 시켜 놓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도 어른들이 반대하니 일이 추진이 안 됐죠.

**Q** 그 이후에도 관계된 이야기가 더 있다가요?

**A** 거기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축산항으로 들어오는 이쪽에 다리가 있습니다. 저 다리 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보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저 다리는 낮습니다. 저기 주유소 있는데 축산교를 이야기 합니다. 저 다리 자체가 정말 암입니다. 전국에 지형이 불안정해져서 포항 지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사태나 재해가 흔한 판에, 물이 넘쳐 오면 낮은 다리가 침수되고 실려온 나무나 불순물에 의해 물이 넘치는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건의를 했더니

군에서 담당 과장하고 직원들이 나왔죠. 저기 주유소 앞에는 전에도 물이 넘쳐서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다리가 낮으면 안 된다. 다리를 높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담당하고 그때 군의원 등등 도로도 같이 높여야 해서 안된다는 거야. 이게 백년대계로 해야 하는 사업인데 말이죠. 이게 저번에 사고가 터졌던 제2의 연천담 사태도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었죠.

**Q** 이게 그래도 노력을 해서 피해를 좀 막았다고 들었습니다.

**A** 3년 전에 태풍 콩레이가 왔을 때 난리가 났어요. 우리 가게도 물이 다 들어왔어요. 축산교 말고 저쪽 뒤에 낮은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때 콩레이 때 물이 많이 내려왔는데 부근에 잡초하고 나무가 같이 떠내려오면서, 다리에 다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옆에 들판으로 빠져나와 범람을 했었죠. 저기 축산항 앞까지 다 범람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더 많은 물이 넘쳐 들어와서 축산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더 거대한 양의 물이 고이면서 엄청난 피해를 줄 거란 말이죠. 이 부근은 초토화 될 거란 말이지요. 하여간 그때 축산교도 낮긴 낮지만 조금은 설계보다 높였었던거든요.

**Q** 아까 수해 방지를 위한 계획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반영이 됐다고요?

**A** 네, 군수까지 찾아와 이야기하고 했었지만, 산을 뚫어 250m 수로를 내는 내용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반대였어요. 결국 저희 얘기가 조금 반영이 돼서, 지금 파출소



축산항 이화장씨 집 곡선 하수도 공사

부근에 펌프장을 만들었어요. 범람하는 물을 펌프로 퍼낸다는 논리인데, 저는 솔직히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Q** 이제 축산항의 예전 모습, 처음 오셨을 때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A**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원래 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앞에도 그렇게 재산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이들 교육과 여러 부분을 보고 여기 왔지만, 단칸방에서 우리 가족 다섯 명이 3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저 밑에 방을 두 칸을 얻어 거기서 몇 년 살다가, 제가 80년도에 이 집으로 시작해서 쪽 지어서 옮기고 했지요. 여긴 2000년도에 준공을 했었지요. 그렇게 지금처럼 가게하고 2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Q** 처음 오셔서 집을 짓기도 하고 지붕 개량도 하고 새마을 운동으로 집과 관공서 등을 새로 짓고 하셨는데요. 그때 생각나는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A** 우선 우리 동네의 실정이 어땠냐면, 여성분들의 모습이 생각나요. 그때 까치고기라고 있었어요. 제가 촌사람인데 바다 물정을 알아야 말이지. 그런데 저 까치고기를 무더기로 쌓아놓고 부인들이 열러가지고 말려요. 그 속에 내장하고 다 빼내가지고 그걸 새벽부터 하고 있는데, 일하다 늦게 저녁에 오면 밤 12시까지 그 까치고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침에 일한다고 나가면 새벽 5시부터 일을 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하루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씻고 자면 돼요. 부인들은 하루종일 일을 하고 또 집안일을 한단 말이지. 저분들은 과연 잠을 몇 시간이나 주무실까? 존경심이 들어. 참 이 나라의 역군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Q** 그 외에 또 공사 관련해서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십시오.

**A** 제가 사실 집수리를 하면서 나중에 영덕 울진간에 보일러협회 영덕군 협회장을 했습니다. 원래 집을 지으면 법률상으로 집 준공 검사의 서류가 설비 내역 그림을 다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행정이 복잡하다고 잘 안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집은 주인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집의 수도관이 어디 있는지, 하수관이 어디 있는지 그걸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나중에는 제가 법령을 가지고 싸웠었어요. 군청의 건설과장 하고도 싸우고 그랬었지요. 주인이 바뀌어도 그 집의 자세한 구조를 알아야 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서 그건 노력 끝에 나중에 시행이 됐어요. 그게 80년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Q** 처음에 75년도쯤에 축산에 오셨다고 했는데, 주변 이웃들의 반응이나 인심은 좀 어땠습니까?

**A** 그때는 내가 알아서 잘 했었죠. 노인분들은 그랬어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왔을까? 자기가 계속 살던 곳에 있는 분들은 또 다른 곳을 더 선망하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이곳에 희망을 더 품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고 꿈과 설계를 가지고 이곳으로 왔었죠. 저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뛰고 봉사하고 일하고 했었어요. 나중에는 나도 이곳 사람이 되었는데 거지요. 축산향 후원회도 오래 했고 중학교 육성회도 3년인가 했었어요. 방법대장도 4년 했고, 지금은 나이들어 경로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Q** 어르신께 축산은 어떤 곳입니까?

**A** 말 그대로 바깥에서 이곳으로 왔지만, 이곳에서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지요, 고향은 원래 태어난 곳이 고향이지만, 이곳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잘 살면 또 고향 이웃이 되는 거지요. 축산은 곳곳에 내 손길과 노력이 묻어있는 내 터전이자 고향이 된 곳이에요.



Q 축산이 약간 침체됐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까요?

A 우리 지역에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려면 나 자신이 이곳을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나 자신과 이곳 주민들이 먼저 능동적인 아이디어와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개선해 나가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 박달봉

축산 1리 주민

153

축산항이 개항되고 한국전쟁으로 판자촌이 생기면서 집들이 계속 늘어갔어요. 물양장 있는 쪽이 원래 모래사장인데 그 커브 머리에 원래 일본 사람들 적산 가옥이 있었거든요. 왜정 때만 해도 재력가들이 모인 거지. 그게 목조로 있었는데 이제 다 철거를 했죠. 그 자리에 건물이 서고 물양장이 생긴 거지. 그렇게 마을 모습이 형성됐어요.

**Q**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47년생이고 현재 나이는 일흔여섯. 이름은 박달봉입니다.

**Q** 축산항 출생이십니까?

**A** 저는 원래 여기서 태어났다가 경남 통영에 어릴 때 한 2년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아버님이 통영 출신이십니다. 어머니는 축산 출신이시고.

**Q** 어릴 때 축산의 기억이나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A** 제가 얘기 듣기로 왜정 시대 때 이곳에 정어리가 참 많이 낚었다고 해요. 그때 견착선이라고 지금 말하면 봉수망과 같은 방식이죠. 그 견착선이 정어리떼를 따라 다니는 거죠. 여기서도 그 정어리가 엄청 잡혀 가지고 일본이 그 기름을 짜서 저장하던 기름 저장고가 여기 있었어요. 저쪽 신기 마을 돌출 부분에 그게 있었는데 한국전쟁 때 비행기 폭격으로 싹 없어졌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런 정어리 잡는 견착선 업주였는데 축산에 왔다가 어머니와 인연이 되어서 결혼을 하신 거죠.

**Q** 기름 탱크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A** 우리 어릴 때는 아기니까 그런 사실은 모르고 그냥 놀러 가는 거지. 탱크 속을 보면 폭격을 맞아서 구멍이 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아, 하고 소리를 치면 막 울려. 그 재미로 맨날 거기 가서 놀고 그랬었죠. 탱크가 있는 신기마을이라는 데가 내가 와우산 쪽에서 내려가면 있었죠. 지금은 탱크가 없어졌지요. 신기마을이 형성된 게 우리 어릴 때는 집이 한두 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1950년대 지나면서 피란민들이 내려와서 정착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항구 주변도 그전에는 백사장이었어요. 이게 돌이 몇 개 있고 그랬는데, 어릴 때는 우리가 자맥질을 해서 말치라는 해조도 뽑아 먹고 창질도 하고 그랬어요. 심지어 전복도 나와 있었어요.

**Q** 여기 항구가 생겼던 유래가 금광 때문이란 설도 있던데요.

**A** 왜정 때 저기 도곡리 연명사 안으로 들어가면 금굴이 있었다고 해요. 금광석을 일본 사람들이 신고 가야 하는데 항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어리 기름도 가지고 가야 되고, 광석도 신고 가야하니까 일본인들이 여기에 항구를 만들었던 거죠. 지금은 쪽 뺀어서 죽도산 까지 가지만 예전에는 중간이 냇가로 뚫려서 여기 건너 저기 건너였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모래사장이 형성됐었지요. 그러니까 저쪽 죽도산 쪽은 섬이었지요.



**Q** 방파제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A** 현재 냉동 수협 냉동공장이 생기니까 여기 파도가 이어치지 않도록 하나 만들었던 게 지금 다시 이어 붙이고, 배가 많아지니까 또 이어붙이고 해서 지금 모양이 됐지요. 처음에는 순수 일본 기술로 만들었고, 그 이후에 드문드문 공사를 이어갔어요. 등대있는 곳은 한국 기술자가 설계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가 잘 무너졌어요. 그렇다고 기술이 모자란 건 아니고, 여기 파력이 훨씬 심해서 그래요. 일본 사람 만든 데는 파력이 약한 곳이지. 방파제가 지금 모양으로 되어서 파도도 막고 배들이 원활하게 나가는 거죠.

**Q** 방파제 있는 곳과 아까 신기마을 말씀 하신 곳이 남씨 유래지라고요.

**A** 중국의 남씨 영암 영희공이 풍랑을 만나 파도에 밀려서 여기 왔단 말이지요. 이 부근에 아까 말한 대로 집이 몇 채 없었어요. 여기를 원래 통수골이라 불렀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걸 말장난으로 통수골이라고 불렀어요. 약올린다고. 그때 거기서 개도 많이 먹이니까 개똥도 많고 그랬거든요.

**Q** 마을이 형성되는 모습을 다 목격하셨겠습니까.

**A** 축산항이 개항되고 한국전쟁으로 판자촌이 생기면서 집들이 계속 늘어갔어요. 물양장 있는 쪽이 원래 모래사장인데 그 커브 머리에 원래 일본 사람들 적산 가옥이 있었거든요. 왜정 때만 해도 재력가들이 모인 거지. 그게 목조로 있었는데 이제 다 철거를 했죠. 그 자리에 건물이 서고 물양장이 생긴 거지. 그렇게 마을 모습이 형성됐어요.



**Q** 축산에 옛날 만호성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A** 지금 축산 1리 있는 이 부근이 다 모래사장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까지 물이 들어 왔다는 거지. 우리집 바로 이쪽으로 커다란 돌이 쌓여서 성을 형성했었어요. 저기 저 돌이 그 중에 하나이지. 돌이 굉장히 커요. 포크레인이 들지를 못해. 그게 워낙 크니까 뒷집 저쪽에는 그걸 묻어놓고 집을 지었어요. 우리집 창고를 통해서 저쪽으로 보면 아직 성줄이 남아 있어요. 여긴 제가 어릴 때 많이 놀았기 때문에 아는데, 지대가 상당히 높았어요.



만호성(축산성)

**Q** 축산 지리에 대해 해박하신데 부근 마을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A** 원재 죽도는 우리가 있는 축산 1리하고 냇가가 있어 완전히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섬도 (島)자를 붙여 죽도인거죠. 지금은 모래사장이 없어지면서 붙었지요. 그런데 여기 죽도산이 이렇게 뾰족히 나와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렇게 흐를 때도 있고, 다르게 흐를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밀물 썰물 때 조류가 빨라 마치 도랑흐르듯이 왈왈왈하고 빠르게 흘러요. 이쪽 위로 축산 2리하고 차유마을이 형성돼 있는데, 이쪽 위를 염장이라 부른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사람 죽을 때 염을 한다는 이름은 불길하니까 쓰지 않았을 거고, 바닷물이 거기까지 가서 소금 만드는 소금밭이 있어서 염장으로 불렀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주관적 생각이지만 일리가 있어요. 또 여기를 왜 축산이라 부르는가 하면, 옛날에 여기서 소를 좀 많이 먹었어요. 실제 축산업을 하기도 했고. 이 뒷산 이름이 와우산이잖아요? 소가 누워 있는 형태다. 여기가 소머리가 있고 또 산줄기로 치면 여기가 소 꼬리 부분인데 여긴 말미산이거든. 소와 말이 감싸고 있잖아요. 축산이란 이름도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축산 축항 공사준공비

**Q** 축산항이 지금의 모습에서 더 확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A** 옛날에는 수산청 외항으로 지정해도 그냥 기능하면서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연안항이 있으니까 여기는 발전이 어려워지죠. 연안항은 연안 여객선도 들어오고, 화물선도 큰 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군에서 운영하는 군수항도 군의 예산을 들이는데, 여긴 외항이다 보니 따로 개발하기 힘들어졌죠. 옛날에는 1950대에서 1980년대까지는 풍랑이나 태풍이 오면 강구, 후포 이쪽의 배들이 축산으로 피항을 왔어요. 그리고 1980년도에는 노가리도 많았고, 그전에는 오징어도 많았어요. 그 앞 시절에는 정어리가 많았고. 여기는 1997년 IMF때도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전율이 빠르니까. 농사나 공장은 물건을 기획하고 심고 결과물을 만드는데 적어도 3개월은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나가서 바로 잡아 오니까. 거기다가 배가 콕콕 찎 정도로 만선이야. 금방 돈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축산 여기가 한창일 때는 정말 엄청났거든요. 또 대게도 지금은 영덕대게지만 사실 여기 축산에서 낚거든요.

**Q** 여기 대게가 이름났던 이유는 뭘까요?

**A** 여기가 대륙붕에서 200m 이내에 작업을 하거든요. 똑같은 대게라도 강원도 대게하고 울산 대게하고는 또 달라요. 울산의 대게는 좀 싱거워요. 왜 싱거우냐면 그 바다 밑이 작거든요. 강원도 대게는 흥게 있잖아요. 이걸 또 짜요. 수심 깊은 데서 500m 이런 데서 나니까. 그런데 이쪽 대게는 짹짹하면서도 소금을 적당하게 친 맛이라 이거죠.

**Q** 쥐치도 엄청나게 많이 낚다고 하던데요.

**A** 그건 말도 못하지요. 제가 그때는 수협에 판매계장을 했었는데, 새벽 4시가 되면 장화를 신고 경매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루종일 굶습니다. 워낙에 쏟아지니까 이걸 감당이 안되요. 그러다가 겨우 뭘 먹느냐하면 그 쥐치를 썰어가지고 그걸 경비실에 앉아서 먹는 거지요. 말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항구로 돌아나가면서 그득그득 했어요. 그게 주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여수, 삼천포 이쪽으로 가공공장이 많아서 그쪽으로 갔어요. 쥐포 만드는데로 보내는데 차가 수배가 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또 고기를 재어 놓는 거지. 또 동시에 노가리도 엄청 낚거든요. 그러면 노가리가 오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리를 확보해야 하니까. 당시에 저인망은 두탕도 뛰었어요. 고기가 잡히니까. 그러면 경매도 하고, 보관할 자리가 있어야 하니까 그냥 고기를 부어놓고는 깃발을 꽂아놓고 갔어요. 누구 누구 배 고기라고.(웃음)

**Q** 오징어가 많이 낚을 때의 에피소드도 들려주시죠.

**A** 1960, 1970년도에는 오징어가 엄청 많이 낚여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오징어를 건조로 하기 위해서 많이 왔어요. 이 앞에 축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옆으로 다 꽃아서 새끼줄을 쳐서 말린다고 난리였어요. 그때 1959년도에 엄청났던 태풍 사라호가 왔을 때 얘기인데, 음력으로 8월 1일인데 제사 준비한다고 막 그럴때죠. 그렇게 태풍이 지나갔는데 온 길거리에 휴지보다 오징어가 더 나뒹굴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죠.

**Q** 어린신 학창 시절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A** 축산항 초등학교를 나왔고, 중학교는 영해 중학교를 갔어요. 그때는 산길을 걸어서 갔지요. 버스도 없구요. 그런데 옛날에 나무차, 상판차가 있었는데 조수가 우리 선배였어요. 그래서 걸어가기 싫으니까 거기에 올라타고 그랬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팔도 부러지고 그랬어요.(웃음) 걸어가고 하면 1시간 정도 걸리고 그랬어요. 오다 보면 산길 저 밑에 화장터였어요. 그래서 밤에 비가 오고 그러면 겁도 나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축산의 애들이 별났어요. 수박서리도 하고, 청소도 다른 동네 애들 시키고 도망가고, 무슨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축산! 하고 부르고 그랬어요. 갯가에 있다 보니 확실히 좀 별나고 그랬지. 나이 들어서도 술 한잔 마시면 골든벨 울리는 사람이 꼭 축산이라.(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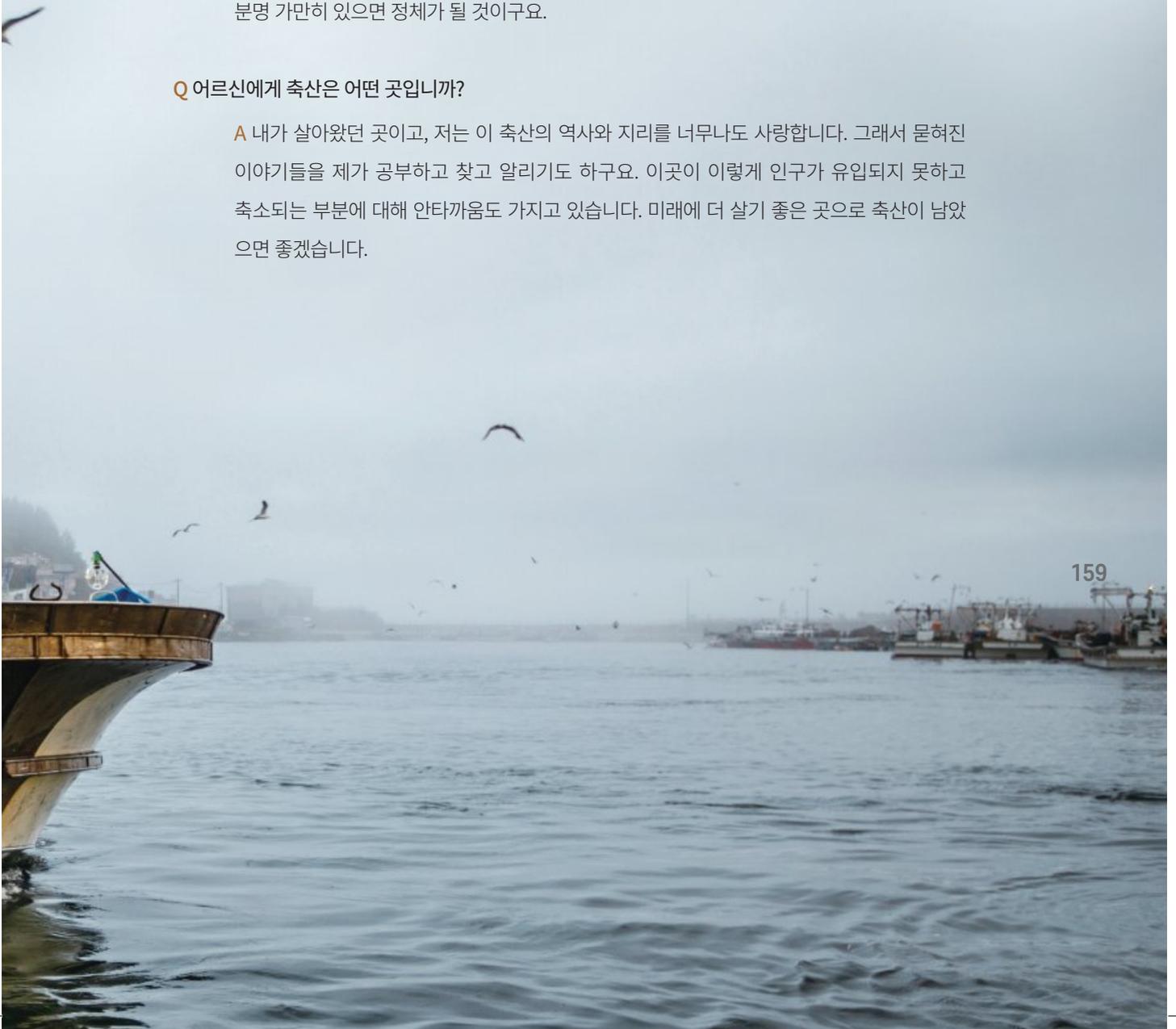


**Q** 현재 죽산항 초등학교 학생이 18명인가 된다고 합니다. 죽산이 자꾸 축소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A** 학생수가 없으니까 학교도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지요. 선생님이 더 많아요. 제가 다닐 때는 초등학교에 980명인가 천 명이 다 됐어요. 이게 문제는 문제지요. 인구 유입이 되어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기에 공공적인 시설이나 대기업이 들어와야 그런 것이 되겠지만, 현재는 인구 유입이 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노동력도 자꾸 줄어들잖아요. 이 동네 자체가 생명력을 더 가지려면 국책사업이 부근에서 있어야 한다는 점이지요. 죽도산에서 와우산까지 케이블 카를 놓자는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리더라도, 그걸 살펴보고 신경을 써야 뭔가 변화가 있다는 말이지요. 거시적 관점에서 결국 지역의 개발과 투자가 군 살림에 보탬이 될 게 아닙니까? 분명 가만히 있으면 정체가 될 것이구요.

**Q** 어르신에게 죽산은 어떤 곳입니까?

**A** 내가 살아왔던 곳이고, 저는 이 죽산의 역사와 지리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묻혀진 이야기들을 제가 공부하고 찾고 알리기도 하구요. 이곳이 이렇게 인구가 유입되지 못하고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죽산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 Chuksan Harbor

Chapter\_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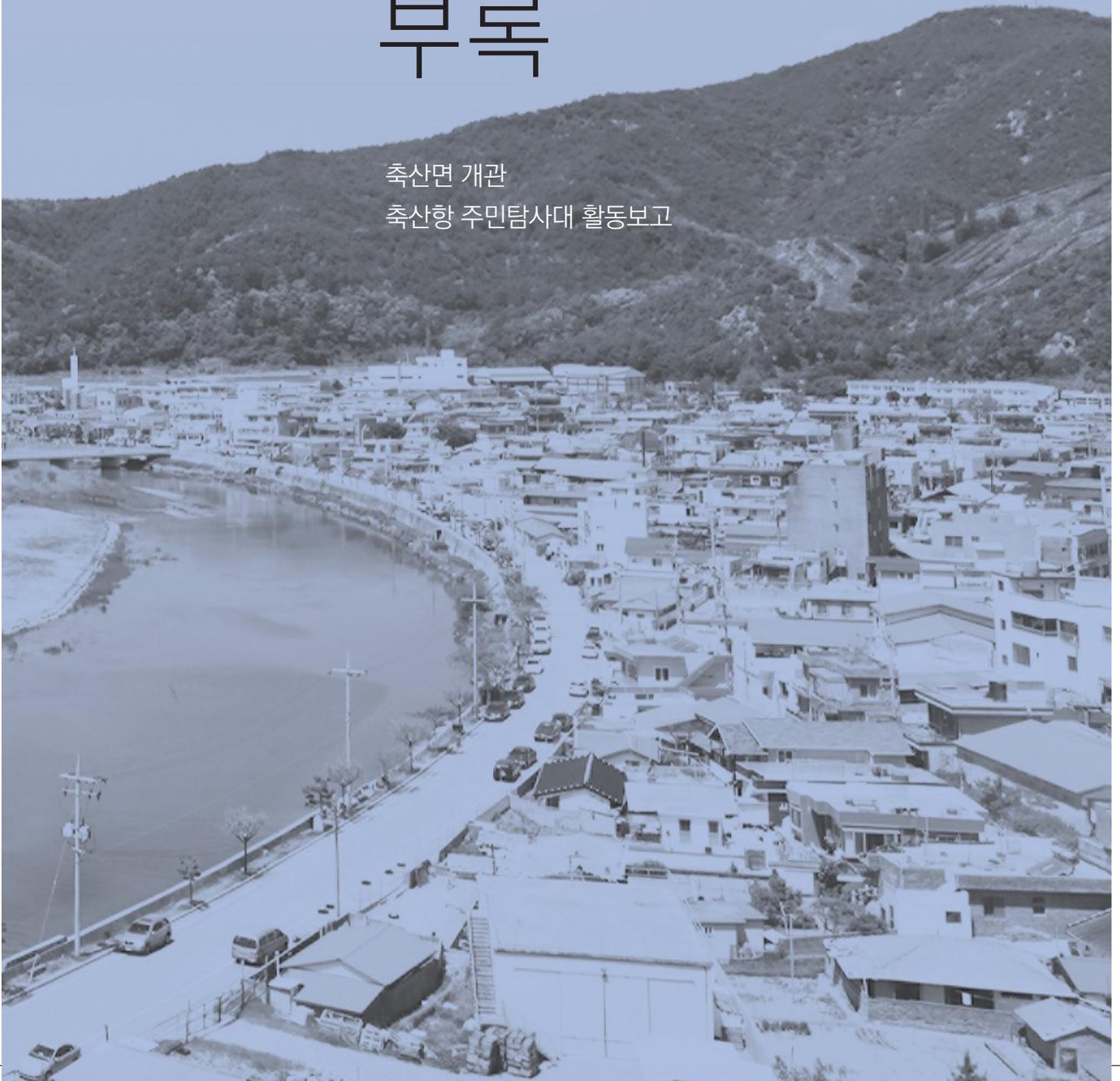


Chapter\_4

# 부록

축산면 개관

축산항 주민탐사대 활동보고



# 축산면 개관



## 1. 위치와 면적

### 1.1 위치

축산면은 동(東)쪽으로 축산 1·3리와 경정 1·2·3리의 5개 마을이 동해와 접해있고 서(西)쪽은 지품면 및 영덕읍의 일부가 경계를 이루고 남(南)쪽 은 영덕읍 석리와 접하고 있으며 북(北)쪽은 영해면 사진리와 경계를 이루는데 국사봉(國祠峯), 화림산(華林山), 경산(鯨山), 용당산(龍塘山)에서 발원하여 흘러나오는 하천이 축산천(山川)을 이루어 축산리를 거쳐 동해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동해안 굴지의 항인 축산항이 발달되어 있는데 지리적 위치는 다음과 같다.

지형	인접지역 경계
동쪽	동해
서쪽	영덕읍 화천리, 지품면 삼화리, 옥류리
남쪽	영덕읍 화천리, 화수리, 매정리, 석리
북쪽	영해면 사진리, 성내리, 벌영리, 묘곡리

### 1.2 면적

축산면의 면적은 59.38㎢로 임야가 47.21㎢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국사봉과 용당산 등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물이 하천을 이루면서 그 유역에 기암, 상원, 부곡, 도곡에 크고 작은 평야를 만들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으며 동해안 굴지의 어항인 축산항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해안을 끼고 있는 마을은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다고 볼 수 있다.



## 2. 자연환경

### 2.1 지역특징

- 축산면의 지세는 태백준령의 지맥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내리면서 서쪽의 지형이 높고 동쪽은 점차로 낮아지는 지형이다. 주위에는 국사봉(國祠奉, 國師峰), 화림산(華林山), 봉화산(烽火山), 용당산(龍塘山), 경산(山) 등 태백정맥에서 뻗어 나온 높고 낮은 산봉우리들이 연이어 있어 산세가 해안까지 급하게 밀려오므로 해안선의 대부분은 단조로운 편이다.
- 면내에는 상원평과 도곡평과 축산평이 대표적인 평야로 볼 수 있고, 산세가 바다로 바로 떨어 지므로 바다는 해안 선에서부터 급하게 깊어진다.
- 면내의 하천은 지방하천으로 축산천(영덕읍화천-동해)과 동로천(대곡리-칠성리), 조항천(조항-기암리)이 있고, 소하천으로 고곡천, 갈모천, 꽃밭천, 부곡천, 대곡천, 큰골지천, 속고실천, 햇불천 등 8개 하천이 모두가 각각 모여들면서 흐르고 있다.
- 축산항(丑山港)을 중심으로 바다를 접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다.
- 면계(面界)는 서쪽은 지품면(知品面)과 접하고 남쪽은 영덕읍(盈德邑)과 경계를 이루며 북쪽은 영해면(寧海面)과 접하고 동쪽은 동해(東海)의 맑고 광활한 바다를 안고 있다.
- 교통은 7번국도(부산-온성선)가 고곡에서 도곡을 통과하며 남-북으로 뻗어있고 축산에서 해안 마을을 거쳐 영덕의 해안을 따라 강구로 이어지는 국지도(局地道) 20호선(포항-영덕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도(郡道)로 화수-도곡선(군도5호), 경정-병곡선(군도7호), 삼화-경정선(군도20호), 남산-금곡선(군도25호)이 있고 면도(面道)와 리도(理道), 농도(農道) 등이 뚫려있어 아주 편리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 축산항은 연안어업과 원양어업의 전진기지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홍게, 고등어, 고동 등을 이용한 수산물 가공업체가 활발히 운영되어 지역경제의 구심점을 이루고 있다.
- 농경지로는 토질이 비옥(肥沃)하여 양질의 농작물을 생산되며 축산천을 끼고 발달한 농지에서는 쌀, 복숭아, 각종 소채류가 친환경으로 재배되고 있다.
- 해안은 주로 바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복, 미역, 김, 해삼, 성게, 천초, 청각 등 해산물이 풍부하며 육지가 끝나는 지점부터 급격하게 깊어지는 수심으로 인하여 어장이 발달되어 있고 동해바다의 맑고 푸른 풍경과 죽도산 순환도로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구분	이름	위치
1	와우산	축산 1리 마을 북쪽편 뒤쪽 산
2	북행산	경정 1리 마을 뒤쪽 남서쪽 산
3	월부산	영정 1리 마을 뒤쪽 산
4	무등산	경정 1리 마을 뒤쪽 북쪽 산
5	대소산	축산면 축산리와 영해면 사진리, 괴시리 뒷산
6	죽도산	축산 3리 마을 뒷산
7	오두산	경정 3리 마을 뒷산
8	매화산	경정 3리 마을 뒷산
9	대별산	칠성리 마을 북쪽에 있는 산
10	곡두산	칠성리 진밭 남서쪽 산
11	경산	축산면 상원리 남쪽에서 고곡리에 걸쳐있는 산
12	면현	영덕읍 화천리와 연결된 산고개로 축산면 고곡리와 경제지점
13	송현	축산면 도곡 2리와 영해면 벌영리, 성내리에 걸쳐있는 고개
14	국사봉	영덕읍 화천리, 지품면 삼화리, 옥류리, 축산면 대곡리, 조항리에 걸쳐있는 산
15	달본산	부곡리 갈모봉 남쪽에 있는 산
16	학국산	칠성리에 있는 산
17	갈모봉	부곡리 가마실 북쪽산
18	복두산	축산면 도곡 2리 마을 뒷산
19	옥녀봉	고곡리, 매정리 경계이 있는 산
20	말미산	경정 2리 뒷산
21	필봉	상원리 수일정 남쪽에 솟아 있는 산
22	방구산	부곡리 죽촌 동쪽 바위 산

## 2.3 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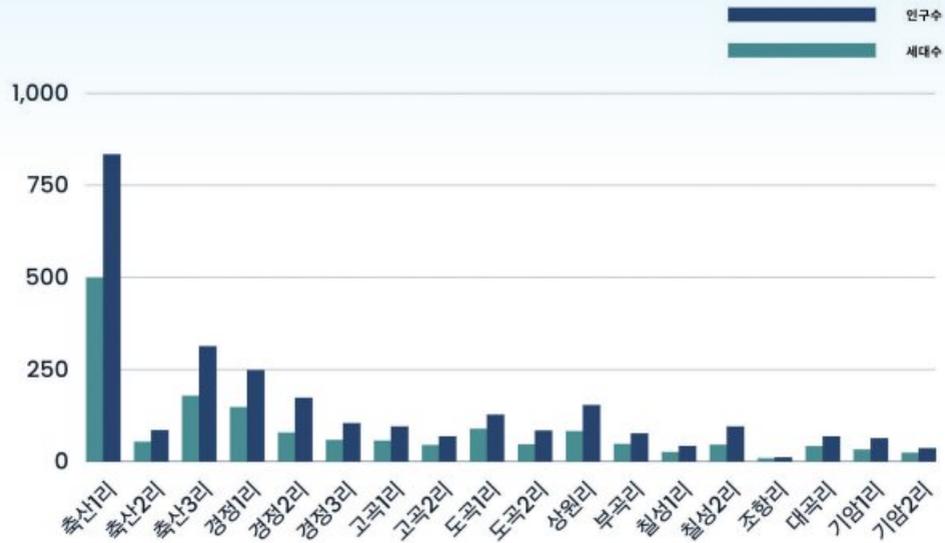
- 축산향을 끼고 있는 축산 1리와 축산 3리, 경정 1.2.3리가 해안선을 따라 어촌마을로 이루어져 있음.

### 3. 인구현황

#### 3.1 축산면 세대 및 인구

구분	세대수	등록인구Population		
		계	남	여
<b>축산면</b>	<b>1,549</b>	<b>2,657</b>	<b>1,255</b>	<b>1,402</b>
축산 1리	498	833	392	441
축산 2리	53	84	40	44
축산 3리	178	312	155	157
경정 1리	147	247	107	140
경정 2리	78	172	82	90
경정 3리	58	103	51	52
고곡 1리	56	94	40	54
고곡 2리	44	67	35	32
도곡 1리	88	126	53	73
도곡 2리	46	83	37	46
상원리	82	152	68	84
부곡리	47	75	36	39
철성 1리	25	41	22	19
철성 2리	45	94	49	45
조항리	8	10	5	5
대곡리	41	67	27	40
기암 1리	32	62	35	27
기암 2리	23	35	21	14

### 축산면 인구현황



### 3.2 축산면 인구 변동 추이

연도별	세대수	인구수	세대당 인구수	평균연령	65세이상 고령자
2017	1,640	3,193	1.94695122	-	-
2018	1,605	3,158	1.96760125	-	-
2019	1,588	3,085	1.94269521	-	1,212
2020	1,549	2,942	1.77017431	58.8	1,209
2021	1,549	2,858	1.71530019	59.9	1,219

출처: 통계청

- 지속적인 인구 감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 특히,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가장 큰 인구 감소를 보임.
- 고령화 증가: 평균 연령이 58.8세에서 59.9세로 증가하였음.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는 유지되거나 약간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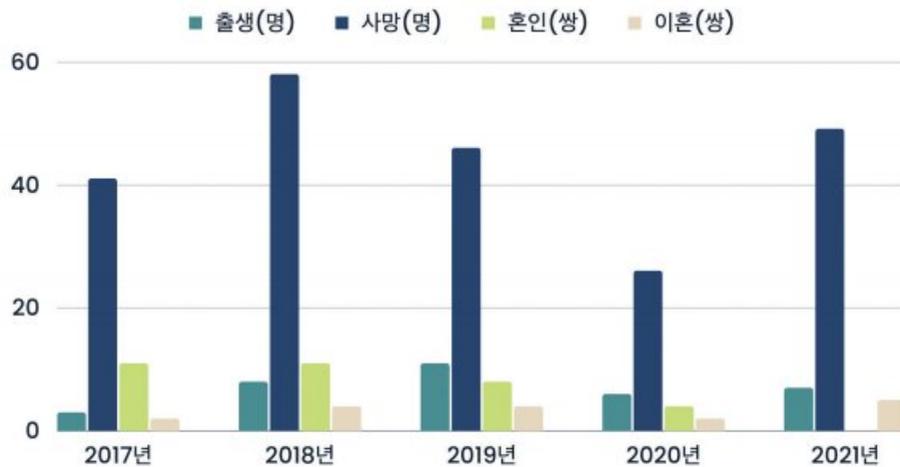
### 3.3 축산면 인구 동태

연도별	출생(명)	사망(명)	혼인(쌍)	이혼(쌍)	비고
2017	3	41	11	2	
2018	8	58	11	4	
2019	11	46	8	4	
2020	6	26	4	2	
2021	7	49	-	5	

출처: 통계청

- 축산면은 지역 내에서 인구 출생률과 혼인률의 감소와 함께 사망률의 증가 및 이혼률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이는 지역의 고령화 및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여짐.

#### 축산면 인구 동태



### 3.4 영덕군 인구 이동추이

연도별	총 이동		시군내	시군간		시도간 이동		순이동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2017	3,617	3,399	672	1,201	1,164	1,687	1,506	218
2018	3,154	3,313	727	1,093	1,124	1,389	1,517	-159
2019	3,311	3,318	698	1,118	1,162	1,457	1,429	-16
2020	3,002	3,401	744	924	1,201	1,380	1,502	-399
2021	3,027	3,665	-	930	1,282	1,353	1,639	-638

출처: 통계청

- 총 전입과 전출 추세: 전반적으로 영덕군의 전출 인원이 전입 인원보다 높게 나타남.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전출 인원이 크게 증가하여 순이동이 크게 마이너스를 기록함.
- 영덕군은 지속적으로 전체적인 인구 유출이 있으며, 특히 다른 시나 도로의 인구 이동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여짐. 시·군내 이동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반면, 시·도간 이동에서 큰 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영덕군 인구 이동추이



## 4. 축산항

### 4.1 정의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에 있는 어항

### 4.2 개설

- 축산항은 축산면 축산리에 있으며, 1971년 12월 21일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음

### 4.3 건립경위

- 축산항은 1930년부터 축항 공사가 시작되어 1933년 준공되었음

### 4.4 변천

- 축산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이후 어선의 안전 정박과 어획물의 원활한 양륙, 어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사회 발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 물양장(物揚場)[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 축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축산항 정비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정비 사업 준공 완료함

### 4.5 구성

- 축산항 시설은 북방파제 395m[보강 1식], 동방파제 150m, 물양장 995m[보강 1식], 소파(消波) 호안 110m, 준설 27.75m, 친수 시설 1식, 기타 월파 방지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상 어항 구역의 면적은 31,707㎡이다. 방파제 보강, 소형선 부두, 부대시설 등에 대한 보완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항구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매년 차이가 있음

### 4.6 현황

- 축산항은 축산천이 동해로 유입되는 인근에 조성되었다. 「어촌·어항법」에 근거한 어항으로서 1971년 12월 21일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다. 축산항은 강구항과 함께 영덕군의 대표적인 2대 항구로 평가된다. 축산항 앞 남동쪽으로는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죽도산(竹島山)[78.1m]이 있다. 죽도산은 약 1억 년 전의 모래와 진흙, 자갈로 구성된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의 지질 명소에 해당한다. 죽도산은 과거 죽도(竹島)라는 섬이었다. 섬은 육계사주로 육지와 연결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 항구를 조성하기 위해 매립하여 육지가 되었다. 죽도산 정상에는 ‘축산항 등대’가 설치되어



# 축산항 주민탐사대 활동보고

## 1. 프로젝트 개요

### 1) 개요

- 프로젝트명 : 2023 축산항 개항 100년 보물선 프로젝트  
    <영덕, 축산항 주민탐사대 : 내가 만난 축산항>
- 기 간 : 2023년 6월~7월(2개월)
- 장 소 : 영덕군 축산면 일원
- 참 가 : [사진], [영상], [어반드로잉] 3개 분야, 총 10명
- 내 용 : 영덕 주민이 축산항 탐사대가 되어 장르별 콘텐츠 작업 및 성과 발표

### 2) 목적

- 영덕군 축산항의 문화자원 연구를 통해 지역 고유의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고도화하여 향후 관광, 축제, 교육, 출판, 마켓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활용
- 영덕군 주민들이 직접 탐사대가 되어 축산항의 여러 모습을 각자 분야별 장르의 특성을 살려 콘텐츠화

### 3) 주민탐사대 소개

소개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박경희 : 축산항 초등학교 교장     영덕 아카이브콘텐츠포토클럽 회원</li><li>- 김용록 : 한국사협 포항지부 2019 우수사진인상 수상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동네 작가 선정</li><li>- 원충희 : 전) 농협 축산항지점장     현) 한국사진작가협회 포항지부 회원 / 영덕사진연구회 회원</li><li>- 한지수 : 봉화 우체국장 / 영덕 우체국장 역임     영덕 아카이브콘텐츠포토클럽 회원</li></ul>

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두환 :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li> <li>- 이상구 : 위덕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현) 고경실버원 원장</li> <li>- 박병준 : 축산항 고향 / 해군 30년 복무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경북지회장</li> </ul>
어반 드로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명희 : 예주문화예술회관 어반드로잉 활동 참여자</li> <li>- 임계화 : 예주문화예술회관 어반드로잉 활동 참여자</li> <li>- 허진숙 : 한국화 / 사군자 교육 수료 예주문화예술회관 어반드로잉 활동 참여자</li> </ul>

#### 4) 주민탐사대 활동 일정

연번	일시	장소	내용
1	2023. 6. 6 (토) ~ 16 (금)	온라인 접수	축산항 주민탐사대 모집
2	2023. 6. 14 (수)	축산면 발전협의회 사무실	축산항 100년 기념 보물선 프로젝트 주민 사업 설명회
3	2023. 6. 20 (화)	다오소 오피스	축산항 주민탐사대 발대식
4	2023. 6. 23 (금)	다오소 오피스	사진, 영상팀 이론강의 (1)
5	2023. 6. 24 (토)	축산면 일원	축산항 1차 현장답사
6	2023. 6. 27 (화)	다오소 오피스	사진, 영상팀 이론강의 (2)
7	2023. 6. 28 (수)	어반드로잉 포항 작업실	어반드로잉 이론강의 (1)
8	2023. 6. 30 (금)	다오소 오피스	어반드로잉 이론강의 (2)
9	2023. 7. 7 (금)	축산면 일원	어반드로잉 축산항 2차 현장답사
10	2023. 7. 8 (토)	축산면 일원	사진, 영상팀 축산항 2차 현장 답사
11	2023. 7. 10 (월) ~ 20 (목)	다오소 오피스	팀 별 개별 멘토링 진행
12	2023. 7. 25 (화)	다오소 오피스	축산항 주민탐사대 성과공유회

## 5) 주민탐사대 활동 모습



축산항 100년 기념 보물선 프로젝트 주민 사업 설명회



축산항 주민탐사대 발대식



축산항 주민탐사대 : 사진팀



축산항 주민탐사대 : 어반드로잉팀



축산항 주민탐사대 : 영상팀



축산항 주민탐사대 단체 사진

174

—  
축  
산  
항  
—



축산항 주민탐사대 사진팀 이론강의



축산항 주민탐사대 영상팀 이론강의





축산항 주민탐사대 어반드로잉 이론강의



축산항 주민탐사대 1차 현장답사



축산항 주민탐사대 2차 현장답사



축산항 주민탐사대 성과공유회





축산항 주민탐사대  
활동결과 영상 바로보기

## 2. 활동결과보고\_사진



축산항 주민탐사대 사진팀 김용록 선생님 작품 (4점)



176

축산항





축산항 주민탐사대 사진팀 박경희 선생님 작품 (6점)



축산항 주민탐사대 사진팀 원충희 선생님 작품 (6점)



축산항 주민탐사대 사진팀 한지수 선생님 작품 (6점)



### 3. 활동결과보고\_영상



축산항 주민탐사대 영상팀 이상구 선생님 - 항구, 축산



축산항 주민탐사대 영상팀 이두환 선생님 - 여기구나! 축산항이구나!



축산항 주민탐사대 영상팀 박병준 선생님 - 내고향 축산항



## 4. 활동결과보고\_어반드로잉



축산항 주민탐사대 어반드로잉 김명화 선생님



축산항 주민탐사대 어반드로잉  
김명화 선생님 작품



축산항 주민탐사대 어반드로잉  
임계화 선생님 작품





축산항 주민탐사대 어반드로잉 임계화 선생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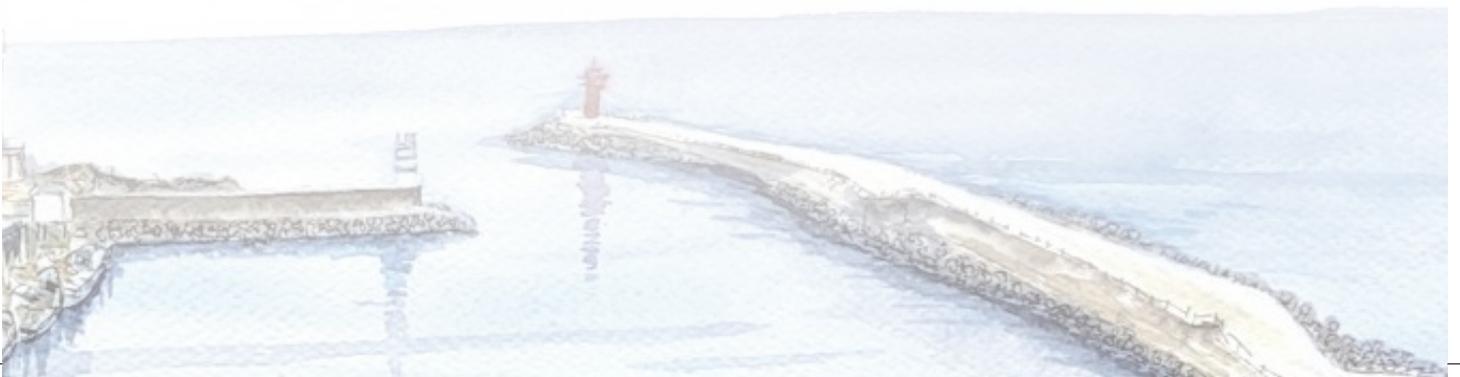


축산항 주민탐사대 어반드로잉  
 임계화 선생님 작품

축산항 주민탐사대 어반드로잉  
 허진숙 선생님 작품



축산항 주민탐사대 어반드로잉 허진숙 선생님 작품



# 영덕의 보물선 축산항 이야기

발행일

2023. 12. 22.

발행처

영덕문화관광재단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99

T. 054)730-5883

기획편집

진병욱, 황정현

원고

김효산, 김희진, 배길남, 성현무, 설태영, 황정현

구술채록 참여주민

권 호, 김동환, 김세현, 김순남, 김영복, 남금숙, 박금한, 박달봉,  
박천봉, 손광웅, 안종한, 오장율, 오해조, 최말선, 최종명

사진

김효산, 김용록, 박경희, 원충희, 한지수

어반드로잉

김현주, 김명희, 임계화, 허진숙

영상

김희진, 박병준, 이두환, 이상구

제작총괄

리멘 Limen

디자인

메이플디자인 Maple Design

도움주신 곳

축산면 발전협의회

영덕의 보물선 축산항 이야기는 2023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기록 프로젝트입니다.

© 본 출간물의 저작권은 영덕군과 (재)영덕문화관광재단에 있으며,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영덕문화관광재단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99

www.ydct.org

054-730-5883

주최



주관





